5년

1,167 참여 기업

1,612 남성

391 영화

82 대중예술

348 문학

120 사진

2,272 서울

3,860 참여 예술가

68 전북

496 경기

467 20대

66 강원

508 미술

14 북경

46 제주

33 경남

2,248 여성

2,194 30대

956,670/h 참여 시간

예술, 새로 봄 다시 봄

2018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사례집

2018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사례집

예술, 새로 봄 다시 봄

2018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사례집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 새로 봄 다시 봄

3860

다시 봄

5

소중한 만남

2014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쉼 없이 5년을 달려왔습니다.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의 사업을 준비하는 지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방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봅니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은 '예술가치확산팀'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술의 가치는 예술 작품에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은 창작 작업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 작품을 향유하는 것만으로는 작품에 투여된 예술인의 고뇌와 땀을 온전히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술인의 독특한 시각과 사유, 창의성이 담긴 작품 앞에서 어리둥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술인의 삶을 지원하는데 집중하고자 하는 우리 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 작품만으로는 다 드러나지 않는 예술의 가치를 더욱 확산시킴으로써 창작의 주체인 작가-예술인 그 자체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예술영역과 비예술영역, 예술인과 기업·기관의 만남은 양측 모두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면서 서로의 영역에서 시야를 확대·심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들은 다소 낯선 영역인 기업·기관의 만남 이상으로 예술인들끼리의 만남도 대단히 소중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활동 영역, 작업 스타일이 서로 다른, 뚜렷한 개성의 소유자인 예술인들이 이러한 만남을 통해 서로가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각자가 가져왔던 창작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협업의 경험이 자신의 창작역량을 강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단은 새삼 바로 그 지점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명칭은 '파견'이지만 실제로는 '만남'이고, 그 만남은 예술인과 기업·기관의 만남일 뿐 아니라 예술인 간의 만남이기도 하며 예술가치의 확산과 더불어 예술역량이 강화되는 기회가 됩니다. 물론 그 만남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갈등과 충돌조차 하나의 과정으로서 받아들이고 넘어서는 예술협업활동을 통해 예술의 가치가 안팎으로 확산되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드러났던 몇 가지 문제들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한 뼘 더 자라나기 위한 성장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인과 기업·기관과의 만남에만 주력하느라 막상 우리 재단과 여러분들과의 만남에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반성합니다. 5년차에 이르니 이 사업의 성과가 조금씩 쌓이고 있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점차 안착되면 만남을 통한 예술가치의 확산이 훌륭한 '콜라보'의 사례로 축적되고 기업·기관과 예술인, 예술인과 예술인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꿈과 열망을 응원합니다. 예술인의 행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예술인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 **정희섭**

CONTENTS

003 여는글 — 소중한 만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 정희섭

BRANCH 01. 씨앗, 뿌리다

008 Timeline — 2018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이렇게 진행됐어요!
009 Look Back I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지난 5년을 돌아보다
서지혜 전문위원
015 Look Back II — 자치의 성격을 띤 혁신적 모델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
양철모 전문위원
018 Keyword — 키워드로 보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BRANCH 02. 싹, 틔우다

022 Eyes on — 1년차 참여 기업들을 만나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임팩트스테이션 주식회사, 하나투어문화재단
040 Opinion — 퍼실리테이터는 [ ] 다
파주나비나라박물관 강석태 퍼실리테이터
042 Interview — 나는 1년차 퍼실리테이터입니다
주식회사 사진방 심명진 퍼실리테이터, 협동조합이웃 조송주 퍼실리테이터
050 Think Art — 참여예술인 다이어리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박선영 예술인
056 Talk Talk — 우리는 1년차 참여예술인입니다
U.P.P. 이보영, 최윤석 예술인/주식회사 네오위즈 강대진, 최경아 예술인
068 Insight — 모든 처음을 돌아보며 다시 생각해보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성무량 전문위원

BRANCH 03. 꽃, 피우다

076 Eyes On — 2년 이상 참여 기업들을 만나다
케이티하이텔주식회사,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추억극장 미림
092 Interview — 나는 2년차 퍼실리테이터입니다
(사)강릉생명의숲국민운동 최제헌 퍼실리테이터
096 Debate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논하다
권효진, 송지은, 신지연, 하원준 퍼실리테이터
106 Think Art — 참여예술인 다이어리
(주)질경이우리옷 박성율 예술인
110 Talk Talk — 우리는 다년차 참여예술인입니다
(주)남영비비안 김세미 예술인,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노은석 예술인

BRANCH 04. 숲, 이루다

120 Theme essay —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나 생긴 일들
희망일터 류미례 퍼실리테이터
122 Theme sketch — 예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다
주식회사 스페셜아트, 한스피크,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노들장애인야학
128 Theme essay — 예술의 옷을 입은 나눔과 순환의 가치
아름다운가게 류미현 퍼실리테이터
130 Theme sketch — 예술, 새활용의 가치를 높이다
주식회사 터치포굿, (주)하이사이클, 져스트프로젝트
136 Theme essay — 예술 짓는 책방, 동네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예술
대륙서점 정희성 퍼실리테이터
138 Theme sketch — 동네 책방에 피어나는 예술의 향기
사단법인 서울산책, 한양문고 주엽점, 올오어낫싱, 마리서사
143 Zoom In — 망고서림, 우사단 능선으로부터 책을 넘어 망고즙액 흘리기
김남수 전문위원

BRANCH 05. 봄, 준비하다

154 FAQ — 궁금해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156 History —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5년간의 사업 통계
168 Insight — 파란 후 희망
최창희 전문위원

174 **매칭일람**

BRANCH 01.
씨앗, 뿌리다

'내일의 모든 꽃은 오늘의 씨앗에서 비롯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씨앗이 실상 모든 위대함의 기초가 되곤 하기에 이런 속담이 나온 게 아닌가 합니다.
작디작은 것에서 발휘되는 강한 힘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삶을 다채롭게 하는 생명력과 더불어 변화의 희망과 꿈이 담겨 있는 예술이라는 씨앗을 당신의 일상에 살포시 떨궈봅니다.
분명, 예술은 여러분의 일상에 희망의 꽃 한 송이를 피워내고 꿈이 드리운 나무를 길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과 나무가 아름드리 우거진 숲에서 우리는 한 뼘 더 자라나 더 큰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008	Timeline	2018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이렇게 진행됐어요!
009	Look Back I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지난 5년을 돌아보다 _ 서지혜 전문위원
015	Look Back II	자치의 성격을 띤 혁신적 모델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 _ 양철모 전문위원
018	Keyword	키워드로 보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2018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이렇게 진행됐어요!

올 한 해 동안 1,000명의 예술인과 232개의 기업·기관이 예술적 개입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작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참여한 예술인들의 성장과 기업·기관의 긍정적 변화, 사회의 혁신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이어졌는지 1월부터 10월까지 한눈에 살펴보는 타임라인을 준비했다. 2018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걸음, 걸음을 만나보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지난 5년을 돌아보다

지난 5년간 4천여 명에 달하는 예술인들을 다양한 조직에 파견해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해 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흘러간 시간을 돌아보자니 기억의 도미노가 워낙 여러 방향으로 쓰러지는 탓에 어느 길을 먼저 따라가며 얘기를 꺼내야 할지 선택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나온 걸음과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일은 어떤 의도에서든 의미가 있으리라 믿으며 지난 5년간 자문위원, 심사위원, 멘토, 기획위원, 전문위원의 다양한 이름표를 달아가며 함께했던 위치에서의 성찰을 보태본다.

글_ **서지혜 전문위원** (인컬쳐컨설팅 대표/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이 사업은 '예술인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교육전문가 프로그램 설계'라는 재단의 초기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이후 몇 차례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거쳐 기업과 지역을 연계한 예술인들의 새로운 직무와 역량개발을 통한 적극적 노동정책 형태의 예술인 복지 사업으로 안착했다. 이 사업은 예술인과 기업, 지역의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문화관광체육부에 이르는 다양한 관계자가 얽혀 있는 사업인 만큼 복합적인 목적성과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뚜렷한 듯 제시된 정책적 목적은 사업의 타당성을 뒷받침해왔다.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그 타당성을 효과로 창출해내기 위해 행정과 관리를 넘어 사업에 필요한 중간조직의 역할을 메꾸는 방안과 역할을 자처하며 연간 천여 명에 달하는 예술인들과 300여 개의 기업, 기관의 참여를 독려해왔다. 이에 응한 예술인와 기업·기관 담당자는 6~7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오해와 이해, 충돌과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도와 성찰을 거듭하며 다채로운 탐색 활동을 꾸려왔다. 참여자들과 외부에서 협력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재단은 동 사업의 현실적 가능성과 실천적 정체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의와 성찰을 이어오기도 했다.

혁신과 무모함 사이에서 태어난 사업의 개념

사실 이 사업은 시작할 때만 해도 혁신적이면서도 무모한 탐험이었다. 예술인들이 '예술적' 기량을 기반으로 기업이나 지역, 공공기관에서 예술의 새로운 역할을 개발해 경제적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장을 넓히고 예술인의 복지를 구현해보겠다는 사업의 개념은 타당하면서도 상당히 이상적이었다. 예술의 새로운 역할로 기업과 지역사회의 과업이나 이슈에 협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지나 변화, 가치가 촉발될 것이라는 가설이 세워졌다.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연마해온 다양한 차원의 기량과 자기 고유의 세상을 읽고 접근하는 방식 등을 동원해 과업과 이슈를 새롭게 질의하고 새롭게 접근하는 방법과 경험적인 앎의 문을 열어주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예술인과 기업의 협력적 활동 중심에 예술작품 내지는 협력의 결과물이 놓였던 기존의 사업들과는 접근 방식부터 달랐다.

기업과 연계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은 2011년~2013년 실행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아르꼼〉 사업[1] 의 '예술적 개입'에서 착안했다. 더불어 지역이나 공동체와 연계하여 작업해온 커뮤니티 아티스트들의 이해를 기반으로 신사업의 접근 방향과 사업 모델이 고안됐다. 대다수의 예술인에게도 생소했던 개념을 바탕으로 시작한 사업은 첫해부터 300명이 넘는 규모로, 6개월의 기간 동안 기업과 기관에 파견돼야 했다. 사전에 이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을 포괄한 그들의 예술 철학을 사업신청서 상으로 질문했고, 면접에서는 예술인의 경험과 지식을 파악하고 사업의 새로운 접근 개념을 학습시키면서 반응적 이해를 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게 선발된 예술인들은 20~30명 규모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 담당 멘토를 지정해 1박2일 워크숍부터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서 멘토링을 받았다. 첫해 사업은 이런 어려움 속에 힘겹게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1) 예술을 통한 기업의 변화와 혁신적인 창의경영 방법과 이론을 연구하고 실행한 프로젝트.

혼성적 정체, 공존해온 다양한 이해들

사업으로 촉발하고자 했던 예술인의 범사회적 혁신의 촉매 역할을 실천 주체인 예술인들에게 온전히 이해시키고 탐색적인 시도로 이어나가게 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초기에는 기업의 홍보물을 디자인해주거나 벽화를 그려주는 기술적 실행이나 예술작품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 또는 장르 기반의 예술교육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잦았다. 2년차부터 도입된 그룹 형태의 협업 프로젝트는 처음 만난 다른 장르의 예술인들 사이에서 '공동 기획과 활동'이 과업의 중심에 자리하기도 했다. 또한 설립된 지 얼마 안 됐던 재단이 예술인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부각하며 탄생했기에 예술인들의 인식 속에 '재단의 모든 사업은 예술인의 구호적 복지를 위한 것'이라는 당위가 깔려 있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6~8개월간 지급하는 활동비는 기관이 제시하는 최소한을 충족하고 받아갈 수 있는 복지비의 개념으로 더 크게 다가가고 있었고, 그래서 예술인들의 복지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일자리 사업이라는 인식이 주요하게 자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예술인들 사이에서 이 사업이 '새로운', '혁신적인' 접근 보다는 '쉽고,' '적당하게' 참여하는 사업으로 인식이 확산되는 데 주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또한, 주로 자본주의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는 입장의 예술인들이 전환적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기업의 가치창출 활동에 동원되는 데에 대한 불편함도 제기됐고, 일부에서는 프로젝트를 통해 그러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기업의 마케팅이나 제품개발 등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결과물을 전제로 한 예술인과의 협업에 익숙한 기업·기관들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어떤 유명 예술인과 협력할 수 있는지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기업에게 예술인들의 예술적 리서치나 관점에 의존해 경영 이슈를 탐색해보는 열린 과정이라는 사업에 대한 설명은 당황스럽고 난처한 일이었던 것이다. 기업 실무진은 무엇을 할지, 어떤 결과를 기대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기에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조차도 작성하기 곤란했다. 이러한 상황은 그나마 이 사업을 이해한 기업에서 직면한 이슈였다.

초기, 많은 기업이나 기관이 홍보물 디자인이나 영상, 벽화, 기업 행사 등 그렇잖아도 예산을 들여 고용해야 했을 예술인들을 이 사업을 통해 충족하려 했다. 자연히 기업에서는 예술인들을 피고용인이라는 위치에서 바라보았다. CEO나 상부의 관심으로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전사적 참여가 가능하기도 했지만 성과와는 무관하게 가중된 업무로 받아들이는 실무자들의 비협조적 태도로 예술인들은 아군 없이 전장에 뛰어들어 새로운 영토를 만들어가는 식의 불협화음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혼돈의 과정 속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의 산업화, 산업의 문화화' 정책에 상당히 부합했던 이 사업은 2차 년도부터 기업과의 협력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좁히게 됐다. 참여예술인 수는 500여 명으로 늘어났고, 3차 년도에는 천여 명까지 참여예술인 수가 늘어났다.

이해 기반도 탄탄하지 않은 사업이 규모를 확장함에 따라 재단의 담당 부서는 질적 관리와 매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방면으로 모색해왔다. 빌바오 사회혁신센터와 협력하며 오픈 이노베이션 패러다임에서 '예술적 개입'을 선도하고 있는 스페인의 전문 기관에서는 연간 8개월에 달하는 장기 프로젝트는 10여 건 정도이며 3개월 단기 프로젝트는 20여 건 정도 소화하고 있다. 그에 반해 국내는 상당한 규모이다.

예술적 개입 구현의 걸음들

첫 해부터 현재까지 재단은 매년 사례집을 발간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담으며 사업이 지나간 길과 함께 가야하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 작업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현장을 찾아 인터뷰를 진행하며 실행된 프로젝트의 가치를 파악해 소개했다.

초기에는 예술인들이 기업이나 기관, 지역의 새로운 맥락에 파견돼 활동해 본 것 자체의 의미와 만나고 협력한 사람들에 대해 반추된 감성, 그 맥락에서 예술은 무엇일 수 있는지, 예술인 자신은 어떤 존재,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의 잠재성을 성찰하게 된 계기들이 사례로 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며 기업·기관의 맥락을 해석하고 예술적 참여자로서 예술인의 개입적 역할을 스스로 정의하고 있다. 기업·기관의 참여 동기와 프로젝트를 통해 다루고자 하는 이슈를 예술인의 관점에서 리서치하고 관찰하고 재질의하며 공동의 프로젝트 문제정의로 합의하는 활동은 예술인들이 주도성을 발현하고 예술인들을 기업 측의 파트너로 위치시키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6개월의 협력 과정에서 기획되고 실행된 활동들이 초기에는 활동 그 자체, 도출된 성과물들을 성과로 보고해왔다면 점차 기업이 참여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에서 포착되는 변화를 인지하고 공동의 성과와 과정의 가치를 논하고 있다. 예술인들의 사회에 대한 감성, 사회 참여적인 역량과 성찰, 그리고 촉매적, 매개적 역할로서 예술(가)의 사회와의 접점이 풍요로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년의 행로에서 발현된 가치들이 가리키는 것

지난 5년의 과정은 사업의 새로운 취지를 이해시키고 예술로 어떤 구현이 가능한지 그 가능성과 확장성을 예술인들과 현장을 통해 질의하고 구성해가는 걸음걸음으로 채워졌다. 이 사업의 성과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들로 그 가치를 대변할 수도 있겠지만 사례 못지않게 사업이 발현한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

먼저 면접이나 보고서에서, 또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고되는 가치가 있다. 바로 예술인들이 다양한 타 장르의 예술인들과 협업하면서 새로운 관계망을 구축했으며 이들이 서로의 작업을 지지해주는 새로운 관객이 되기도 하고, 자문을 구하거나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동료가 됐다는 점이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도 함께 했던 지역에 관한 활동을 간간히 이어간다거나 다른 프로젝트에 도전하거나 자신이 해오던 지역기반 활동에 새로운 파트너로 들이기도 하는 모습을 다른 사업을 통해서 종종 만나기도 한다. 이 사업이 의도한 혁신성과 예술인 복지라는 목적성 보다 더 근본적이고 풍요로운 성과일지도 모르겠다.

홀로 자기만의 세상에서 작업에 몰두하던 방식에서 다양한 사회 주체들과의 상호작용을 경험하면서 작업적 지향과 방법을 전환한 작가들도 등장하고 있다.

“전 정말 파견지원 사업 하면서 크게 달라졌어요” 내면에 있던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이 촉발돼 지역공동체나 도시 이슈에 개입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예술인들을 모아 새로운 실천적 활동을 찾아가기 시작한 한 작가의 얘기다. 새로운 시도에 당황스러운 실패를 맛보기도 하지만 그들은 사회를, 공동체를, 사람들을 새롭게 읽고, 경험하며 자신의 개인적, 작가적 정체성을 또 다시 알아가며 예술적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2016년 몇몇 참여 퍼실리테이터들이 ‘성과아카이브’라는 팀으로 구성되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면면을 현장 속에서 보고 들으며 비판적으로 성찰해 엮어낸 〈말하고 듣는 책〉은 정책 사업에서 수혜자이자 관리대상자로 치부되는 지원대상자 위치의 예술인들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바라보며 목소리를 낸 의미 있는 과정이자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담당 팀원들이 타팀으로부터 지원사업을 하고도 수혜자에게 비판을 받는다는 질타를 받으면서 예술인들의 고찰과 인사이트가 사업에 지렛대 역할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유사한 접근으로 1960~1970년대에 영국에서는 ‘Artist Placement Group(APG)’라는 예술인들의 주체적 운동이 실행된 바 있었다. 스튜디오나 갤러리, 예술계가 형성한 시장의 틀에서 나와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만들어내는 예술적 마찰, 교란으로 사회에 개입하고자 예술인들이 ESSO와 같은 기업이나 환경부, 복지부와 같은 정부기관의 문을 스스로 두드려 지원받고 협력했다. 〈말하고 듣는 책〉은 이 사업이 복지와 혁신의 정책사업이라는 맥락과 함께 APG와 유사한 예술적 맥락으로 가치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잠시 제공했다.

무엇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사회에서 예술인들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인식을 확장했고, 비예술분야와의 예술적 협력 모델로 하나의 상을 제시했다. 2차 년도부터 도입한 퍼실리테이터 제도와 협력구조는 서로 다른 영역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한 모델 안에서 때론 프로듀서로, 때론 상호 조력자이자 촉매자로, 또 원활한 소통을 이어주는 커뮤니케이터로 다각도의 매개적 역할을 경험하고 학습한 예술인들을 키워내고 있다. 예술적 개입 연구자들이 퍼실리테이터의 중요성을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예술인들의 매개자로서의 역량을 키워주는 성과를 수확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술적 개입 프로젝트에 또 다른 리스크를 안기는 것이기도 해 향후 사업 내에서 퍼실리테이터 양성을 랩 기반 아카데미사업으로 분리할 필요성도 보인다.

실행에서 실천으로

지난 5년 동안 예술인으로, 담당자로, 협력 전문가로 풍요로운 경험과 의미 있는 실패들을 함께 겪고 성찰했을 4천여 명의 사업 참여자들에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아마도 각양각색의 의미로 존재할 것이다. 분산돼 존재하는 가치와 성과 역시 '예술적 개입'이 전제하는 예술의 영향이 예술인에 따라, 그리고 맥락과 참여자에 따라, 또 참여자의 상호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탓이기도 하다. 대표적 사례를 통해 예술적 개입의 특정 전형들을 알기 쉬운 확산모델로 보여 달라는 요청에 저항하며 '실천'으로서의 예술적 개입을 강조하고, 그 실천이 전제해야 하는 이해들을 설명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5년간 사막을 걸어왔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니체는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정신세계를 낙타와 사자, 어린아이를 들어 설명한 바 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이 진화해가는 과정과 흡사하다. 행정적 규제와 주체적 동기의 결여로 의무에 순응하고 희생하며 그저 실행만 많은 낙타들에서 강한 자유의지와 넘치는 힘, 기존의 관습이나 규제를 파괴하는 주체성을 지니는 용맹한 사자의 과정을 거쳐 사자의 변혁적인 정신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 사회의 궁극적인 비전으로 진화해갈 수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이 과정을 조력해줄 재단은 다음 5년을 위해 예술인들이 사업의 제도적 규제에의 순응을 넘어서 주체적이고 강한 동기를 탑재한 예술적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업의 과정과 구성을 보완하는 과정에 깨어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술인들의 사회적 활약이 다양한 사회의 맥락과 예술 속에서 뿌리를 찾으면서 예술적 실천과 사회적 가치가 기업이나 기관에서의 '예술적 개입' 모델에 갇히기보다 더욱 폭 넓은 사회적 영역에서 각양각색으로 실험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자치의 성격을 띤 혁신적 모델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

사회적 분노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다시 고립됨을 분노하고 또 다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분노의 진앙지는 어디서부터이고 그 끝은 어디일까? 이 복잡한 사슬은 개인과 사회를 구분하지 않고 휘젓는다. 내가 휘저었는지 사회가 휘저었는지 사회의 휘저음에 나도 한 몫 했는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답답함 속.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위치다.

글_**양철모 전문위원** (공공미술삼거리 前 대표)

능동적 복지를 꿈꾸다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가 생활고로 사망하면서 예술인의 '생존'에 관한 사회적 이슈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예술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에 따라 2012년 11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했다. 2013년은 예술인에게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해였다. 그리고 2014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실행됐다.
사업명칭[1]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일방적인 복지 지원이 아닌, 예술인의 사회적 개입을 통한 '능동적 복지'를 구현한다는 명분이 있었다. 예술인의 자발성, 활동의 자유성, 사회적 협업의 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자유로운 활동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들에게 적합한 모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예술인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향식 정책의 수혜자 위치에 한정되지 않고 보다 주체적인 참여자로서 자리하기를 바랐다. '자치'의 개념을 내재한, 함께 만들어가는 혁신적인 지원제도로 기능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청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 '자치'의 개념이 들어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지난 5년은 어찌 보면 예술인들과의 이해 과정을 이제 막 거치기 시작한 단계라 할 수 있다.

1) 문체부와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의 개념으로 사업을 설득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다른 유관기관의 예술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들과의 중복 사업을 피해야 하는 당면한 과제도 있었다.

다르게 흘러간 예술인의 시간과 행정의 시간

5년 동안 동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그에 반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인들이 사업을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시간은 마련되지 못했다.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는 뒤따르지 않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을 쏟아붓기에 바빴다. 자연히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인들은 아무런 배움 없이 물가에 내어진 아이처럼 광활한 파견지원 사업 안에서 허우적댈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예술인들의 반발이 심해졌다. 사업설명회도 참여예술인들을 위한 자리가 아닌 전형적인 공공기관식 행사로 치러졌다. 전문가의 강의는 다양한 예술인들에게 공감을 끌어내지 못한 채, 도리어 반감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이러한 불완전성들이 쌓여 활동비 미지급이라는 사태로 이어지고 말았다.

예술인들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제도에 적응했으며, 서로 결탁했다. 예술인들 사이에서는 한 달 10일, 30시간이 행정을 위한 조건으로 증빙만 되면 된다는 인식이 퍼졌다. 한 달 10일, 30시간 이상을 활동해도 증빙을 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는데, 예술 활동의 자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외적인 시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결국 '최소한의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급'이라는 자율성에 기반을 둔 '자치'의 여지가 무너진 것이다.

또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는 신진예술인들은 지원의 벽이 높았다. 반면 경험 많고 지원제도에 익숙한 예술인들은 연속참여가 수월했다. 여러 차례 지원했지만 단 한 번도 참여하지 못 했던 예술인이 있는 반면, 5년 연속 참여한 예술가도 있었다. 일몰제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뚜렷한 대안은 없었다. 행정은 '예술인+활동=활동비 지급' 이라는 간단한 공식을 선호할 뿐이었다.

걷어내야 하는 불완전성

이 지점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불완전성을 하나씩 걷어내야 한다. 본인은 동 사업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일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파견지원 사업은 모르는 예술인과 모르는 기관이 협업을 진행하게 하는데, 이 경우 서로를 제대로 알아갈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채 사업을 실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불완전함을 지닌 모델 대신 프로젝트성 파견지원 사업으로 전환되면 어떨까? 5명 내외로 팀을 이룬 예술인들이 프로젝트(사회 개입)를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면 기관에 맞는 프로젝트 팀을 연결해주거나, 프로젝트 팀에 알맞은 기관을 연결해주는 것이다.

아니면, 매년 사회적 이슈를 정하고 그에 맞는 파견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동네서점, 젠트리피케이션, 마을공동체 등 예술인들의 개입이 필요한 이슈와 사업이 결합한다면 애초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가져가려던 정체성에 잘 부합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물론 이 새로운 제안에는 개인 예술인를 배려하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또한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순차적 변화를 통해 예술인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필요도 있다. 결국 이런 조율의 과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책임지고 담당해야 한다. 그래야 예술인들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터다.

당연하겠지만, 예술인 또한 '자율성의 책임'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재단과 예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제도로 정착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함께 방안을 모색할 공론의 장이 필요

제안하건데 2019년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공론의 장을 형성하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 5년간의 사업 변화와 과정을 예술인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지, 사업적 고민은 무엇인지 예술인들에게 이야기해줘야 한다. 예술인들도 예술적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한 명분으로 제도를 바라보기 보다는 상호 이해가 가능한 범주에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대화를 통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함께 도출해낸 의견을 제도에 반영할 때 '자치'의 성격을 지닌 제도로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첫걸음을 오롯이 내디딜 수 있다.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시작된 지 이제 5년차다. 아직 실험을 거듭할 도전의 시간과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문재 시인은 경향신문의 한 칼럼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 *모든 예술은 공공예술이다. 예술이 세상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세상에 의해 바뀌지 않는 예술이다. 나는 세상에 의해 함부로 바뀌지 않는 예술이 세상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작품보다 작업이, 작업보다 작가가 더 커야 한다. 아니, 작가보다 작가의 삶이 더 커야 한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하나씩 빼꼼 머리를 내미는 불완전성들을 하루빨리 제거하며 예술인의 삶을 안정화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키워드로 보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협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인의 직업적 역량을 개발하고 직무 영역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사업으로 단순히 기관이나 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기관과 기업, 또는 지역, 퍼실리테이터, 참여예술인이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협업 프로젝트입니다.

예술적 개입

예술인들의 창의적인 상상력이 일반 조직에 도입되고 다양한 사회활동에 녹아들 때, 유연함과 새로움이 창출되는 긍정적인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술에 대한 편협한 시각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예술적 개입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입니다.

상호 이해

기업·기관과 예술인 간의 상호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협업은 무의미합니다. 각기 다른 문화에서 생활해 온 기업과 예술인이 함께 일을 도모하려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활동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에 기반한 키워드

예술의 가치 확장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으로 우리는 단순히 예술인의 복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만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제대로 매진할 때 문화예술은 제대로 꽃피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삶 또한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삶 속에 예술을 스며들게 해 그 가치를 확장해나가고자 하는 노력, 그것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참 취지입니다.

공동체

이 사업은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 자리를 만듦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의 사회적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임을 재인식하게 합니다. 편견이 만들어낸 '다름'에 직접 부딪혀 그것의 '틀림'을 깨닫게 하는 과정, 그것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입니다.

5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시행한지 어느덧 5년이 되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차츰 안정화되어가고 있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가 보장되고 직무 영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더 많은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사업을 다져나갈 것입니다.

BRANCH 02.
싹, 틔우다

한 송이 꽃이 피어나고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나려면 뿌려진 씨앗이 단단한 땅을 뚫고 싹이 움터야 합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도, 예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아무리 반짝이는 씨앗이라 해도 싹을 틔우지 못한다면 그저 땅속 깊이 파묻힌 알맹이 하나에 불과할 겁니다.
2018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처음 참여하며 자신이 선 자리에서 예술의 싹을 막 틔워낸 기업과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처음 속에서 어떤 싹을 세상 밖으로 틔워냈는지, 설렘 가득한 태동의 순간을 만나봅니다.

022 Eyes on
1. 예술과 과학의 짜릿한 만남 _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 문화예술로 다시 쓰인 우리 동네 이야기 _ 임팩트스테이션 주식회사
3. 기업과 퍼실리테이터, 예술인의 삼박자가 딱딱! _ 하나투어문화재단

040 Opinion
퍼실리테이터는 밸런서[Balancer] 다! _ 파주나비나라박물관 강석태 퍼실리테이터

042 Interview
1. 지남철처럼 끊임없이 전율할 것 _ 주식회사 사진방 심명진 퍼실리테이터
2. 부러지지 않기 위해 흔들릴 줄 알기 _ 협동조합이웃 조송주 퍼실리테이터

050 Think Art
내면의 숨겨진 예술인로서의 나를 되찾은 시간 _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박선영 참여예술인

056 Talk Talk
1. 이태원에 움튼 지속가능성이라는 새싹 _ U.P.P 이보영, 최윤석 참여예술인
2. 예술로 한 걸음 가까워진 우리 사이 _ 주식회사 네오위즈 강대진, 최경아 참여예술인

068 Insight
모든 처음을 돌아보며 다시 생각해보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_성무량 전문위원

예술과 과학의 짜릿한 만남

과학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흔히 연상되는 단어들이 있다. 이성적, 분석적, 체계적, 구체적 등 칼로 잰 듯 딱 떨어지는 이미지의 단어들이 그것이다. 반면 예술은 어떨까? 감성적, 추상적 등과 같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표현들이 연상된다.

이렇듯 겉보기에 달라도 너무 다른 두 분야가 6개월간 짜릿한 만남을 가졌고 물과 기름처럼 달라보였던 서로는 점차 하나로 녹아들었다. 마치, 태초에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흥미로운 결과물들이 다양하게 쏟아져나왔다.

참여기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퍼실리테이터 남명옥(연극)

참여예술인 김유정(미술), 송민숙(무용), 이설애(미술), 지선경(연극)

기업 소개

1975년 설립된 대한민국 대표 국가측정표준연구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우리가 일상에서 활용하는 길이, 질량, 시간, 전기, 온도, 광도, 물질량 등의 국가 측정표준을 확립하고 제공하는 기관이다. 과학기술의 뿌리인 측정표준. 측정이 잘 돼야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산업경쟁력도 튼튼해질 수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이러한 측정표준의 정확도를 높이고 새로운 측정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거듭하며 국가경제와 과학기술의 발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김유정 작가 제공 일러스트 작업 ▶

내겐 너무 어려운 그대, 측정표준

시간, 거리, 무게, 온도 등을 측정하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면 과연 우리가 일상을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을까? 아니다. 우리는 혼돈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시간 관리도 제대로 안 될 것이고,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기온에 적절한 옷차림을 갖추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측정표준은 우리 삶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준이다.

하지만 우리는 측정기준이라는 것에 대해 그저 학교에서 배우는 단위 정도로만 이해할 뿐이다. 비단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다. 그 내용이 어렵고 일상에서 접하기가 쉽지 않은 탓에 측정표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18년 11월에는 의미 있는 이슈도 있었다. 기본단위 중 4개에 대한 SI 기본단위 재정의가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결정된 것.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이에 관해 알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이해하기 어려운 측정표준을 말랑말랑하게 가슴을 울리는 예술과의 협업을 통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렇게, 감성 충만한 예술인들은 똑 떨어지는 수치로 가득한 과학기관으로 향하게 됐다.

효과적인 협업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첫 단추 '명확한 의제 도출, 그리고 예술인 매칭'

남명옥 퍼실리테이터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1지망으로 선택했다. '창의적인 생각' 이라는 관점에서 과학과 예술이 같은 맥락 안에 있다는 기관의 참여 동기에 공감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접근도, 이해 자체도 어려운 과학 기술 분야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알려야 하는 기관의 어려움도 십분 공감했다.

"예술과 과학, 예술인과 연구자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측정표준 대국민 홍보방안 아이디어를 나누고 예술인들의 협업으로 매력적인 예술 활동 결과물이 탄생했으면 하고 바랐어요. 국가표준 제도의 확립 및 이와 관련된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는데 예술적 방법과 예술인들의 선행 과정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멋진 파트너쉽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었죠."

예술인들을 선정하기 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 남명옥 퍼실리테이터와의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했다. 대국민 홍보 방안의 파급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협업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의제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함이었다.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제는 다음과 같았다. 측정 표준은 우리 일상에서 왜 필요한가? 기본단위를 재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상수는 자연으로 정해진 운명인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협업 주제에 대해 예술(가)은 어떤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측정표준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도출된 의제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업 결과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보이는, 다채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네 명의 예술인이 매칭됐다. 연극인 지선경, 무용가 송민숙, 그리고 미술 분야의 김유정과 이설애가 그들이다.

같은 맥락 속에서 숨 쉬는 과학과 예술

숫자와는 좀처럼 친해지려야 친해지기 힘들었다는 예술인들은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과학과 예술활동이 만나 어떤 가치와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자못 기대가 컸다. 예술이라는 장르 특유의 감수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단순한 숫자와 단위로만 그려지는 측정표준을 어떻게 새로이 표현해낼지 예술인들도 궁금했던 것.

하지만 이를 표현해내기 위해선 측정표준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강의를 준비해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각 부서의 연구원들과 만나 소통하고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참여예술인들은 연구원들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학과 예술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 결과 예술인들 모두 각자가 지닌 아이디어들을 쏟아내면서 자신의 장르를 통해 측정표준을 다양하게 표현해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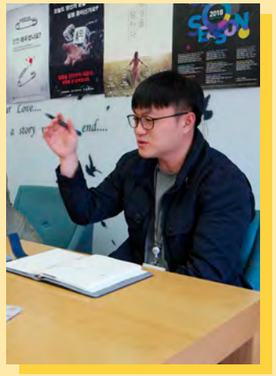
무용을 하는 송민숙 예술인은 "처음에는 막막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과학 원리를 조금은 이해하게 됐고 그렇게 암페어 댄스를 개발했다. +, - 전하가 움직이는 궤도를 춤으로 표현한 암페어 댄스는 여중 강의에서 선보였을 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아이들도 머리로만 알던 것을 몸으로 직접 움직이며 표현해보자 훨씬 이해도 잘 되고 흥미로웠다는 반응이었다.

일러스트 작가인 김유정 참여예술인은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결정된 기본단위 중 4개에 대한 SI 기본단위 재정의를 일반인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일러스트를 통해 흥미롭게 담아냈다. 가령 절대온도 K를 반지의 제왕 절대 반지에 빗대 표현한다든가, 암페어 단위를 안국역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는 왕들에 비유해 '전하'량을 표현했다.

지선경, 송민숙 예술인의 퍼포먼스에 이설애 예술인의 설치미술까지 더해져 '세상의 모든 1kg'이라는 멋진작품도 완성됐다. 자연스럽게 한국표준과학원에 대한 홍보도 되고, 측정표준인 kg의 단위에 대해서도 더불어 고민해볼 수 있는 결과물이 완성됐다.

기관 담당자였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오재승 선임행정원은 "한쪽에게 일방적인 도움이 된 사업이 아니라 각자의 전문 분야에 몸담은 사람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 시야를 확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더 많은 창조물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나눈 시간"이었다며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표면적으로 전혀 섞일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던 과학과 예술의 첫만남이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며 각 분야 안에 시나브로 녹아들어갔다. 이렇게 더 많은 기관과 예술인들이 함께하려는 시도를 거듭한다면 기관은 기관대로, 또 예술인은 예술인대로 의미 있는 가치를 찾아내며 각자의 가능성을 싹틔울 수 있지 않을까.



기관 담당자 미니 인터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오재승** 선임행정원

Q. 처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관 담당자로서 좋았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저희도 연구 내용을 대중에게 알리려고 강연을 하거나 칼럼을 기고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연구원들이 과학 전공자들이다 보니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글을 쓴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술인분들과 교류하면서 '어떻게 접근하면 대중이 수월하게 이해하겠구나' 하는 일종의 기준 같은 것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술인분들과 소통하면서 미처 연구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담아내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주실 때가 많았어요. 연구 소재 개발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아이디어들 덕분에 생각지 못 했던 방향으로 시야를 확장할 수 있었달까요? 그런 면에서 예술인들과의 만남이 큰 도움이 되는 분위기였어요.

Q. 이 사업을 처음 참여하면서 바랐던 점이 있을까요?

A. 처음 기대했던 것 중 하나는 6개월간 이곳에서 협업을 하며 경험한 것들이 추후 이분들이 작품활동을 하는데 영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킬 앤 하이드〉 뮤지컬도 사실 과학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목된 연극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단순히 기관에 파견돼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했는데, 영감을 잘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네요. 하하(웃음).

Q. 의도했던 만큼 결과물도 잘 구현됐다고 생각하시나요?

A. 저희가 바라는 바는 명확했죠. 11월에 있었던 중요한 이슈를 아무래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려면 새로운 시각이 필요했거든요. 한 마디로 이 분야를 잘 모르는 대중의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시각이죠. 그 부분은 꽤 많이 해소가 됐어요. 처음 의도한 것과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생각하면서 최대한 예술인 분들이 자유롭게 느낀대로 표현해주시길 바랐는데, 여러 장르 예술인분들이 갈등 없이 즐겁게 단위들을 풀어주신 것 같아요.

Q.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지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결과물을 내는 일에 있어서는 예술인분들이 주도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A. 실제로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더라면 저희가 기획하고 역할을 정해드리고 과정마다 지시를 하면서 진행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할 거라면 전문적으로 홍보물 종류를 만드는 외주업체에 일을 맡기지 확고한 자기 장르가 있는 예술인들을 모아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희는 이분들이 가진 장점과 특징으로 풀어내는 과학이 보고 싶었고 대중들에게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Q. 이 사업에 처음 참여하면서 보완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A. 기관이나 기업 담당자가 이 사업을, 또 예술인을 잘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재단에서는 기관 담당자가 예술인을 이해하고 본인 단체의 목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울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관 담당자 워크숍이 진행된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사전정보가 너무 없거든요.

기업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 내고 싶은 결과물을 적게끔 돼 있는데 어떤 가이드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일러스트 작가가 있으면 "홍보 포스터 만들어주세요", 시나리오 작가가 있으면 "표어 만들어주세요" 할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사무를 해낼 여건이 안 되는 단체가 아닌 보통의 기업이나 기관 단위에서는 그런 부분을 배제해야 더 창의적인 과정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기업마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과학기술, 금융, 마을공동체 등으로 카테고리화 한다든지 해서 예술인들이 기관을 선택할 때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면 좋겠어요. 참여하는 사람이 더 큰 가치를 느끼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하고 싶어지는 사업으로 운영된다면 좋지 않을까요?

참여기업 임팩트스테이션 주식회사

퍼실리테이터 박선영(국악)

참여예술인 김재희(무용), 김진하(미술), 노사라(음악), 성지현(대중예술), 안정란(미술), 전혜윤(연극)

문화예술로 다시 쓰인 우리 동네 이야기

생명력 없이 존재하기만 하는 땅이 아닌, 함께 일궈나가는 삶터가 절실한 현대 사회다.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 동네에는 뭐가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현대인은 그리 많지 않다. 진정 삶다운 삶을 위해서는 이런 상태부터 개선되어야 마땅할 터. 임팩트스테이션은 입지 조건이나 환경이 좋은 홍제역 일대가 사장되지 않도록 홍제동만의 스토리를 재해석하고 개발하기 위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문을 두드렸다.

기업 소개

청년공간 및 문화공간과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임팩트스테이션은 청년들이 지역자원에 기반해 도시재생, 지역문화 활성화, 유휴 공간 활성화 등 지속적인 지역비지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2017 신촌 도시재생 아카이브 사업, 2017 서대문 예술마을 추진단 컨설팅, 교육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협업의 첫걸음, 동네 알아가기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일대는 교통 연계성도 좋고 주변을 둘러싼 자연 공원과 홍제천이 있어 여러 면에서 좋은 환경이 갖춰져있다. 그러나 1970~1980년대에 지어진 낡은 건축물이 많은 데다 기반 시설도 부족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홍제동의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표현해 지금보다 활력이 감도는 동네로 만들고 싶었던 임팩트스테이션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처음 손을 내밀었다.

"창조적인 발상으로 똘똘 뭉친 예술인들과 홍제동 스토리의 재해석은 물론 기존 지역민과 유진상가 B동에 입주하는 혁신가들을 연결하는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었어요."

이러한 바람을 갖고 있던 기업은 무용, 미술, 음악, 대중예술, 연극을 하는 여섯 명의 예술인들과의 첫 만남에서 홍제동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유진상가 건물이 지어지며 있었던 에피소드 등을 상세하게 전달했다. 또한 주민들과의 교류 사업이 활발하지 않고 예민한 부분이 있어 작업의 종류를 선택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음도 빼놓지 않고 알렸다. 예술인들도 섬세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분위기를 살폈다. 기업도, 예술인도 협업에 대한 열정과 기대가 가득해 향후 작업이 기대되는 첫 만남이었다.

예술인, 활동 경험을 나누며 방향을 잡아가다

예술인들은 기업과의 만남 이후 도시 재생 활동에 대한 경험과 새로운 작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오래된 재래시장의 역사를 조사해 시장 내 폐공간에서 단막 뮤지컬을 진행했던 경험, 서울의 핫스팟을 담았던 영상 작업 등 여러 이야기가 공유됐다.

아이디어를 나누던 예술인들은 이번 협업의 주요 무대가 될 유진상가를 비롯해 홍제천과 홍제동 일대에 관한 더 많은 자료 조사의 필요성을 깨닫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발굴해나갔다. 얼마 후, 예술인들은 기업에서 얻은 정보에 예술인이 조사한 자료를 더해 협업 방향을 좁혀나가기 시작했다. 박선영 퍼실리테이터는 "방대한 리서치 활동에 전부 다른 장르의 예술인들이 다 보니 생각의 갈래가 끝없이 나눠졌다"면서 "협업 방향이 하나로 쉽게 모아지지 않았지만, 토론 과정 자체도 하나의 작업 과정이라 여기고 진지하게 토론을 하면서 방향을 좁혀갔다"고 전했다.

예술인들은 7월 말 기관과 유진상가를 연구하는 유진LAP에서 진행하는 유진상가 포럼에 참여해 리서치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민한 협업 작업의 틀을 발제했다. 일반인의 시선으로 이들의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보일지 궁금했던 것. 다행히 발제를 꼼꼼히 듣던 대학생이 투어 프로그램과 관련해 질문도 하고, 현장에 참석한 구 시의원이 참고할 만한 내용도 조언해 주는 등 기대 이상의 관심을 얻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아님에도 예술인의 시선에서 유진상가가, 또 홍제동이 어떻게 표현될지 흥미롭게 바라봐주는 주민들의 시선에 예술인들은 큰 힘을 얻었고 유진상상프로젝트가 시작되는 10월까지 더욱 박차를 가해 작업에 몰입할 수 있었다.

유진상상프로젝트 '예술인의 시선'

예술인들은 시간이 많이 촉박했음에도 각자 작업 준비는 물론 서로의 작업을 도와가며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준비해나갔다.

드디어 10월 2일, 성지현 예술인의 'Story of Yujin complex' 사진 전시를 시작으로 유진상상프로젝트 '예술인의 시선'이 시작됐다. 다음 날에는 사람들과 함께 상가 곳곳을 돌아다니며 퍼즐 조각을 찾고 무대로 올라와 퍼즐을 완성하는 이동형 연극, '시간의 조각'과 국악기와 키보드, 기타와 미디 엠알을 같이 사용한 음악 공연 '사라플라이'가 진행됐다. '시간의 조각' 공연이 시작된 후 주민들은 물론 상가 상인들도 많이 참석해 공연을 지켜봐주었다. 김재희 예술인의 무용 공연 중 작은 음향 사고가 있었지만, 모든 배우의 열연에 관객 호응이 더해져 성황리에 공연을 마칠 수 있었다. 이어서 진행된 노사라 예술인의 '사라플라이' 음악 공연 역시 중앙정원의 분위기와 잘 어울려 멋지게 마무리됐다.

4일과 5일에 연이어 진행된 '도청과 미행'은 예술인이 느낀 점을 안내하는 것이 아닌, 참여자가 주체적으로 유진상가를 둘러보고 느낀 점을 토론함으로써 참가자가 스스로의 시선으로 상가를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저녁 7시에는 김진하 예술인이 준비한 '*중정(中庭) 이동형'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 직접 만든 사운드가 깔린 이야기를 들으며 공간을 체험하는 프로젝트로 사운드만으로 상당한 몰입을 이끌어내는 멋진 작업이었다.

10월 6일, 사진전 철수를 끝으로 임팩트스테이션과의 협업 프로젝트도 끝이 났다. 기업과 예술인의 입장이 100% 같을 수는 없기에 소통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인내와 이해, 소통하려는 노력을 통해 지역의 이야기가 담긴 콘텐츠를 멋지게 만들어냈다.

홍제동 주민과 상인들의 호응까지 얻어낸 뜻깊은 프로젝트였던 만큼, 이를 시발점으로 그 일대에 더 많은 이야기가 생겨나 활력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고대해본다.

*중정(中庭) : 마당 한 가운데 또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마당을 의미

기관 담당자 미니 인터뷰

임팩트스테이션 주식회사 조아나

Q. 처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느낀 동 사업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A. 예술인의 생활 유지에도 도움이 되면서 기업의 미션을 문화예술로 풀어 가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수행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작업 프로세스와 예술인과 협업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향후 예술인들과 또 다른 프로젝트 협업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Q. 첫해 참여 기업으로 개선되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아무래도 참여 기업의 입장과 참여예술인들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겠지요. 전체적으로 목표로 했던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됐지만, 기업과 예술인 각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아쉬움들이 어쩔 수 없이 남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업의 미션에 예술인들이 시간과 역량을 조금 더 할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대신 비용을 좀 더 지급 받거나, 혹은 서울시 청년 예술단 모델처럼 예술인들이 자기 스스로 기획한 작업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추가로 지급 받는 두 가지 모델이 병행되는 형태로 조정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Q.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과 협업을 하면서 그 니즈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유진상가 내의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콘텐츠로 일시적으로나마 변화시키고 싶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상가 구성원들 중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 B동의 공공 공간들을 활용하는 청년들, 3층의 입주 기업들이 각각 분절적으로 자신들만의 동선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연결지점인 중앙정원에서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연결하려는 목적이 있었죠. 그리고 실험적이거나 새롭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들을 지역의 삶의 공간에서 선보이고자하는 목표도 있었습니다.

이런 목표들은 대부분 기대했던 만큼 구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진상가의 특성이나 스토리를 반영한 콘텐츠였던 만큼 이곳 주민이나 상인분들 그리고 관객들의 만족도가 높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흡족한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Q. 기업 입장에서 올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가장 큰 수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참여예술인들이 활동 지역이었던 유진상가에 대한 리서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역의 스토리와 특성을 담은 콘텐츠를 적절한 완성도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큰 수확이겠죠.

Q.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기업 담당자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우리 회사의 경우 문화예술분야가 주요 사업 영역에 포함돼 있어서 담당자가 다른 문화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였음에도 예술인들과의 협업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일반 기업에서는 더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제도적 보완 내지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입체적인 개선안을 고려할 때라고 봅니다.

기업과 퍼실리테이터, 예술인의 삼박자가 딱딱!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기업과 퍼실리테이터는 물론 예술인까지 삼위일체가 될 때 그 의미를 제대로 발현할 수 있다. 관광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던 하나투어문화재단은 올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의 시너지를 톡톡히 발휘하며 멋진 협업을 일궈냈다.

참여기업 하나투어문화재단
퍼실리테이터 이지연(미술)
참여예술인 신희준(음악), 이윤정(연극), 허나영(미술)

기업 소개

하나투어는 업계 최초로 CSR팀(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신설해 여행지원사업, 장학사업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오랜 시간 진행해왔다. 그리고 2017년 5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지속적인 사업진행과 확장을 위해 하나투어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관광복지 증진과 관련,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을 비롯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는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방향을 설정하고 예술인을 맞이하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첫 발을 뗀 3월. 하나투어문화재단은 해당 사업에 경험이 있는 이지연 퍼실리테이터의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주제로 예술인들과 협업할 것인지,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사업진행 방향을 세워나가는 시간을 가졌다.

기관 담당자는 "예술인과의 협업에 대한 개념, 접근방식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주셔서 빨리 방향을 정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지연 퍼실리테이터는 꼼꼼한 회의 준비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단순히 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 기업의 니즈와 해당 사업의 취지가 잘 맞아 들어갈 수 있는 협업 주제를 논의했다.

그렇게 하나투어문화재단 문화공간 조성과 희망여행프로그램의 문화예술콘텐츠 개발이라는 협업 주제의 뼈대를 도출한 기업은 건축, 음악, 영상, 연극, 무용, 미술 분야의 예술인과 매칭을 희망하며 만남의 광장을 준비했다.

협업 주제가 명확하고 흥미로운 까닭인지 많은 예술인이 지원했다. 기관 담당자와 이지연 퍼실리테이터는 모두를 선택할 수 없다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협업 주제에 잘 어울릴, 연극, 미술, 음악 분야의 예술인 세 명을 선택했다.

예술인 선정이 끝나고 기업은 처음 협업주제로 잡았던 두 가지 큰 틀에서 한가지로 집중하는 방향으로 틀었다. 이지연 퍼실리테이터는 "기업에서는 사전에 정한 주제에 한정짓지 않고 예술인들과 직접 만나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면서 "기업이 이 사업을 제대로 인지하고 열린 마음으로 예술인을 대하려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양한 아이디어 속에 피어오르는 협업의 불씨

이지연 퍼실리테이터와 신희준, 허나영, 이윤정, 세 명의 예술인은 사전 회의에서 각자 갖고 있던 풍성한 아이디어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일본 여행 당시 전시회에서 본 푸드트럭 퍼포먼스를 발전시킨다거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모태 한국인 학생들을 함께 여행 보낸다거나, 예술인과 함께 동행할 경우 친환경 쓰레기통 설치와 같은 설치미술을 진행하고 볼런투어와 연계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등 아이디어는 끊임없이 쏟아졌다.

예술인들은 이어진 기업과의 회의 때는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한층 더 깊이 있게 발전시켜 왔다. 나아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대화를 이끌어나갔다. 장르와 장르 사이, 자연스러운 협업의 분위기가 조성되며 긍정적인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물씬 풍겨났다.

이후, 기관에서는 여러 옵션을 고민한 끝에 세 가지를 제안했다. 전국 다문화 어린이 농구대회와 볼런투어를 연계하는 '희망여행 지구별 여행학교' 프로젝트와 서울과 각 지사 봉사단 직원들이 지역 아동들과 함께하는 '희망봉사단 패밀리 캠프' 프로젝트, 그리고 직원들의 재능나눔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었다.

예술이 가미돼 풍성해진 기업의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젝트 내에서 예술인들은 저마다의 능력을 발휘해 예술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로 했다. 먼저 8월에 푸켓에서 열린 희망여행 지구별 여행학교에서는 연극놀이와 모빌만들기 등을 진행했는데 초, 중, 고등생이라는 연령차이 때문에 서먹함이 있었지만 예술인들과 현지 스탭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아이들은 몸과 마음을 풀고 연극 놀이에 흥겹게 임할 수 있었다. 마지막 경기 날에는 농구장 바로 앞 공간에 모빌 작품과 아이들 사진 등을 설치했다. 경기 후 땀에 흠뻑 젖어 나온 아이들은 예술인들이 설치해둔 작품과 사진을 보며 행복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술이 아이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간 듯했다. 기업에서도 "예술 프로그램이 추가됨으로써 프로젝트가 더 풍성해졌다"면서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다"고 전했다.

재능나눔 프로그램에서는 청바지 롤업필통 만들기를 진행했다. 아름다운가게에서 사전에 지원받은 청바지 25벌을 예술인들은 사전에 재단하고 준비하느라 꽤나 애를 먹었다. 그러나 '버려진 청바지의 업사이클링'이라는 의미를 더함으로써 재활용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마지막 프로그램이었던 '희망봉사단 패밀리캠프'에서는 신희준 예술인이 긴 시간 준비해온 〈Cup Song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종이컵을 리듬악기 삼아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인데, 집중하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 산만한 아이들도 있고 해서 진행이 쉽지 않았지만 예술인들은 기관 인력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다독여가며 차근차근 순서를 배워나갔고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6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하나투어문화재단과의 협업활동도 마무리됐다. 하나투어문화재단 측은 "문화예술영역을 프로그램에 쉽게 접목해 참여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재미있는 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해주고 좋은 시너지를 내준 예술인들에게 고맙다"고 전했다.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한 퍼실리테이터, 사업에 대해 깊이 이해하려는 기업의 태도, 열정적인 예술인들의 참여가 한데 빚어진 근사한 협업 사례가 아닐까?

기관 담당자 미니 인터뷰

하나투어문화재단 **신학진** 대리

Q. 처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셨는데, 기업 담당자로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A. 우선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하나투어문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취지가 일치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에 참여예술인들의 역량이 더해지니 참여자들에게 더 전문적인 방법으로 문화예술의 가치를 전해 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퍼실리테이터, 예술인분들과 함께 기획하며 기대했던 효과들이 구체화 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Q. 첫해 참여 기업으로서 아쉽다고 느껴졌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개선되면 좋겠을지 제안해주신다면요?

A. 기존에 진행하는 사업에 예술인의 역량을 더하려다 보니 초반에는 참여예술인들이 실제로 기대했던 업무와 기업이 예술인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퍼실리테이터의 중재를 통해 입장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었고, 덕분에 시너지가 나서 진행하는 사업들의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자평합니다. 이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해 각 담당자(기업, 퍼실리테이터, 예술인)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 했기에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각자가 기대하는 방향성, 기대치 및 포부 등에 대한 사전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동적인 모습은 지양하고, 모두가 사업에 주도적으로 임한다면 한층 더 좋은, 더 발전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Q.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과 협업을 통해 하나투어문화재단의 니즈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참여 대상의 연령 및 재단의 기존 사업에 따라 각기 다른 문화·예술 분야가 협력했는데, 각각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고려된 프로그램이 알맞게 진행됐다고 판단됩니다. 정확한 수치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참가자들로부터 긍정적이고도 다양한 피드백을 받았다는 점에서 재단의 니즈는 상당히 충족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별여행학교 푸껫편의 경우 유소년농구팀 선수들이 동행했는데 연극 전문가 이윤정 예술인이 '농구'를 주제로 한 연극놀이 'Rebound Theater'를 통해 아이들이 경험했던 농구에 관한 에피소드를 직접 무대 위에서 연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기획 당시만 해도 아이들이 쑥스러워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아이들의 역량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고 '농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다른 친구들의 무대를 보면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저희와의 푸껫 여행이 기억에 남는 소중한 시간이 됐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을 낯설어하는 참여자들의 생각을 개선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기대했던 기업과 예술인의 시너지 발생에 대한 적합한 예시라고도 생각합니다.

Q. 기업에서는 올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가장 큰 수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어떤 한 분야에 치우침 없이 연극, 미술, 음악 관련 참여예술인이 협업을 통해 서로의 역량을 보완할 수 있었던 점이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으로 재단이 진행하던 기존 사업을 재해석하는 기회가 됐을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 또한 지난 여행을 더욱 더 뜻 깊게 추억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재단 내 문화예술을 접목한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도화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계기였습니다.

Q.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담당자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기업 담당자의 중요한 역할은 예술인에게 기업 차원에서 협력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들의 고충 중 하나가 기업이 어디까지 협조할 수 있고 본인들이 어디까지 역할을 해도 괜찮을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협력의 초기 단계부터 서로에게 많이 물어볼수록 합을 빨리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술인들의 역량을 기업에서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상호 적정선의 책임감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춤추는 나비 展' 행사를 진행중인 강석태 퍼실리테이터

퍼실리테이터는 밸런서[balancer] 다!

재단으로부터 '퍼실리테이터란 [ ] 다' 라는 주제로 사례집에 실릴 칼럼을 의뢰받고 고민이 시작되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수많은 퍼실리테이터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정의를 내렸음직한 단어들이 넘쳐날 것이기에, 올해 처음 그 직무를 수행했던 나의 관점으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에 대해 정의해보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주관적이거나 혹은 개인적인 시선임을 강조하며 나의 경험을 돌아본다.

글_ 파주나비나라박물관 강석태 퍼실리테이터(시각예술/문화예술학)

영역과 영역의 사이

2014년에 시작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올해로 5년차에 접어들었다. 예술인들의 직업역량강화와 협업을 통한 창작가능성의 확장, 경제적 지원 등을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는 지원 사업이다.

출발 당시에는 참여예술인과 멘토의 활동영역과 참여 기업과 기관이라는 공간영역이 존재했고, 멘토 1명과 예술인 15명 내외로 구성된 조별단위에서, 다음해인 2015년부터는 기관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퍼실리테이터와 참여예술인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 단위의 사업구조로 변화되었다. 나는 첫해부터 3년 동안 예술인의 영역 안에서 다양한 협업을 경험해보았고, 올해는 퍼실리테이터로 사업에 참여했다.

그간의 경험에 미루어 보았을 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는 다양한 영역과 영역의 '사이'가 존재한다. 참여예술인의 영역, 행정과 기관 사이 매개자로서의 퍼실리테이터 영역, 그 사이에 예술인이기도한 퍼실리테이터의 영역이 그것이다.

현장 활동과 행정 사이의 영역에 있는 퍼실리테이터는 자칫 외로울 수 있다. 한편으론 프로젝트에 몰입하다보면 어느 영역에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또 직무를 지나치게 고집하는 순간 지위만 남게 된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그 사이의 역할에 집중했다. 중립과 매개가 주는 미온적 행동이 활동의 유연성이나 예술인들의 열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험이 많다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잘 대처하겠지만 초보 퍼실리테이터가 적절히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

모빌의 조각에서 발견한 연결과 균형의 힘

파주나비나라박물관에 파견된 우리 팀은 나비의 움직임에서 모빌이라는 은유를 떠올렸다. 모빌을 시작으로 기관의 니즈인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변화를 위해 작은 축제를 기획하는 실험적인 도전을 했다. 모빌이라는 원소스로 체험과 참여전시, 버스킹 공연으로 프로젝트를 연결하며 작은 축제를 만들었던 것이다.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박물관의 노력에 힘입어 열다섯 가족들의 이야기와 추억, 꿈이 담긴 조각들을 연결하여 모빌을 제작하고, 전시와 축제로 확장시켜 나갔다. 소방관 아빠의 사랑이 담긴 편지와 그 조각 밑에 연결된 아이의 소방차 그림조각. 하나의 조각으로 나뉘어 있던 가족들의 메시지는 두 개에서 네 개의 조각으로 연결되었고 그렇게 균형을 잡으며 하나의 행복한 이야기로 완성돼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 균형의 힘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많은 모빌들이 야외에서 가을바람에 춤을 췄다. 체험과 전시로, 야외공연으로, 전시에 참여한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내며 어느새 우리들도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다.

◀ 파주나비나라 박물관 사진제공_안효정(사진) 촬영

영역에 대한 균형 있는 선택과 이해

모빌 하나로 많은 이들과 연결될 수 있었던 지난 8개월간, 나는 퍼실리테이터 직무를 수행하면서 예술인과 기관과의 관계 속 소통과 신뢰, 배려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됐다. 퍼실리테이터라는 위치는 지위에 대한 관점보다 직무와 역할에 대한 균형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밸런서[balancer]의 사전적 의미는 1.균형을 잡는 사람 2.곡예사(acrobat) 등이다. 퍼실리테이터는 참여예술인들과 기관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고 예술인들과는 속도를 맞추어 나가야 한다. 또한 균형감을 잃지 않으면서 영역과 영역 사이를 오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때로는 예술인들의 영역 안에서 열정을 다하기도, 행동과 행정의 영역사이에서 곡예를 하기도 한다. 그 안에서 의미를 정량화하기도 하고, 과정을 결과로 애써 아우르는 행정가가 되기도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예술인이 더 좋은 예술인이 되도록, 예술적 개입으로 파견기관은 보다 유연한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예술로 모두가 행복해지도록, 그 행동들이 서로에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섬세한 역할을 하는 것이 퍼실리테이터가 아닐까? 그래서 나는 우악스러운 큰 힘이 아닌, 작지만 이해와 균형 있는 선택을 필요로 하는 밸런서[balancer]라는 단어로 조심스럽게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에 대해 정의를 내려본다.

밸런서로 각 영역의 균형을 맞추는 퍼실리테이터처럼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역시, 예술인들의 복지는 물론 예술로 행복해지는 사회 사이를 균형 있게 맞춰주는 가치 있는 사업으로 더욱 더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지남철처럼 끊임없이 전율할 것

주식회사 사진방 심명진 퍼실리테이터

故신영복 선생은 이렇게 썼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끝을 떨고 있다. 여윈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우리는 그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끝이 불안정한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 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 삶의 자리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살펴보겠다는 다짐을 평생 잊지 않았던 신영복 선생의 신념이 드러나는 글이다.

올해, 사진방과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퍼실리테이터로 처음 참여한 심명진 예술인은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지남철에 비유했다. 재단, 기업, 예술인 그 어느 편을 향해 고정돼서는 안 되는 것이 퍼실리테이터라고 생각한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주식회사 사진방 대표 최영교 사진 제공

Q. 어떻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사진방과는 어떻게 매칭이 됐나요?

A. 대학 시절 미술학을 전공했지만, 현실에서는 PD와 기자로 활동을 오래 했어요. 물론 다큐영화제에 짧은 단편을 내기도 하고 갤러리에서 상영한 적도 있지만, 예술과는 거의 동떨어진 삶을 살았거든요. 단순하게는 다시 예술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어요. 하지만 여러 사업이 있음에도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취지에 크게 공감했기 때문이에요. 예술인의 자립을 위한 도구를 마련한다든가, 예술인과 사회에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기업이 기존의 방식으로 풀지 못했던 사고방식을 예술인의 사고를 통해 풀고, 가치를 창출하고 예술인은 그 과정에서 사회와 기업과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만들어간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사진방은 마을마다 있던 사진관의 기능을 확장해서 전반적인 사진촬영 업무도 하고 사진을 중심으로 전시회, 강좌, 여행, 체험, 주민활동을 하는 곳이에요. 커뮤니티 아트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제가 추구하던 바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서 신청하게 됐죠.

Q. 실제 사업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A. 예술에 대해 제 스스로 내리던 정의가 많이 바뀌게 됐어요. 과거의 저는 다큐멘터리를 만들던 시사교양 PD였어서 사실을 다루는 일을 주로 하다 보니 제 영역에서는 콕 집어 예술이라 말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내가 해왔던 작업들도 예술의 한 부분이었구나 깨달았죠.

그리고 예술인들이 각자의 장르를 나누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본인 장르가 확장될 수 있는 지점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시각예술 쪽 분들의 작업을 보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이런 미적 장치가 들어가면 너무 아름다운 영상이 나오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음악하시는 예술인 분이 전자음악을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운영하는 정신장애인 예술창작단 안티카에서 전자음악을 사용하면 우리의 특별함을 더 보여줄 수 있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들도 얻었고요.

Q. 실제 퍼실리테이터를 경험해보시니 어떠셨나요?

A.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퍼실리테이터 역할과 부합하는 지점이 많았어요. 방송은 모든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을 조정해 나가는 일이거든요. PD는 정말 많은 협력자들과 공동작업을 하고 이야기를 듣는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반면에 제가 원리원칙을 좀 따지는 성향이라 사진방 대표님이나 참여예술인 분들이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 사업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더 원리원칙을 지키려고 꼼꼼하게 챙기기도 했어요. 그런 면에서 너무 빡빡하다는 느낌이 드셨는지 힘들어 하기도 하셨죠.

Q. 처음이라 시행착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나가셨는지요?

A. 사진방이 특이한 이유는 대표님도 예술인라는 점이에요. 사진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기업조차도 체계나 시스템 적인 부분에 익숙하지 않았죠. 하지만 퍼실리테이터로서는 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리하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매 회의, 가능한 매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겪어보지 않은 낯섦이기도 하고 점검 받는 듯한 느낌이 드셨는지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풀어나갔어요. 그러면서 차츰 나아졌던 것 같아요.

Q.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기 위해 따로 준비하신 것들이 있나요?

A. 사실 어떤 공부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초반에 지역 퍼실리테이터 분들을 만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타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많은 예술인이 은평구로 모여들면서 퍼실리테이터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네트워킹도 하면 좋으니까 저희끼리 모임을 가지면서 예전에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뭐가 가장 힘든 사례였는지, 예술인들이 우리에게서 얻어갈 게 뭔지 기업이 우리에게 얻어갈 것은 또 무엇이며 어떤 형태가 가장 좋을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나누기도 하고 그랬죠. 퍼실리테이터 경험이 여러 번 있으신 분들이 많고 종사하는 예술 장르도 다양해서 도움되는 팁을 많이 얻었어요.

Q. 선배 퍼실리테이터의 조언과 실전 경험을 통해서 '퍼실리테이터란 어때야 한다'고 느낀 점이 있다면요?

A. 객관성을 잃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님이 쓰신 지남철이라는 표현처럼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모두를 위한 객관적인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사업이 올바르게 꾸려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같이 밥도 안 먹고 일부러 거리를 두기도 했어요. 나중에는 수시로 만나게 되고 함께 작업을 하게 되니까 서로 미운 정도 들고 해서인지 자연스레 가까워지게 됐지만요.

퍼실리테이터는 조금 외롭더라도 누구의 편이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재단과 기업, 예술인 모두와 연결이 돼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이에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죠. 제 경우에는 그런 이유로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 관계들이 형성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 진행과정에서 각자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신 것 같기도 해요. 친해졌다면 말하지 못했을 것들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이런 협업 사업에서 중요한 문제잖아요.

Q. 퍼실리테이터로 첫 경험이지만, 최대한의 시너지를 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올해 사업으로 목표하던 바를 어느 정도까지 이뤘다고 생각하시나요?

A. 사진방 대표님과 커뮤니티 아트에 중점을 두고 기대하는 바를 정리했었어요. 우선 지역에 사는 예술인이 기존 작업을 넘어서 커뮤니티 아트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죠. 사회와 소통해야 하는 예술인이기도 하니까 기존 예술의 창작을 넘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향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고요. 워낙 예술인이 많이 모이게 된 지역이기도 하니까 은평구 내에서 예술인 네트워크를 조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꽤 많이 성취된 것 같아요. '예술인도 주민이다'라는 프로젝트가 대표적이에요. 작년에 은평문화재단이 런칭됐지만, 주민 생활예술 위주로만 운영되고 거기에서 예술인은 배제가 됐어요. 예술인들이 '은평구에서 뭘 해야 하지?' 하게 된 거죠. 예술인도 주민이니까 주민 속에서 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찾자는 생각에서 네트워킹 모임을 해보자 하고 8월 8일 8시에 파티를 열었고, 그때 시작이 된 네트워킹으로 이런저런 포스팅을 내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올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질 것 같아요. 지역에 뿌리내리고 발전하기를 원하는 예술인이 많은 까닭인지 한 번 모이니까 물꼬가 트였거든요. 미술하는 작가들은 내년에 같이 뭐 해보자는 논의를 하고, 저도 연극하는 사람들과 뭔가를 제작하려고 해요. 자연스러운 한 번의 만남으로 벌써 많은 것들이 파생되기 시작했어요.

그 외에도 일상을 예술로 기록하는 다양한 개별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강선영 예술인이 진행한 '21세기 포크 싱어송 라이터'는 전문적인 예술의 형태를 파고드는, 그들의 일상을 관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김다인 예술인이 진행했던 '모먼트'는 일상을 예술적 언어로 캐치해내는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요.

한 가지 이번 협업에서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게 사진방 대표님이 은평구 예술인으로서 은평구의 예술인을 촬영하는 작업을 함께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끝나도 작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업에서도 얻는 부분이 생겼다는 점, 저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Q. 퍼실리테이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되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A. 우선 기업에서 좀 더 이 사업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고, 간담회 하듯 지역 예술인과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지역 중심 사업이 생겨나는 계기가 마련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결과에 대한 아카이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작 참여자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까워요. 사회에서 예술인이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켜내야 하고, 공유돼야 하는 데이터라고 생각해요. 사업을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다음 해 참여자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하고요.

Q. 끝으로 퍼실리테이터에 처음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이나 당부를 전한다면요?

A. 저처럼 처음부터 너무 경직된 상태로 사업에 임하지는 않았으면 해요. 저는 잘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스스로를 혹사시킨 면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금방 지치게 되거든요? 내가 지치면 모두가 알게 되고 같이 힘이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과도하게 노력하느라 힘 빼지 마시고 함께 고민하고 나누길 권해요. 필요할 때는 같이 협업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걸 꺼려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남철처럼 끊임없이 흔들리며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부러지지 않기 위해 흔들릴 줄 알기

협동조합이웃 조송주 퍼실리테이터

세 해를 거듭 도전한 끝에 퍼실리테이터로 선정된 협동조합 이웃의 조송주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취지가 마음에 들어 꼭 참여하고 싶었다는 그는 활동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고 전했다. 그가 보고 느낀 첫 퍼실리테이터로서의 경험담을 함께 들어보자.

Q.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고자 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우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취지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업과 예술인이 협업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죠. 또한 아직은 미흡하지만 이런 활동으로 예술인들의 주업인 창작활동 외에도 다양한 면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계기가 만들어지고 확장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퍼실리테이터를 처음 지원하면서 가졌던 포부나 다짐 같은 것이 있었나요?

A. 맡은 역할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끌어내자는 것이 최우선적인 포부였죠. 그리고 저도 그렇고 기관에 매칭된 예술인들이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었으면 했어요. 사업이 끝난 뒤에 기관 측과 서로 포옹하면서 짧았던 만남의 아쉬움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지면 좋겠다고도 생각했죠.

▲ 도마파티 홍보 전단

Q. 이 일을 시작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퍼실리테이터에 관해 갖고 있던 생각들 중 달라진 점이 있나요?

A. 처음의 마음가짐은 단어적 해석에 준한 '촉진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어느 정도 기획자 측면에서의 리더십 또한 필요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과정마다 성실한 기록을 통해 만약에 있을 기업과 예술인 간의 오해를 줄이는 사실적 근거를 마련, 중재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었죠.

하지만 막상 예술인들이 매칭되고 보니 저런 생각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향후 활동의 기본이 되는 정기 모임 일정 등을 누구에게도 무리 없이 결정하는 것과 같은 원활한 소통의 시작이 더 시급한 문제더군요. 다행히 저희는 첫 단추가 잘 끼워져 다른 일들도 서서히 잘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을 잡는 일이 무척 단순해 보이지만 퍼실리테이터로서 이런 소소한 일에서부터 첫 단추를 정말 잘 끼워야 한다는 점을 두 번, 세 번 강조하고 싶네요.

Q.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첫 경험을 무사히 마치셨는데요. 경험하고 보니 퍼실리테이터란 어떤 일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A. 저는 퍼실리테이터를 '바람에 흔들릴 줄 아는 갈대'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업 측의 니즈가 강하면 예술인들의 자존감이 흔들리고, 개별 예술인들의 자율성이 강해지면 자칫 사업이 흔들리게 되는 경험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는 경우에 따라 이리 저리 흔들릴 줄 알면서도 결코 부러지지 않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의 이야기도 치우침 없이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Q. 처음인 만큼 바람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협업을 진행하면서 겪은 시행착오라든가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A. 질문을 듣고 보니 사업 초기, 평소에 하던 기획자의 마인드로 접근했던 것이 가장 큰 시행착오였던 것 같아요. 어떠한 사안을 중재자의 역할보다는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의지가 기업과 예술인들 사이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인지한 이후 '경청의 미학'을 발현하며 재접근함으로써 이러한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었죠.

서로가 어긋나지 않도록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통의 어려움은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예술인의 역할과 활동 범주를 기업이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예술인을 '특별한 기능을 가진 노동자'라는 식으로 인식하게 되면 관계가 계속 어긋나게 되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기업 포스터와 로고를 디자인하면서 기업 측에서는 '전문가 아니냐, 말만하면 뚝딱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고, 참여예술인은 '우리가 무슨 기능공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술인으로서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양쪽이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퍼실리테이터로서 양측을 오가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기업에겐 결과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참여예술인에게는 과정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사실을 서로 조금씩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오해를 풀어나갔어요. 오해를 풀면 이해가 생기는 법! 저는 이번에 그걸 제대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Q. 성공적인 결과물 도출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고 그 노력이 결과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에피소드 하나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A. 협동조합이웃에서는 기업 홍보와 더불어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기를 원했습니다. 와글와글목공소 내에 사무실이 함께 있는 곳이어서 처음에는 목공소를 활성화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목공방을 탐방하고 비교분석해 '와글와글목공소'만의 이미지를 만들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업 담당자와 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제 와글와글목공소는 협동조합 이웃 속의 일부일 뿐이라는 기업 입장을 접하게 됐고 그래서 다른 방향을 준비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때 분석 자료가 아주 쓸모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걸 활용해서 *'그냥 도마(Honest cutting board)' 프로젝트가 탄생할 수 있었고, 협업 프로젝트 실행 당시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냥 도마〉는 모양으로 멋부리지 않고 두께가 두툼한 정직한 도마를 의미합니다.

Q. 기업 대표와 예술인 간의 만남도 자주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겪어보니,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저희 측 기업 대표님은 예술인 회의에 거의 매번 참석하셨어요. 처음에는 예술인들이 조금은 부담스러워 할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만남의 기회가 잦아지자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그만큼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그 결과 상호 흡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는 작은 기업일 때 가능한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어떤 사안이 결정될 때 기업 대표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회의 참여는 더욱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회의도 자주 참석하고 함께 밥도 먹으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자주 만드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Q. 퍼실리테이터 활동을 마치면서 지난 8개월간의 활동을 정리해본다면요?

A. 다양한 활동 중에서 도마파티를 통해 기업도 예술인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로서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깊이 느꼈습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설명글 아래 담긴 의미를 체감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같은 하늘 아래 사는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로 끈끈하게 묶인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퍼실리테이터라는 역할을 하면서 내가 지닌 온갖 고뇌와 결함에도 불구하고 편견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사회로 확장,적용해 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또 한편으로는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우선 퍼실리테이터를 지원하시려는 분께, 조금이나마 경험한 선배로서 조언을 해드리자면 인내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이왕 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임한다면 좋은 성과와 더불어 귀한 경험이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면의 숨겨진 예술인으로서의 나를 되찾은 시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시작되던 해부터 꾸준히 참여한 지인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이 하나씩 끝날 때마다 잠수를 타곤 했는데 그런 그녀를 그래도 매 년, 꾸준히 사회와 연결지어주고 있는 것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었다. 적어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녀와 연락이 닿았고 그녀의 생존을 명료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참여하지는 않았어도 이 사업에 관심과 알 수 없는 묘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매년 그녀는 나에게도 이 사업을 권했지만 그때마다 사정이 생겨 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러다 2018년, 드디어 나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참여예술인이 되었다.

글_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박선영** 참여예술인

2018년 5월 XX일 오리엔테이션 장에서 묘한 연대감을 느끼다

많은 이들이 예술인들을 '(좋게 말해)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들이다. (그러므로) 시간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 (그러하기에)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들 말을 한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들로 인해 '예술인' 라는 직업이 받는 오해와 모독이 싫다. 그들이 말하는 그러한 이유들로 예술인이 정의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예술인'이라는 직업 역시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바탕엔 신뢰와 성실이 바탕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성실하지 않고', '신뢰를 저버리는' 예술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한다.

하지만 나 역시 예술인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여긴 적이 적지 않음을 떠올려본다. 그런 나의 편견의 한 조각을 깨트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첫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첫 오리엔테이션 날이었다. 꽤 많은 예술인들이 이르다면 이르다고 할 수 있는 시간에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 모인 것을 보고 나는 감동과 뿌듯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들었다.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자유로운 영혼들 역시 사회와 타협하며 이렇게들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묘한 연대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음악만으로 온전히 삶을 책임지지 못해 내가 이 사업에 지원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생각을 하며 위축된 마음으로 앉아있던 나에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예술인들은 그 자체만으로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 우리 서로 지지하자'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 무언의 지지가 첫 참여자인 내게는 눈물이 찔끔 날 정도의 큰 위로가 됐고 나의 첫 시작에 큰 힘이 돼주었다.

2018년 5월 XX일 '예술' 그 자체를 사색할 수 있는 기회

나는 첫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구로문화재단'에서 시작했다. 구로문화재단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기관이 원하는 프로젝트나 제안하는 프로젝트가 아닌 예술인들의 자율성에 기반한 프로젝트를 제안한 기관의 기획의도가 좋아 구로문화재단을 선택하게 됐다. 나는 그간 아이 셋을 키워내느라 작업이라기보다 생계를 위한 일로써 음악 활동을 해왔다. 가족을 위한 생계 활동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지만 창작자로서 오롯이 창작을 위한, 작업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나면 남는 시간이라곤 존재하지 않았다. 물리적인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니 나는 그동안 작업다운 작업을 제대로 못 하고 해놓았던 것들로 겨우 버티며 활동하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나에겐 그 무엇보다 예술 작업을 위한 사색할 시간이 확보돼야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시간. 비어져 있는 시간, 그래서 채울 수 있는 시간. 그 시간들이 존재해야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이 엮어지고 짜여져 '무언가'가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시간이 절실했던 나에게 이 사업은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생계밀착형 예술 활동과는 별개로 '예술'이라는 주제를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그 시간을 통해 내 일상과는 조금 떨어진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작업을 이뤄내는 것. 내 삶에만 집중된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예술인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 그 협업의 시간들을 통해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나에겐 복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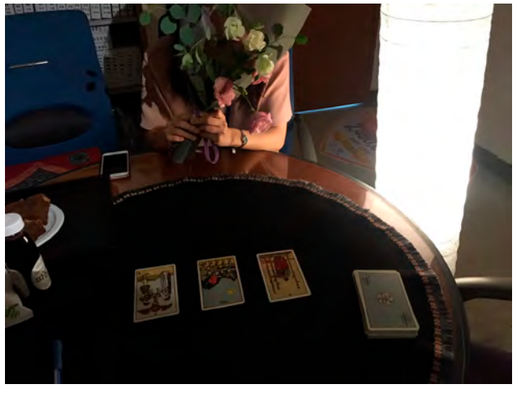
2018년 5월 XX일 내가 생각하던 예술의 기능을 선사하고 싶었던 마음

나는 예술의 기능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음악의 기능 혹은 쓰임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곤 한다. 모든 것들이 기능, 혹은 쓰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사고방식이 그러했다. 모든 것엔 존재의 이유가 있어야 했고, 모든 행위엔 당위성이 있어야 납득이 됐다. 그래서 예술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방황하고 힘들어했던 것 같다.

내가 취한 예술의 형태가 내가 이 세상에 말하고 싶은 바를 잘 전달하는 도구인지, 그 안에서 나는 무얼 말하고 싶은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했다. 전공이었던 연극비평은 뒷전으로 미루고 연기도 했다가 무용도 했다가 그림도 그려봤다가 결국 다시 전공으로 돌아왔지만 그 무엇도 내 것이 아닌 기분이었다. 모든 행위에서 즐거움은 얻었지만 말하고 싶은 바가 없었다. 그렇다고 잘한다는 느낌도 없어 딱히 내세울 수도 없었다.

예술의 언저리를 맴돈 것만 같은 대학시절이 끝나갈 무렵 나는 어쩌다 음악을 시작하게 됐다. 재능이 있었던 것도,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길을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거기에 내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떨어져있었고 그걸 정말 우연찮게 주은 것처럼 음악을 만나게 됐다. 말로 하거나 글로 쓰기에는 구차하고 몸으로 표현하기엔 창피한 그런 이야기가 그 시절 나에겐 가득 차 있었고 그 이야기는 어쩌다 음악이 되어 불리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음악에 내 이야기를 담는 삶을 살게 됐고, 어쩌다보니 10년이 흘러있었다.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예술을 통해 내가 얻고 싶어 하거나 주려고 했던 것들은 '일상에서 마주하게 된 짧은 순간에 의도치 않은 쉼을 맞게 되는 것', '잠시의 내어줌을 통해 얻게 되는 환기'였던 것 같다. 현실과는 다른 결로 흐르는 예술의 공기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 그를 통해 얻어지는 환기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충전하는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예술이었기에 나는 나의 음악이, 나의 공연들이 그러하기를 바라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사업에서 '그 누군가의 환기'가 되어줄 '그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예술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나에게도 환기가 되는 것이어야 했기에 지금 내 일인 음악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음악만 아니면 된다는 마음으로 나는 평소 관심을 두고 배워둔 것들, 나의 환기를 위해 해왔던 행위들을 떠올렸다. 나는 익숙한 것을 낯선 장소에서 만나는 것 혹은 익숙한 장소에서 낯선 것을 만났을 때의 의외성을 통해 얻어지는 '환기'를 만들고 싶었고, 그 과정을 통해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만들어내고자 선사하고 했다.



2018년 7월 XX일 타로카드, 손바느질 그리고 요리

나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구로상담소'라는 이름으로 '타로카드 상담소'를 구로문화재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타로카드와 예술작업의 접점에 대한 의문을 품기도 전에 타로에 대한 흥미가 앞섰는지 반응이 좋았다. 나는 사전신청을 한 여섯명의 직원들을 주 1회, 하루에 두 명을 3주에 걸쳐 만났다.

나는 나에게 익숙한 도구로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그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공간에서 익숙하지 않은 것을 만나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그들의 일터 한 구석을 은밀하게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래도 근무 시간 중에 외도라면 외도와도 같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자신들의 이야기를 잘 꺼낼 수 있을까 염려했던 건 나의 기우였다.

그들은 나와 타로카드를 만나자마자 망설임도 없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내놓았고 그 이야기의 깊이는 생각보다 깊었다. 나는 그 마음에 응답하려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질문을 받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타로카드를 해석해주었다. 짧지만 굵은, 은밀하고 진한 시간들이었다.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나에게 낯선 이가 아니었고 그들에게 나 역시 그러했다. '예술'이라는 이름 안에서라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웠고 그 무엇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예술의 마법이었다.

원래의 계획은 구로상담소를 통해 수집한 이야기들을 엮어 소책자를 만들려고 했지만 내가 듣고 나눴던 이야기들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공통의 화두를 가진 소재들이었기에 다채로운 이야기로 풀어내기엔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 선택한 방식이 '손바느질'이었다. 타로카드와 손바느질, 기록과 손바느질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연관성밖에는 없었지만 여기에서는 그동안 생계를 염려하느라 시도해보지 않은 '작업'으로 풀어내고 싶었다. 그것이 이 사업이 내게 주는 복지이자 이 사업 취지라고 내 마음대로 정의내렸기 때문이다. 나는 손바느질로 천과 천을 엮어내는 작업을 하며 내가 보내온 시간과 들은 이야기들을 엮어내는 시간을 보냈다. 그 시간이 담겨져 만들어진 가방은 구로문화재단 사람들에게 선물했고 그렇게 엮어진 이야기와 시간들은 '요리'가 되어 최종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2018년 7월 XX일 평소 느껴보지 않은 예술을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이야

각각의 방식으로 구로를 담아내고 표현하고 읽어내고 경험한 참여예술인들은 그동안 해온 작업들을 모아 '구로오늘식당'이라는 이름으로 결과 공유회를 열기로 했다. 구로문화재단 대표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 직원을 초대해 퍼포먼스 형태의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를 갖기로 한 것이다. 각자의 결이 분명했기에 어떤 협업이 이루어질까, 잘 맞을까, 같은 방향을 흘러갈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그러나 각자의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하나의 자리에 머물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덩어리로 존재했다.

나는 메인 셰프가 되어 타로카드의 요소들을 메뉴로 표현했다. 사람들은 입장할 때 네 가지 인물카드로만 구성된 타로카드를 뽑았고, 그 카드의 인물이 오늘의 운명이자 자신이 받게 될 요리의 재료를 결정지었다. 엄연히 직급이 존재하는 직장 내에서 직급이 바뀌는 경험을 잠시나마 가져보는 것, 전적으로 운에 의해 직급이 결정되는 경험을 하는 것, 그래서 불편해지는 공간과 시간들을 만들어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온전히 식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예기치 못한 상황과 소리들, 때론 지시를 따라야하는 상황 속에서 긴장된 식사를 하는 경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낯섦의 찰나를 제공하고 싶었다. 그렇게 나는 이 사업을 통해 내가 바라던 '예술을 통한 환기'로 기관을, 사람들을 만나고자 했다.

사실 6개월의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깊이 있게 기관을 알고 깊숙이 이해 할 수 있겠는가. 예술의 기능과 역할을 얼마나 크게 발견하고 이뤄낼 수 있겠는가. 다만 미비하더라도 평소 불어오지 않은 바람이 분 것만으로, 평소 느껴보지 않은 공기를 느껴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낯설게 불어온 바람이, 공기의 흐름이 변화의 시작임을 나는 안다. 그것이 예술의 힘이라는 것도.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는 시간들이었다.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나를 잊고 싶어 하고, 잊으려 하면서 까지도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삶을 만나고 느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쩌면 있는 것과 잊는 것, 잊는 것과 있는 것. 이 둘을 어쩌면 같을 말일지도 모른다고 조용히 되뇌어본다.

2018년 10월 XX일, 나의 첫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마치며

많은 두려움 속에서 시작된 나의 첫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처음에는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일상과 사업이 그리고 작업이 무탈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잘 어울려 묻어내질 수 있을까 등의 여러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도해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일상 속의 일탈이었고, 그 시간들이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일상이 되어 있었으니까. 무엇보다 나를 조금 더 나답게 해주는 시간, 내 작업을 작업으로써 오롯이 바라보고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세 아이를 키우며 작업을 하고 일을 하는 나에게 월 10일, 30시간 이상은 생각보다 많이 벅찬 일정이었다. 적어도 일주일에 이틀은 품을 내야하니 예술인 사업에, 기존에 잡혀있던 일정들까지 소화해내고 나면 작업할 시간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이 사업을 통해 일 하나를 더 만들어내고 성취감까지 얻은 셈이었다.

구로문화재단을 방문하는 날들을 제외하고 다른 날에는 개인 작업을 해야 했고, 아카이빙하고 활동보고서 작성까지, 아이들을 재우고 밤을 지새우는 날 또한 많았다. 그래서 저녁엔 어김없이 육아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부모라는 예술인들에겐 결코 쉬운 복지차원의 일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도 솔직히 종종 했다. 하지만 알차게 2018년의 6개월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선 후회는 없다. 내 시간이 많이 할애됐고, 그래서 피로해진 건 사실이었지만 얻은 것도 무척 많았기 때문이다.

나에게도 새로운 환기가 일어난 시간이었다. 또한 다른 예술인들을 만나 그들의 작업을 보며 자극도 많이 받았고 아이디어와 영감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정기적으로 다른 예술인들을 만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았고, 서로의 작업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도 좋았다. 6개월 동안 평생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다 경험한 것 같다.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의욕에 넘쳤다가 사그라졌다가. 덕분에 조금 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다. 나는 아직도 예술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강한 욕망을 갖고 있었고, 부모이기 이전에 나로서 존재하고 싶은 마음이 그 무엇 못지않게 강렬했고, 예술이라는 도구로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 어떤 형태로든 내게 희열이 느껴지는 일이었구나 하고 새삼 생각한다. 이 사업 하나로 나는 내면 깊이 숨겨져 있던 예술인로서의 나를 재발견했다고 감히 적어본다.

이태원에 움튼 지속가능성이라는 새싹

U.P.P 이보영, 최윤석 참여예술인

이태원 한 편의 외진 언덕을 오르면 나오는 도깨비 시장 골목. 그곳에 우주 평화를 꿈꾸는 동네의 작은 펍, UPP(Universe Peace Project)가 있다. 그저 힙한 분위기의 피자집일 거로 생각하면 오산. 사회공헌과 기부를 모토로 보육원 피자 배달도 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고민하는 따뜻한 공간이다. 그곳에 아이디어와 실행력으로 똘똘 뭉친 예술인들이 나타났다. 이보영, 최윤석 예술인이 그 주인공이다. 기업이 고민해온 이슈와 니즈를 예술적 교류로 풀어나가고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한 UPP와 함께 지속가능한 큰 그림을 그려나간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자.

Q. 두 분은 어떤 분야의 작업을 해오셨나요? 어떻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최 저는 퍼포먼스, 사운드, 설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타 기관에서 주최하는 영세업자와 미술 작가를 매칭해 협업하는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인 환경 아래 좋은 협업의 시너지를 끌어내보고 싶어 참여하게 됐어요. UPP는 제가 원래 피자를 무척 좋아하고 나름 조예도 깊어서 여기가 딱이다 싶었죠. 하하(웃음).

이 주변에 참여 경험이 있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됐어요. 어느 순간 저도 벌이가 필요하다 보니 내 작품을 그리는 일보다 가르치는 종류의 일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 6개월간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수입이 생기니까, 협업으로 새로운 경험도 하면서 제 작업도 좀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었죠. UPP는 제가 사는 동네에 있기도 하고 전에 전시를 같이 한 경험도 있어서 신청했는데 다행히 매칭이 됐어요.

Q. 이 사업에 처음 참여하셨잖아요. 참여하기 전에 이 사업에 기대했던 바가 있었나요?

이 저는 주 전공이 페인팅이다보니까 다른 예술인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보통 개인 작업을 하니까요. '다른 분야의 예술인들을 만나서 기획하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내 보는' 이런 일 자체가 처음이어서 설렘이 좀 있었죠.

그리고 같은 전공 분야에 있던 친구들이 하고 싶었던 미술을 못 하고 끝내 현실과 타협해서 다른 분야로 나간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점점 그 고민이 많아졌는데 기업과 협업하는 경험을 해보면, 추후에 다른 방향으로 시도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예술 영역을 좀 더 확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최 저는 처음 영세업자들과의 협업에서 느꼈던 아쉬움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경우 기관도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이 사업에 신청했을 테니까 서로 협업할 의지가 있는 두 주체가 만나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술의 범주 안에서 다양한 걸 경험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어서 타 장르의 예술인들이 협업하는 이 사업 자체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다만 어떤 기관, 어떤 예술인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동안 혼자 해왔던 작업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점까지도 염두에 두고 시작했죠.

Q. 실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경험해보니 어땠나요?

이 제가 기대했던 부분은 많이 충족된 것 같아요. 영화감독님과 제가 언제 어디에서 만나 얘기해보고 그러겠어요. 그 외에는 나도 몰랐던 또다른 내 모습을 발견했다는 점을 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협업 과정에서 '어,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았어?' 하는 숨겨진 면모를 알았달까. 상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부탁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지인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부탁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제 스스로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협업의 좋은 기억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제가 운이 좋아서인지 참여예술인들 간 합도 정말 좋았죠. UPP에서도 저희와의 협업에 우호적이었고 저희가 드리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주셨어요. 체계적인 상황 안에 있어서인지 수월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점도 좋았고요. 퍼실리테이터분도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 그랬는지 발생 가능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노련하게 대처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다만 정량화 할 수 없는 작업의 시간들까지 고려하면 활동비가 생각보다 좀 적다 싶어요.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정말 한 달에 30시간만 일하는 예술인이 있을까요? 실제로 그러기 힘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활동비 면에서 좀 아쉽긴 했어요.

Q. 기업의 고민과 니즈를 예술인의 협업으로 풀어내기 위해 회의를 하는 기간도 꽤 길었다고 들었어요. 10월 도깨비 잔치에 이르기까지, 작업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이 UPP에서는 이태원점과 북창동점 공간을 활용한 예술전시, 길가 쓰레기 문제, 옥상 길고양이 문제, 사회 공헌 활동 방식 등을 함께 고민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를 함께 고민했는데 그 과정이 조금 지난하게 진행됐어요.

다큐를 찍어볼까? 길고양이가 옥상에 못 올라가게 설치물을 제작해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문득 그런 행위들은 잠깐의 액션일 뿐이지 지속성 면에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럴 바에 뭔가 사람들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걸 기획해보자고 해서 방향을 바꾸게 됐죠.

최 그래서 다 엎고, 예술인도 UPP도 지속성을 갖고 장기적으로 확장해갈 수 있는 아이템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UPP는 일반 피자집, 펍으로서만 기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싶으셨는지 처음에 전시 형태의 작업을 제안해주셨는데 저희가 거부했어요. '전시장으로 기능하지 않는 곳에서의 전시는 인테리어 소품의 역할밖에 하지 못 한다', '작품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저희의 생각을 전달했더니 이해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자연스럽게 예술인의 입장이나 기관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보다 입체적으로 보려는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 결과 지역을 보게 됐죠. 당면한 이슈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UPP가 지역사회에서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확장해나갔어요. 환경 영화 상영, 비건 메뉴 개발, 테이블 세팅 도깨비 잔치가 그 결과물이에요.

Q. 비건 피자와 도깨비 잔치는 이름만으로도 흥미로운데요. 어떤 프로젝트였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이 도깨비 잔치는 UPP가 있는 지역을 살펴보다가 나온 아이디어예요. UPP가 있는 곳이 우사단길이거든요? 예전에 기우제를 열었던 곳이라 우사단이라고 불려요. 거기에서 텁을 얻어서 길고양이며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벌어지는 상황을 우화적으로 풀어내보고자 도깨비 잔치를 하게 됐어요. 마침 시기적으로 할로윈과 맞물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더 친숙한 동양의 귀신을 차용해서 잔치를 벌여보자 한 거예요.

최 비건 메뉴도 비거니즘 아이디어를 듣고 사장님이 스스로 비건 피자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하셔서 시작됐어요. UPP가 워낙에 사회공헌, 환경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인지 비건 아이디어도 덥석 무시더라고요. 비건의 개념부터 함께 공부해나가면서 비건 피자 메뉴를 완성했어요. 저는 기업과 예술인 사이에 오고가는 대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협업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Q. 기업에서 협업에 우호적으로 임해주었다고 했는데, 특히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최 예술인들이 내는 아이디어를 끊어내지 않으시는 것만으로도 우호적이었다고 볼 수 있죠. 예술인이 무슨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자기들도 생각했던 거니까 다른 거 하라고 하는 기업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예술인과 사장님의 아이디어가 한데 덧대지면서 프로젝트 방향이 정해졌어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합이 좋았어요.

이 프로젝트의 방향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UPP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어요. 서로의 생각을 배제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장님이 제안해주시기도 했죠. UPP에서 손님들과 환경 영화를 함께 보기도 했는데 그때 영화는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작품이기도 해요.

기업의 니즈를 예술인에게 전달하고, 예술인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라고 교류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정말 많은 과정에서 기업과 예술인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나갔어요. 앞서 언급했던 비건 피자도 사장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해주셨는지 몰라요. 비거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비건 패션브랜드와 만남에도 참석하는 등 열의를 보여주셨죠. 이런 상호 교류가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Q. 타 장르와의 협업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최 솔직히 장르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은 크게 없었어요. 페인팅, 영상, 조각 등으로 세부 분야가 조금 다르긴 해도 시각예술 쪽 예술인이 4명이나 됐거든요. 오히려 각자의 경험이 좋게 작용했어요. 최성균 예술인은 공간설치, 연출에 경험이 풍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유지혜 예술인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툭 던지곤 했는데, 그게 오히려 이야기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주곤 했어요. 이보영 예술인은 제가 아이디어의 제2금융권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엄청난 양의 아이디어를 쏟아요. 다 흡수하기 힘들 정도였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협업을 이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건졌어요.

이 최윤석 예술인은 정리를 또 잘해주세요. 제가 막 쏟아내는 것들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주시기도 했고요. 제가 고민을 과하게 하는 편인데 중심을 잡고 딱 리드해주시니까 그게 또 좋더라고요. 저는 그저 다른 분의 생각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고 좋았어요. 하하(웃음).

Q. 처음 참여했는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남는 아쉬움은 없었나요?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결과보고서 등 여러 가지 첫 경험이 많았을 텐데요.

이 오리엔테이션의 경우에는 수박 겉핥기 같아서 아쉽더라고요. 저희 팀은 저작권 관련해서 애매한 부분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저작권협회에 찾아가기도 했어요.

최 사실 저작권이나 성폭력 관련 교육은 다른 지원사업에 참여해도 듣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에서 지켜야 할 수칙 같은 걸 알려주는 강의는 몰라도 다른 강의는 구색 맞추기로 보이는데 참여해야 활동일수를 인정해준다고 하는 부분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도 이해는 하지만요.

이 보고서는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어요. 실제 저는 야간작업을 많이 하는데 있는 그대로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술 작업의 특성상 매일 고른 시간으로 나눠서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바꿔 써야 하니까 본의 아니게, 원치도 않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정말 아쉬워요.

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부분이라 공정성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이해를 하면서도 포맷이 좀 더 섬세할 수는 없을까 생각하게 되죠. 예술인과 일반인이 하는 일은 특성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회에 적용되는 걸 그대로 가져올 게 아니라 예술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직업적 특성이 다르니까 접근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Q. 끝으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예술인에게 유경험자가 된 지금,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세요?

최 아무래도 많은 예술인이 그렇겠지만 처음에는 얼마간 고정적 수입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 사업의 큰 메리트로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실제 활동량을 고려하면 활동비가 적다는 생각이 자연히 들어요. 현실이니까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없겠지만 이 사업이 예술인 본인에게 예술 영역도 확장할 수 있고 여러모로 좋은 경험이 된다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사업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6개월간 한 목적을 갖고 여러 예술인이 함께 과정을 만들어가는 경험은 흔치 않으니까요. 현실은 직시하되 이 사업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다른 부분을 발견하고 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재미있게 하세요. 현실도 현실인데, 단순히 지원금을 받는다는 차원에서만 이 사업을 생각하면 정말 재미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프로젝트를 해보는 일은 내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돼줄 거예요.

예술로 한 걸음 가까워진 우리 사이

주식회사 네오위즈 강대진,최경아 참여예술인

예술인은 예술을 특정 형태로 창작해 선보이는 존재다. 그리고 예술인이 창작한 예술작품을 관람하는 주소비층은 일반인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보통 사람과 예술인 사이는 그리 가깝지 않다. 그런 까닭에 올해 네오위즈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처음 참여한 최경아, 강대진 예술인은 일반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경험이라고, 자신들의 예술을 바라봐주는 그들에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기존과는 다른 경험을 기대하며 문을 두드리다

시각예술을 하는 최경아 예술인과 연극을 하는 강대진 예술인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한 목적도, 이 사업을 대하는 태도도 무척이나 닮아 있었다. 본인이 하는 장르 이외의 폭넓은 경험을 갈구했고 협업을 통한 새로운 시도를 희망했다. 나아가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예술이란 무엇일지 알고 싶어 했다.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술인으로서 보람도 느끼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점이 무척 신선했죠. 제가 가진 예술적 능력을 바탕으로 다른 장르 예술인과 작업하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니까요." 최경아

"저도 비슷해요. 다른 장르와의 협업도 물론 매력적이었죠. 무대 디자인이나 음악, 무용 쪽 분들과는 협업할 기회가 잦다고 해도 설치나 시각미술 쪽 예술인은 작업적인 면에서 연관성이 적다 보니까 만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일반 대중들과 체험형 예술을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강대진

쉽지 않지만 흥미로운 '알아가기'

새로운 장르의 낯선 예술인이 만나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예술을 일반인의 삶에 흩뿌리는 일은 흥미로웠고 스스로도 예술적 식견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며 두 사람은 입을 모았다.

"처음에는 한마디로 좌충우돌이었어요. 무용과 연극, 설치와 미술 각기 다른 분야이다 보니 서로 하는 얘기를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하게 생각을 나누고 표현하면서 흥미를 갖게 되고 다른 분야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똑똑해졌어요, 지금은." 강대진

"네오위즈 직원 분들을 위해 각 장르에 대한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플레이리스트' 프로그램을 먼저 했어요.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장르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저는 '미술 산책, 서촌편'을 제목으로 예술인들이 서촌에 놀러갔을 때 어디에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어디에서 산책을 하고 무슨 전시를 보는지 루트를 짜서 보여드렸어요. 연극 하시는 선생님들은 연극의 장르적인 구분부터 공연의 흐름과 전반적인 지식을 알려드리고 종사자들이기에 잘 아는 팁들, 가령 어떤 공연이 좋은 공연이고 어느 극장은 어느 자리가 좋은지 이런 깨알 정보들을 알려드렸죠." 최경아

예술을 네오위즈인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녹여보고 싶었던 참여예술인들의 프로젝트는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알려준 플레이리스트 서촌편 코스를 다녀왔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계절별 볼만한 공연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에서는 필기를 하거나, 다른 예술인과 직접 공연을 보러 간 사람도 있었다. 지나가는 말로 내뱉었던 소재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길 기다리는 사람들까지도 생겼다. 그들이 마음속에 지니고 있던 예술에 대한 관심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Neo Radio'
주식회사 네오위즈만의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

예술로의 진입, 문턱을 낮추다

"매번 오시는 여자 직원분이 세 분 계세요. 근데 저희가 정말 초반에 다른 분야의 예술인께서 '페미니즘을 주제로 책을 읽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고 말했던 걸 기억하시고 언제 하냐고 묻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엎으려고 했었는데, 예술로 풀어내는 페미니즘에 먼저 관심을 가져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진행하기도 했어요. 무척 만족해하셨다는 후문도 들리더라고요." 최경아

이후, 네오위즈 직원들과 함께 연극을 관람하고 뒤풀이 자리에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예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막연하게 추론하던 부분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대중은 예술에 더 관심이 없었고, 이에 더해 모르기 때문에 유명한 것만 찾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이 더 많은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술과의 거리를 좁혀주는 일은 참여예술인들에게 뿌듯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남았다.

"연기 워크숍도 했는데 시작할 때는 쑥스러워 하시지만, 막상 하면 재미있어 하세요.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서 처음에 움츠러드는 것뿐이거든요? 한 번 도전해보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삶을 사는데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술을 경험하는 데 진입 문턱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 같아 뿌듯합니다." 강대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목표도 그렇잖아요. 예술의 가치를 확산하는 거창한 목표까지는 이루기 어렵더라도 작게나마 예술을 가깝게 느끼고 예술로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계기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해요." 최경아

열린 마음으로 녹아들기

최경아, 강대진 예술인은 첫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다른 참여 예술인들과 함께 워라밸 P, S, A 시리즈를 기획해 네오위즈 직원들이 예술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들은 '보이는 라디오'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에게 다가갔다. 연극이라는 꾸밈의 큰 틀 안에 있지만, 보이는 라디오라는 대중에 익숙한 포맷으로 어색함을 없앤 것.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Playlist(플레이리스트)'로 저희가 먼저 접근을 시도했어요. 그런 다음 'Survey(설문)'와 'Opinion(오피니언)'으로 직원들 개인에 대해 좀 더 알아갔죠. 그리고 'Act(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유도했어요. 프로그램 자체는 강대진 예술인이 서울프린지페스티벌에서 선보였던 보이는 라디오 형태를 따와서 발전시켰죠." 최경아

전혀 다른 것에 도전해야 하는 어려움 또한 만만치 않았을 터. 그러나 참여예술인들은 각자 관심 있는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이야깃거리를 만들었고, 개개인이 잘하는 분야를 담당해 완벽한 호흡을 맞춰나갔다. 최경아 예술인은 미술 전공자이면서도 직접 아이디어를 낸 주제를 갖고 라디오 대본을 쓰기도 했다. 그녀는 '나'의 예술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술을 한다는 생각을 명확히 했던 것이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열린 마음으로 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 협업의 개념을 항시 염두에 둬야 해요. 또 다른 사회생활이거든요. 보통 예술인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힘들 수 있겠지만, 다른 분야의 예술인들, 기업 사람들과 함께하는 또다른 직장에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고 사회성을 기르는 법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최경아

"현실을 자각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열린 마음은 중요해요. 보통 예술인들끼리 어울리게 되잖아요. 그럼 이상적인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많이 나누게 되거든요. 그런데 평범한 직장인들과 지독히 현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생각을 알게 되니까 내가 가진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다른 예술인들을 보면서는 내가 모르는 분야가 이렇게 많구나, 역시 난 갈 길이 멀구나 하고 새삼 느꼈고요. 열린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아요." 강대진

복지가 아닌,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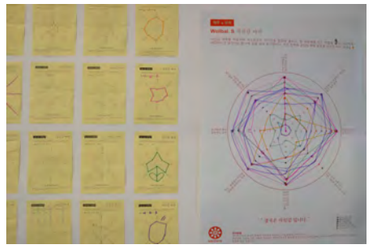
두 사람 모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기회'라고 이야기했다. 자신의 예술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타인과 공유해서 향상된 작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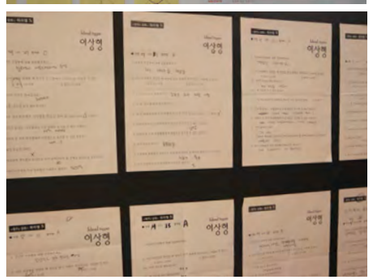
"간담회에 갔을 때, 복지라는 개념을 두고 엄청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복지의 개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술인으로서 다름을 접하고 내 예술을 다른 방식으로 발산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존 작업을 차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른 예술인을 통해 깎이고 바뀌어도 보면서 다듬어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여기서 알게 된 분과 별도의 협업도 했어요. 자기 예술의 영역 자체가 넓어질 수 있는 큰 수확이라고 생각해요." 강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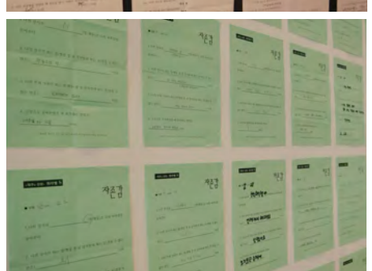
그러나 주어지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았다. 하나의 작업 또는 프로젝트를 완성하기까지 준비 단계부터 소요되는 모든 시간을 고려하면 6개월은 생각보다 많이 짧았다.

"피크를 향해 달려가다가 끝나버리는 느낌이에요. 1년 정도가 되면 좋겠어요. 보통 두세 달은 회의만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어떤 예술적 협업에서도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시간이 필요한 법인데 그러기에 6개월은 짧아요. 한 번 경험한 기업에 연달아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인 협업을 끌어내기에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최경아

짧은 기간의 아쉬움에도 새로운 기회를 만끽했다는 최경아, 강대진 예술인. 두 사람은 낯선 예술 장르와의 만남, 그리고 대중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예술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다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어떤 일을 하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싶다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시각으로 그 일을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두 사람처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주어진 기회를 마주한다면 많은 예술인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기대 이상의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처음을 돌아보며 다시 생각해보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가을비가 세차게 내리던 밤에 비좁은 지하 극장에 앉아 있다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해 쓰기로 한 글의 실마리가 떠올랐다. 사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연결이었다. 「예술인 복지법(일명 최고은법)」이 통과되고 나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족(2012년)했고, 이후 처음 시행한 것도 신인 예술인들을 겨냥 한 '창작 지원금사업'이었다. 이후 2014년 시작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숙의 기간을 거쳐 초기에는 학습공동체(CoP) 형태로 시작되었다. 미국 픽사의 경우는 예술과 결합한 교육 프로그램(Pixar University)을 통해 창조적인 조직 문화를 이끌어 낸 성공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이런 성공적인 사례들이 조금씩 우리나라에도 따뜻한 봄에 새싹이 모습을 드러내듯 살포시 얼굴을 내밀고 있다.

글_**성무량** 전문위원 (공연예술기획자 / 前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해외팀장)

"길을 걷다가 사업의 수혜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때 최고은씨 생각이 났습니다….(중략) 그 묘한 기분의 정체가 뭘까 여러 번 생각했는데 찾은 말 중 가장 적당한 말은 '쓸쓸함'이었습니다."
최근 본 신재훈 연출의 〈비극을 찾는 무대〉 팜플렛에 쓰여있는 글이다. 혜화동일번지 6기 동인을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그가 택한 주제는 동시대를 함께 지나 왔던 예술인들의 죽음이었다. 극 속에서는 촉망받던 그가 왜 죽음을 택하는 지에 대해 단정적으로 명시되길 거부하지만, 추레하고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돈에 대한 언급만으로 서브 텍스트는 충분해 보인다.

▼ 촬영 : 전진아_극단 작은방 제공 〈비극을 찾는 무대〉

예술인을 파견하다

2014년 등장한 이 사업은 이전의 지원 사업과는 달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웠다. 물론 처음 시행될 당시의 정치적인 맥락이나 함의 등을 뒤로하고 사업 자체를 접했을 때, 신선함은 컸다. '한국에서도 예술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줄을 세우고 점수를 매기고 평가하는 대신, 예술 자체의 가치 확산을 믿으며 기업에 예술인들을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참 멋지고 창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었다. 올해 처음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나는, 참가자를 뽑는 심사에서부터 긴장하고 흥분해서 둥그렇게 앉아있는 예술인들을 바로 쳐다보기가 조심스러웠다. 혹여 이 신성한 과정에 티끌이 묻을까 두려워하며 내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이후 어느 예술인은 그런 집단 면접이 모욕적이었다고 회상하기는 했지만, 이건 천명에 가까운 지원자를 뽑아야 하는 행정상의 문제다. 가능하다면 지원자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참가할 예술인들이 서로 팀을 이루게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이 사업으로 예술(가)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게 됐다는 것이다. 물론 나의 일방적인 짝사랑은 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산산조각 부서져 그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다. 활동 보고서를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 틈은 일파만파 퍼져나가 거대한 파고를 만들고야 말았다. 안타까웠다. 이후 인터넷 상에서 오고 간 서로에 대한 상처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돈을 받지 못한 일부 아티스트들은 재단과 사업에 독설을 쏟아 내었다.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나는 무기력하게 두려움에 떨었다. 이제 사업이 마무리 되고, 사례집에 쓸 글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뭐라고 써야 할 지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나처럼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예술인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마주쳐야 하는 것이 희망 혹은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직접 느껴보고 싶었고, 문제의 답은 늘 현장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기도 했다.

현장의 예술인들

처음 만난 이는 '토이 아트'라는 장르를 새로이 개척하고 있는 안광노였다. 남산 자락에 위치한 서울시 공간 '재미동'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인사를 하고 나자 익숙하게 컴퓨터를 켜고 사진각을 찾는 듯 했다. 이미 사업의 프레임이 익숙해져 버려서 사진과 기록부터 챙기게 된 것이다. 나는 의도적으로 어떤 기록도 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질문도 하지 않았다. 어차피 내가 찾고자 한 것은 사업이 현실에서 돌아가는 모습이었기에 내가 준비한 질문은 별 소용이 없었다. 그는 여러 정부 지원사업을 수년간 지원해 본 행정의 베테랑으로서 예술과 행정을 거침없이 가로지르고 있었다. 촘촘하게 짜인 미팅들 사이를 헤집고 예술의 노래를 직조하고 있는, 일종의 사이렌(Siren)처럼 느껴졌다.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행정의 경직성 앞에서 지칠 법도 한데, 다시금 힘을 내어 더 새롭고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듯 했다.

두번째 만난 아티스트는 대중음악을 하는 권영민이었다. 이른 아침 대학로에서 만난 그는 차분한 어조로 조곤조곤 인터뷰를 이어갔다. 이 사업에서 좋은 기운을 얻어 자신의 작업이 잘 풀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른 장르의 예술인들을 만나서 다양한 작업 방식을 봤고, 기업과도 좋은 궁합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지원금의 신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어 기쁘고 설렌다고도 했다. 이것이야말로 부가적인 효과인 셈이다. 사업 기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사례들을 대하고 보니, 한편으론 기쁘고 또 한편으론 혼란스러웠다.

그럼 사업의 성패는 아티스트 개인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인가? 아니면 기업과 예술인의 궁합인가? 혹은 참여 예술인들의 소통 정도에 기인하는가? 물론 이런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얽혀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주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무엇이 있어야 지원사업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이들이(기업과 예술인 모두) 협업 과정에서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혹은 무엇이 없어야 이런 에너지가 부패되지 않을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결국 글은 의도대로 진도를 못 내고 지지부진해져 버렸다.

예술의 도구적 가치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 보자. 예술의 가치는 고유한 예술성을 떠나서 부가적인 도구적 가치를 가질 때만 사회적으로 유의미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꼭 기업이라는 지향가치가 태생적으로 상반적인 곳에 가야만 그 가치 전파에 더 적합한가? 예술 혹은 예술인이 도구적인 가치로 이용된다는 것은 꼭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하는가? 질문들이 두서없이 떠올랐다. 왜 예술 본연의 가치가 부가적인 도구적 가치보다 우위를 가져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예술의 형식이나 예술인의 작업 방식에 따라서 전자와 후자는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한다. 그 둘 사이에 선을 긋고 다른 하나를 더 위에 둔다는 자체가 예술(가)의 존재 방식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억압이나 원하지 않는 방식이 사업을 위해, 혹은 어떤 권력관계에 의해 행해지지 않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쓰고 보니 무슨 페미니스트 매니페스토 같기도 한데, 사실 모든 약자에 대한 규정은 비슷한 모양새를 하기 마련이다. 그렇다. 예술(가)의 사회적 위치는 여전히 마이너리티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다. 지난 반 년간 지켜본 경험에 기반해서, 예술의 사회적 개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몇 가지 주요 지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태도와 접근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걸 느낄 수 있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처음에는 예술인들을 기업의 마케팅이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등에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 예술인들은 작업에 대한 의지가 위축되거나 자신들의 존재론적 가치에 실망하게 된다. 기업들이 유명 예술인들과 협업하는 방식이 거의 이런 방식이기에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다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이런 편향적인 방식에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전수환은 작년 세미나에서 이 사업이 초기의 교육 형태에서 파견으로 간 것이 아쉽다고 지적하고 있다[1]. 향후 사업의 일부로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파견과 투트랙으로 지속해도 좋을 듯 싶다. 그런 리서치나 교육 프로그램이 사업의 하부 구조를 이루며 양분을 제공할 때, 이번 사태 같은 행정상의 문제들도 어렵지 않게 극복 할 수 있다.

둘째, 참여예술인들과 기업이 협업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예술인의 작업 방식이 개인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사업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타자와 함께 풀어가고 협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은 시대의 문제를 온몸으로 제일 먼저 느끼고 반응해 왔다. 단지 그들이 반응하는 방식이 다양하고 다를 뿐이다. 수직적인 상명하복에 익숙한 기업 조직의 틀에서 보면 생경하고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도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 사실이다. 예술인의 다른 사유 방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제는 시대를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을 통한 혁신적 가치 창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제 세미나 자료집(2017).

그리고 또 하나는 어쩌면 더 근본적인 문제로, 우리 사회가 예술(가)의 가치를 믿는가에 대한 것과 연관돼 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해있는 자본의 논리는 예술에 대해서도 어김없이 통용되고 있다. 최고은의 죽음을 환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예술인은 가난하고 초라하다'고 가정한다. 아니면 고작 '권력의 시녀 노릇'이나 할 뿐이라고 본다. 그러니 이 사업의 애초 목표는 무모하기 짝이 없고,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 한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정부의 예술 지원은 행정력을 점점 강화해 'e 나라도움'이라는 신종무기까지 고안하기에 이르렀다.
어디에서 해결을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까? 한국 사회 전반이 신뢰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데, 유독 예술이 개입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할까? 하기야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예술을 통해서 이런 시도를 해보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물론 예술만이 해결책을 줄 수 있다는 예술 지상주의도 똑같이 위험하다. 자칫하다가는 예술 고유의 가치는 신성해 어떠한 도구적 가치도 불경하다고 여기는 이분법적 사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눈을 부비고 맑게 바라보자. 기업은 우리 사회의 도처에 널린 중요하고 거대한 구조이다. 예술인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딱딱한 기업 구조에 숨결을 불어넣고 거기에서 되돌아 나온 기운을 자신의 예술 작업으로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최근 뱅크시(Banksy)의 시위[2] 아닌 시위를 상기해보자. 예술(가)의 힘은 자본의 힘을 넘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회적 기제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예술인들이여 강림하라, 기업에.

참고 자료

*KEA European Affairs, 〈A&B 조직을 통한 창조, 혁신, 파열: Creating, innovating, disrupting through A&B organizations〉, (주)인트랜스 번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추진단(2015).

*Schiuma, Giovanni, 〈The Value of Arts for Business〉, Cambridge Univ. Press, Cambridge(2011)

2) 영국 출신 그라피티 아티스트 뱅크시는 최근 자신의 그림 '소녀와 풍선'이 영국 소더비 경매에서 104만 파운드(약 15억 원)에 낙찰되자마자 미리 설치해 둔 파쇄기로 산산조각 내버렸다. 작품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 최고가로 팔리는 순간에 펼쳐질 그의 저항적인 몸짓이 계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후 그의 작품에 대한 관심은 역설적으로 더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BRANCH 03.
꽃, 피우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지만 늘 처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 처음 위로 수많은 다음을 쌓아가면서 우리는 스스로의 세상을 꽃피워나갑니다.
2014년 처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시작된 이래, 거듭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쌓여가는 경험 속에 흐드러지게 퍼져나가는 싱그러운 꽃잎처럼,
가슴 뛰는 생명력을 지닌 푸른 잎사귀처럼 서로의 삶 속에 활짝 피어납니다.
끝없는 고민과 열정을 거름삼아 피워낸 꽃.
예술을 통해 이들이 피워낸 꽃이 세상에 어떤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는지 함께 만나봅니다.

076 Eyes On
1. 기업의 조직문화 속에 예술을 풀어내는 노력의 땀방울_케이티하이텔주식회사
2. 기업과 전통시장의 상생 프로젝트에 피어난 예술인의 향기_주식회사 현대백화점
3. 실버를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인천의 문화플랫폼_추억극장 미림

092 Interview
지역과 예술인의 연결고리가 되다_(사)강릉생명의숲국민운동 최제헌 퍼실리테이터

096 Debate
예술 가치 확장의 구심점에 선 사람들 '퍼실리테이터'
_권효진, 송지은, 신지연, 하원준 퍼실리테이터

106 Think Art
내 작업을 돌아보게 하는 신선한 자극_(주)질경이우리옷 박성율 예술인

110 Talk Talk
1. 내 예술이 가진 또다른 가능성_(주)남영비비안 김세미 예술인
2. 누군가의 꿈을 실현하는 나의 예술_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노은석 예술인

기업의 조직문화 속에 예술을 풀어내는 노력의 땀방울

기업문화는 기업 내에 존재하는 전통이나 관습을 의미한다.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기업 경영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측정할 때도 중요하게 인식된다. 기업이 클수록 쪼개진 사업부문이 많아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기업문화가 더욱 주요하게 논해진다. 케이티하이텔주식회사도 마찬가지다. 크게 세 개의 사업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 케이티하이텔주식회사는 세 개 사업부를 아우를 수 있는 기업문화 활동과 행복한 일터를 꾸리는 데 예술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고자 했고, 이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술인들이 파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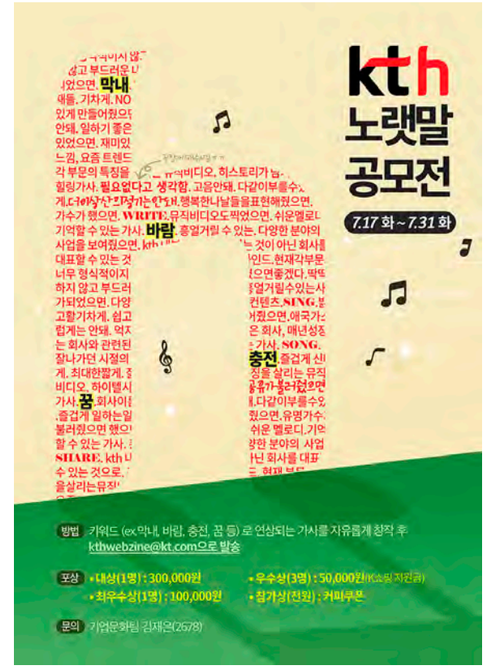
참여기업 케이티하이텔주식회사

퍼실리테이터 조하연(연극)

참여예술인 강주리(미술), 김수경(연극), 라정인(영화), 정혜숙(음악)

기업 소개

ICT 기술 기반의 콘텐츠 디지털 배급 사업과 T커머스 사업을 펼치고 있는 케이티하이텔주식회사. 1991년 PC통신서비스 '하이텔'을 시작으로 현재 네트워크 인프라 기반의 플랫폼 및 콘텐츠를 제공하며 업계 선두주자로 시장을 이끌고 있다. 세 개 사업 분야를 한데 묶을 수 있는 활동과 행복한 일터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예술인들과 함께 창의적인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멜로디를 타고 흐르는 기업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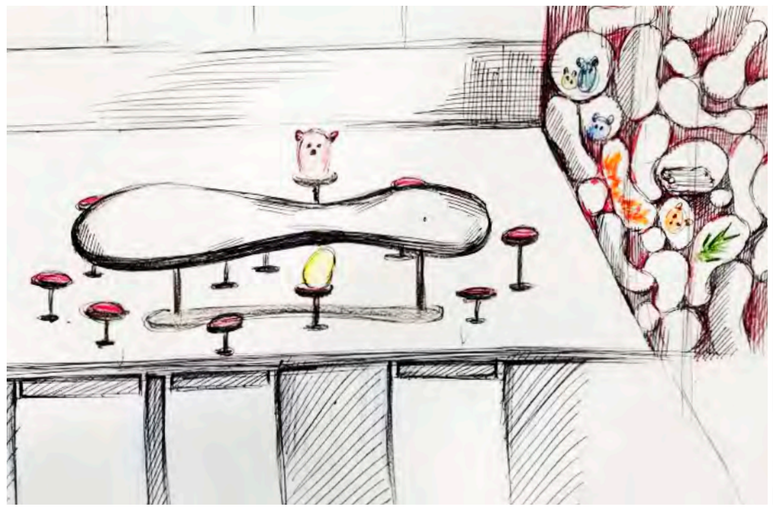
각기 다른 사업 분야에 속한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기업문화를 체득하기에 역시 노래만큼 좋은 방법은 없을 터. 케이티하이텔주식회사 역시 이런 면에서 사가를 제작하기를 바랐다. 음악 작업을 하는 정혜숙 예술인의 어깨가 아무래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예술인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그 과정에 참여하게 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사업의 취지가 임직원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고 활동을 유도해 회사 내에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이다. 참여예술인들도 모두 이 점에 동의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사가의 가사를 공모에 부치기로 하고 작곡에도 재능이 있는 직원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사가 장르도 직원들에게 설문을 받아 정하기로 하는 등 소소하게나마 최대한 예술적 경험을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사가 프로젝트를 끌어나갔다. 그렇게 소소한 우리 회사의 이야기들이 담긴 가사들이 모였고 장르 또한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가 장르가 정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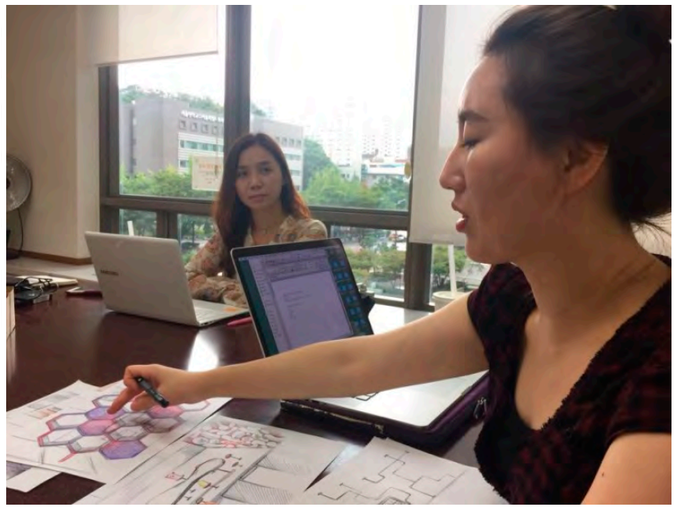
명확한 기업의 니즈와 예술인의 자율성 사이

케이티하이텔주식회사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니즈가 명확했다. 기업 담당자는 "예술인들과 함께 사가(社歌)를 만들고 회의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꾸려나가고 싶었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가능하다면 기업문화팀에서 진행하는 K장터와 추석에 있을 아이들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관해 예술인들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기업의 니즈가 지나치게 확고할 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기에 조하연 퍼실리테이터는 이 점을 우려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기업의 니즈가 확실하면 협업 방향을 수월하게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예술인들의 자율적인 창의력 발현은 어려워진다"면서 예술인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협업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음을 고백했다.

조하연 퍼실리테이터는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기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협업을 해낸다면 예술인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참여예술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했다.





환경을 바꾸면 회의 문화도 달라질 거라는 믿음

예술인들은 사가 만들기 이외에도 회의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함께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방법으로 회의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을까?' 예술인들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공유했다. 기업 측에서는 환경을 바꾸면 회의 문화도 바뀌지 않겠느냐며 회의실을 꾸미는 방향을 제시했고, 예술인들은 이에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회의실'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반영하기로 했다.

그 결과 '통유리로 된 오픈형 회의실이나 미니 회의실이 있으면 좋겠다', '밝은 분위기의 소품이 있으면 좋겠다', '이동 가능한 책상이 필요하다', '모니터 연결이 어렵다'는 등의 층별 회의실 꾸미기에 도움이 될 만한 소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예술인들은 미리 기획했던 각 층의 다양한 콘셉트(캐릭터 콘셉트, 추억을 돌아보는 콘셉트, 중우하고 럭셔리한 콘셉트 등)에 직원들의 의견을 더해 디자인을 완성해나갔다. 그리고 케이티하이텔주식회사의 인테리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와 함께 미팅을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회의실 꾸미기를 진행해 나갔다.

과정, 결과보다 중요한 두 글자

다만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를 다 완성해내기는 어려움이 있어 완벽한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사가는 정혜숙 예술인이 작업했던 곡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직원이 작곡한 곡으로 사가 녹음을 재진행하기로 했으며 회의실 인테리어 변경 역시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라 완성된 모습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기업의 니즈에 맞는 활동에만 협업이 치우쳐 있는 탓에 예술인들은 별도의 활동을 제안했고 그래서 사내 공감 세미나를 통해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업을 진행해보기로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여러 문제로 이 또한 진행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기업과 예술인들에게 5개월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결과보다 '과정'이라는 두 글자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기업은 사업의 본질적인 취지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최대한 예술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편하게 작업하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예술인들 역시 기업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자신의 장르가 아닌 영역에 과감히 도전하며 숨겨진 역량을 뽐냈다.

회의실 꾸미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강주리 예술인은 비타민처럼 톡톡 튀는 매력으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다. 기업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이해로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여주며 원활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김수경 예술인은 사가 만들기에서 보컬리스트로 활약했던 것처럼 프로젝트의 매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능력을 보여주며 성실하게 임했다. 라정인 예술인은 전공분야인 애니메이션 작업을 사업에 활용하지는 못했지만 기발한 발상으로 독특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기업문화팀에서는 기업 행사 때 활용하기도 했을 정도다. 정혜숙 예술인은 가장 주축이 된 프로젝트였던 사가 제작을 이끌었지만 결과적으로 저작권 등의 복잡한 문제로 작곡한 노래를 사용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긍정적으로 사업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남아 있는 협업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었다. 조하연 퍼실리테이터는 기업과 예술인 사이를 오가며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면서 기업의 니즈도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려 노력했다. 모든 관계자들이 서로에게 맞춰가려는 노력이 이 사업의 과정이 결과보다 더 의미 있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다.

기업과 예술인 사이의 이상적인 협업은 이번 케이티하이텔주식회사와 예술인들처럼 성과의 창출과 상관없이 상호 이해하려는 노력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들이 켜켜이 쌓이며 완성된다. 결과물을 냈는지, 못 냈는지의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탄탄히 다져가는 이해와 신뢰의 과정임을 기억할 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취지가 오롯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케이티하이텔주식회사와 참여예술인이 함께한 작업들

2017년

1 공감세미나 '하재성의 화술'

케이티하이텔주식회사 직원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인 〈공감세미나〉를 활용해 하재성 예술인이 '화술'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 말이 나오는 과정, 한국어 자모음의 정확한 발음, 말을 잘 못 하는 이유와 잘못된 화법의 예를 설명하고 사원 두 명이 제시된 예시를 직접 해보며 말하는 훈련을 했다.

2 직원들과 함께하는 팟캐스트

드라마 〈미생〉을 패러디해 KTH미생 팟캐스트 드라마도 선보이고, 매월 하나의 주제를 정해 사연도 받아 이야기를 나누고, 각종 사내 소식 관련 홍보도 하는 등 재미난 요소들로 팟캐스트를 진행했다.

1

2

기업과 전통시장의 상생 프로젝트에 피어난 예술인의 향기

사회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에서는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채로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현대백화점도 그중 하나로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좀 더 새롭고 의미 있는 결과를 창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016년과 2017년, 그리고 2018년 올해에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신청, 각양각색의 개성을 지닌 예술인들과 함께했다. 현대백화점에서는 워낙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 중인 터라 예술인들과의 협업도 매년 조금씩 다른 프로젝트로 진행되는데, 올해 이들이 꽃피울 주제는 '전통시장'이었다.

기업 소개

문화홀, 갤러리H, 슈퍼스테이지, 어린이책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공헌사업을 진행하며 사회적 책임과 문화선도를 위해 앞장서는 현대백화점. 바른 비전과 정도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가고 있으며 예술인과의 협업으로 사회공헌 활동에서 보다 새롭고 의미 있는 결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

전통시장 지원사업 프로젝트를 위한 아이디어 회의

화창한 5월의 첫날, 현대백화점과의 협업에 매칭이 완료된 예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한 다채로운 기대감을 안고 서로의 작업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향후 협업에 관한 준비를 시작했다.

신지선 퍼실리테이터와 기업 담당자의 사전 회의로 협업의 큰 주제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정해진 상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해온 현대백화점은 지난해에 이어 라이프 리사이클을 메인 프로젝트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시기적으로 예술인들의 협업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회사가 지원하고 있는 전통시장 프로젝트를 협업의 주제로 변경했던 것이다.

다만, 협업의 주제가 예술인들의 특성을 함께 반영해 선정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투자한 만큼의 결과물을 보여줘야 하는 기업의 구조적인 특성상 그들의 니즈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었기에 큰 주제가 사전에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기업은 비록 큰 틀은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예술인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그들만의 창의성을 발휘해주기를 바랐다.

이후 이어지는 회의를 통해 예술인들은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이 무엇일지를 심도 있게 고민했다. 좀 더 예술적이고 독창적인 작업을 많이 해왔던 조성배 작가와 김혜영(모리) 작가는 그에 어울리는 아이디어들을 이야기했고, 기업 중심의 실용적인 작업을 많이 경험했던 한지아 작가는 그 경험을 살린 기업에 특화된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했다.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성향에 따라 전혀 다른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다른 성향을 가진 작가들이 모였기에 오히려 너무 예술에만 치우치지도, 또한 너무 기업 위주로만 흐르지도 않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참여기업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퍼실리테이터 신지선(대중예술)

참여예술인 김혜영(연극),박민호(연극),조성배(미술),한지아(미술)

생각의 차이를 좁혀가며 준비에 돌입한 협업 프로젝트 '생색(Vivid)'

그러나 시작부터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협업 과정에서는 서로의 생각 차이에서 오는 오해를 이해로 바꿔나가는 단계가 있게 마련이다. 이것은 현대백화점과 참여예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다. 기업과 예술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서로의 작업 매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갈등은 소통으로 극복해 나가야만 하며 이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현대백화점과 참여예술인들은 각자의 입장 차이를 퍼실리테이터를 통해 교류하기도 하고 기업측 담당자와 만나 대화하는 자리도 만들었다. 그리고 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해 나갔다. 그 결과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가며 수유시장 생생클럽에서 전통시장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전시회는 색을 드러낸다는 의미인 '생색(Vivid)'라는 타이틀로 다섯 명의 작가가 전통시장 속에서 발견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담아내기로 했다.

전통시장의 색을 예술의 시선으로 담아내다

현대백화점에서는 지역과의 다양한 상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인근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그들만의 매력을 잃지 않고 백화점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해마다 시장 상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거나 해외 시장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으며 앞치마나 보냉백 등을 제작해 매년 전달했다. 올해는 앞치마와 친환경 에코백을 증정하는 물품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시라는 특별한 이벤트를 선보임으로써 사람들이 전통시장은 고루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날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기업 담당자인 김미지 대리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번 전시로 방문객들이 전통시장을 색다르고 특이한 것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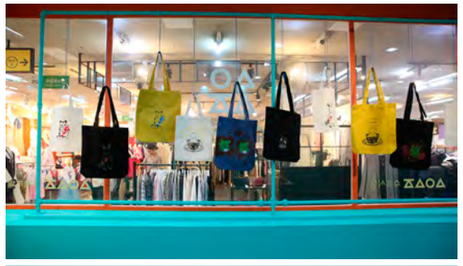
신지선 퍼실리테이터는 프로젝트 실행에도 참여했는데 백화점과 전통시장의 경계가 점차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래서 이런 모호한 경계를 표현하기 위해 백화점에서 볼 수 있는 미적인 아름다움을 담은 디스플레이를 전시장에 옮겨서 시장 상품과 백화점 상품을 하나의 테이블에 진열해 대비시키는 전시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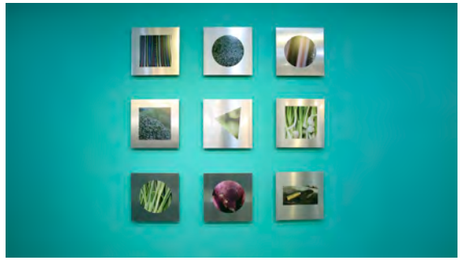
한지아 예술인은 자신의 일러스트를 한껏 살린 작품을 선보였다. 생선 지키는 고양이, 당근을 구매하는 토끼, 꽃을 한아름 안고 있는 곰 등 시장에서 다양한 동물이 장을 보는 모습을 스토리로 풀어낸 드로잉 판화 작품을 제작했던 것. 이를 실크스크린 기법을 이용해 직접 에코백을 제작, 친환경 장바구니로서 전시해 시장의 이미지도 강조했다.

김혜영(모리) 예술인은 호객행위 사운드 싱글 앨범이라는 흥미로운 작업을 선보였다. 시장에서의 호객 행위를 하나의 공연처럼 바라보면서 음악에, 또는 리듬에 가사를 넣거나 말하듯이 스토리텔링을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호객 사운드 아트를 만들어냈다.

조성배 예술인은 전통시장의 상품들을 직접 사진으로 촬영해 알루미늄 패널에 출력한 사진 회화 작품을 전시했다. 채소, 생선, 과일, 의류 등 다양한 상품을 근접 촬영 기법을 이용해서 사진으로 담아냈는데, 이런 색다른 시선 덕에 담긴 전통시장 상품들은 그 색상과 질감이 생생하게 드러날 수 있었다. 전통시장에서 보이는 상품들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달까.

그리고 박민호 예술인은 작가 및 작품 소개와 협업 과정을 한 편의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메이킹 필름을 제작해 화면을 통해 대중들이 생동감 있게 협업 과정을 향유할 수 있도록 스크린으로 전시했다.





사람들의 마음에 불어오는 변화의 산들바람

전시를 준비한 예술인들과 기업은 물론 전시가 개최된 수유시장의 상인들, 그리고 관람객들 모두에게는 인식의 변화가 산들바람처럼 살랑살랑 불어왔다.

먼저 전시 준비로 리서치를 하고 작품을 만들어낸 예술인들은 시장에 대한 인식이 스스로도 많이 바뀌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지아 예술인은 "시장이라고 하면 할머니 세대에 어울리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작업을 하면서 오히려 구식이 아닌, 복고를 느낄 수 있는 재미가 가득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혜영 예술인 역시 "작업을 위해 다양한 시장을 빈번하게 오가면서 오히려 백화점보다 시장의 개성이 훨씬 강하다고 느꼈다"면서 "백화점처럼 고객 서비스, 구조적인 통일감 같은 건 부족하지만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재미있는 것을 많이 찾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해갈 거란 생각이 점점 커져갔다"고 밝혔다.

기업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전시에 호응해주는 모습을 보며 예술적 영감을 피워낸 색다른 전시를 통해 대중들에게 전통시장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이나마 개선됐을 것 같다며 상당한 만족도를 보였다.

시장 측에서도 처음과 달리 새로운 시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주어 전시회를 연장하기까지 했다. 처음에는 조명을 끄라는 등, 텃세를 부리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전시를 바라보던 시장 상인 분들이 나중에는 전시에 와서 구경도 하고 오히려 전시 일정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던 것. 짧은 기간이지만 예술 전시가 상인들의 마음에도 온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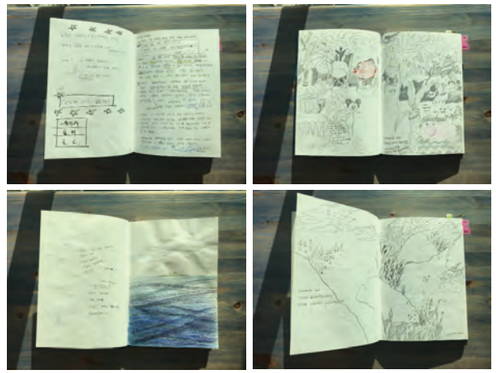
색다른 시도로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던 기업의 니즈에 예술인들의 다채로운 아이디어가 양념처럼 맛있게 버무려져 흥미로운 결과물이 완성됐다. 예술의 눈으로 바라본 시장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전통 시장에 대한 의식적인 변화를 움틔운 이번 전시처럼 더 많은 기업과 예술인들이 사회 곳곳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바라본다.

주식회사 현대백화점과 참여예술인이 함께한 작업들

1

2

3



2016년

1 두 유어 아트! (Do Your Art!)

2016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으로 진행한 첫 번째 프로젝트. 재능 있는 음악 전공 학생을 모집, 발굴해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금 및 마케팅 등의 후속 지원을 통해 연주자의 실질적인 연주 활동을 돕는 프로젝트였다. 이후 현대백화점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나가며 매년 국내 연주자들이 리사이틀, 수업, 개인적인 연습 등을 통해 준비되었던 모습을 무대에서 연주하여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무대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도 분당만돌린오케스트라, Resonar Quartet, 코드코즈, 땅고비올레, 최예나 등 다양한 아마추어 연주자(팀)이 무대에 올랐다.

2 동화 읽어주는 오빠

2016년 현대백화점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젝트 '문화夜'를 통해 바쁜 일상에 지친 성인 여성 고객을 위해 동화 낭독을 해주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름하여 동화 읽어주는 오빠. 현대백화점에 파견된 예술인들의 기획으로 탄생한 두 번째 프로젝트였다. 최명숙 예술인이 연출하고 오광록 배우가 어른들을 위한 아름다운 동화 '나메토코 산의 곰'을 낭독하며 따뜻한 위로의 시간을 만들었다.

2017년

3 사내 갤러리 노트

직원 간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 참여예술인과 현대백화점 직원들이 번갈아가며 노트에 그림 또는 질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대화의 물꼬를 틔웠고 차츰 백화점 직원들이 갤러리 노트를 이용해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소통할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였다.

마치 어린 시절 친구와 나누던 교환일기처럼 속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다. 기업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지만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킨다면 직원 간 원활한 사내 소통을 돕는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버를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인천의 문화플랫폼

백발이라는 뜻의 단어 그레이(grey)에 르네상스(renaissance)라는 단어를 합친 신조어 '그레이네상스(Greynaissance)'가 등장했을 정도로 실버세대가 부흥하고 있다. 이전 세대에 비해 늘어난 수명으로 은퇴 이후의 자신의 삶에 투자하고 그들만의 삶을 누리고자 하는 5060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 그러나 적극적 소비층으로 유통업계의 주목을 받는 반면 실질적으로 이들이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세대 속에서 함께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추억극장 미림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예술인들과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참여기업 추억극장 미림
퍼실리테이터 이호정(연극)
참여예술인 김성운(음악), 박지원(연극), 이은지(연극), 이호진(사진), 천정하(연극)

기업 소개

추억극장 미림은 실버 세대를 나이로만 보지 않고 인생을 완성하고 세대를 통합하는 주역으로 보며 이들을 위한 실버영화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영화 상영은 물론 사회적기업으로서 문화사업을 통한 실버문화복지를 담당하며 동시에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동인천을 중심으로 활발한 사회 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및 참여예술인들과 건강한 실버문화 캠페인을 기획해 전 세대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문화 플랫폼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사회구성원으로 세상에 스며들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싶어

추억극장 미림은 일각에서처럼 실버세대를 단순히 구매력이 생긴, 활동력 있는 장년층으로 분류하지 않고 세대 통합의 주역으로 보았다. 그래서 실버세대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사는 삶터 속 다양한 세대의 구성원들 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인천 지역 내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으로 파견된 예술인들은 추억극장 미림과 함께 적극적으로 자신의 예술을 활용해 그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을 쏟아왔다.

추억극장 미림이 사업에 참여한 동기는 명확했다. "연극, 음악, 무용, 영상, 문학 등 문화예술 전 장르에 걸쳐 실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버들만의 고립된 섬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긴밀한 시민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전 세대가 실버세대를 중심으로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단계를 밟아가고 싶다는 것이 미림극장 측의 생각이었다.

퍼실리테이터의 적극성과 계획성으로 사업의 탄력이 더해지다

그런 점에서 올해 추억극장 미림의 퍼실리테이터로 동 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호정 예술인은 체계적으로 다방면의 예술 장르를 통합해 사업을 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그녀는 연극과 영화,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동하기도 하고 영화제에서 사업을 계획하기도 했으며 제작, 연출 경험도 있었다. 기업의 니즈 파악은 물론 활동의 전반적인 설계, 진행 과정에의 정보 공유, 나아가 예술인이 창작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구축하는 데 경험이 있었던 것. 추억극장 미림에서도 그런 점을 눈여겨보고 먼저 그녀에게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어린 시절 익숙하게 다녔던 동네였어요. 엄마 손 잡고 놀러가곤 했거든요. 평소 고령화 인구에 관심이 많기도 해서 여러 모로 제게는 의미 있는 예술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응했어요."

그녀는 개인적으로 검색을 하기도 하고, 극장 측과의 회의를 통해 지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자료를 살펴보면서 올해 사업의 방향성을 그려나갔다.

그녀는 5월과 6월 두 달 동안은 각 분야에서 활동한 예술인들의 각자 개별적인 작업과 특징, 장점 등을 파악하고 미림극장과 인천, 동인천, 동구에 대한 지역적 특성, 전체적인 사회의 이슈들에 대해 파악하기로 했다. 그리고 7월 한 달 동안 지금까지 각자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생각한 바를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갖고 8월부터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해 보면서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을 채워가는 것으로 전체 계획을 세웠다.

예술인이 선정되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진행할 사업의 디테일한 요소들은 변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큰 틀이 잡혀 있을 때 사업 진행이 더 수월할 수 있기에 이호정 퍼실리테이터는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공을 들였다. 활동 기간이 짧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특성 상, 그녀의 계획성 있는 준비 덕에 추억극장 미림과 참여예술인들은 큰 혼란 없이 사업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제 역할을 고민할 수 있었다.

다양한 프로젝트 속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발한 빛

참여예술인들은 5월 한 달 동안 전체 사업계획 논의, 월별 계획 안내 및 협의, 미림극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쇼 , 화도진 축제, 시니어 영화 동호회 참관 등 바쁜 일정을 보내며 지역과 기업 파악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9월 1일에 진행되는 '솔빛아래 달빛보며' 축제(김성운, 박지원 담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네트워크 파티 '미림에서 만나다'도 진행하기로 했다. 지역 예술인이 소통하고 협력해 장기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지역 문화예술 공간 네트워크 구성을 목표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끝나는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하기로 한 것. 그 외에도 예술인 개별적으로 다양한 사업계획을 제안했고 대체로 프로젝트화 됐다.

그러나 추억극장 미림에서는 동 사업으로 행해지는 프로그램 외에도 여러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는 터라, 자칫 프로그램 구성에 혼란이 올 수도 있었다. 하지만 체계적인 페이퍼 관리와 예술인들의 고민으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프로그램들은 수많은 활동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났다.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희곡아 놀자! 연극아 놀자!' 프로그램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기타교실, 통 속으로'와 '영화를 듣다' 프로그램이었다. 두 사업에 쏟아지는 관심으로 추억극장 미림 측에서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 동 프로그램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천정하, 이은지 예술인의 '희곡아 놀자! 연극아 놀자!'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연극을 만들어온 주부들이 참여했는데, 그녀들은 리딩만으로도 놀라운 몰입과 적극성을 보이며 연극의 재미를 만끽했다. 지역에서 스스로 명맥을 이어온 주부극단과 전문 예술인이 만나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처음 만남에서부터 기대를 모았는데 역시나 3회차 진행 후 점점 참여 인원이 늘어나며 인기였다. 10월 20일 10회차 만남에서 공연 '내 마음의 보석상자'를 올릴 이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생각 외로 연극에 관심 있는 주부들이 많아 시니어 연극 모임인 '낭만극장'까지 합세한다면 멋진 가족극단이 탄생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까지 자아냈다. 실제 공연 당일에는 예상 외로 관객들이 공연장에 꽉 들어차 객석이 부족해서 서서 보는 관객까지 있을 정도로 무대는 성공적이었다.

김성운 예술인이 진행하는 '기타교실, 통 속으로'와 영화 시작 전에 라이브 연주를 선보이는 '영화를 듣다' 역시 관객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김성운 예술인은 "무대에 올라 라이브 연주를 할 때마다 박수를 받지만, 어르신 관객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지 늘 궁금하고 떨린다"면서 큰 애착을 보였다.

세대를 아우르고 삶터의 일부를 공유한 소중한 시간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예술인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완성도를 높인 예술인들 덕에 올해 프로그램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이어나가게 됐다. '기타교실, 통 속으로'는 2기를 모집해 사업이 끝나는 10월 이후에도 현재 진행형이며 '희곡아 놀자! 연극아 놀자!' 역시 2월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이 사업은 주부라는 한 세대를 예술이 있는 삶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참여예술인이 지역에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했다.

추억극장 미림 측은 "과거와 달리 올해는 체계적으로 활동을 정리하기 위한 서류 작업이 더해져 일이 늘어났음에도 모든 예술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다"면서 "바쁜 예술활동 중에도 사회적 기업으로서 추억극장 미림의 운영과 재원 조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주는 등 지난 3년과 마찬가지로 '지역 예술인'으로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어 감사했다"고 전했다.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끝났지만, 지역 주민과 기업, 예술인이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세대와 삶의 터전을 아울러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음이 분명했다.

추억극장 미림에서도, 참여예술인들도 올해 사업의 끝을 '헤어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의 만남은 계속될 겁니다." 결과보고서 마지막 코멘트란에 기업 담당자가 남긴 이 한 마디가 앞으로 이들이 다방면에서 예술로 함께 그려나갈 미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추억극장 미림과 참여예술인이 함께한 작업들

1

2,3

3

2015년

1 유랑단과 8090 영화상영 및 추억사진관

미림극장의 재개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구수한 약장수 콘셉트로 유랑단을 꾸려 홍보를 진행했다. 그 시절, 추억의 영화도 상영하고 실버 세대를 위한 추억 사진관도 꾸려 사진 촬영도 함께했다.

2016년

2 어르신 예술프로그램 1 '미리미 더빙극장'

변사와 함께하는 무성영화 제작 워크숍. 명작 영화 속의 인물을 직접 연기하고 줄거리를 설명하는 변사가 되어보고 추억극장 미림 영화제에서 발표회를 진행했다.

3 어르신 예술프로그램 3
'미리미 라디오쇼 – 모던걸 모던보이들의 라디오쇼'

'어르신'으로 상징되는 장년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음악으로 소통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참여형태의 라이브 라디오쇼. 신청곡과 사연은 즉석에서 받고, 그날의 흥겨운 분위기에 따라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4

5

2017년

4 고전영화 상영회

옛날 영화를 상영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프로그램. 김소희 예술인의 비평과 더불어 관객들도 자유롭게 영화를 본 소감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르신들의 깊이 있는 문화적 소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5 미림, 아름다운 영화의 숲

미림극장 60년(1957~2017) 역사를 담은 추억의 영화관 소품들을 〈미림,아름다운 영화의 숲〉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와 상설 전시공간을 오픈했다. 35년간 영사기를 돌렸던 조점용 어르신의 기증품 외에도 상영일지, 입장티켓, 평소 보기 어려운 필름영사기와 그 당시 극장의 모습 영상을 전시했다.

6 미림 가족씨네마 축제

미림 노래자랑과 참여예술인의 문화 행사, 릴레이 단편 영화제를 한데 묶어 풍성한 축제의 형태로 꾸렸다. 예술이 가진 가치를 극장 곳곳에 피워내며 어르신 문화 영역을 확장해나갔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활동의 총체가 오롯이 드러난 축제였다.

6

지역과 예술인의 연결고리가 되다

(사)강릉생명의숲국민운동 최제헌 퍼실리테이터

올해로 4년째, 참여예술인이자 퍼실리테이터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몸담고 있는 최제헌 예술인. 그녀는 예술인 개인과 사회의 연결지점을 찾고자 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시도가 매력적이라 느껴져 이 사업에 동참하게 됐다고 했다. 내가 사는 동네에 소소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했던, 퍼실리테이터로서 그녀가 고군분투했던 시간을 함께 들여다보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나의 방향 찾기

참여예술인으로 참여한 첫해, 최제헌 퍼실리테이터는 태백의 석탄박물관에서 청소년 학생들과 상상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진짜 유물들 사이로 유랑하듯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를 계기로 교육자와 예술인, 행정가가 함께 움직인다면 더 유익하고 멋진 프로젝트가 지방에서도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된 그녀는 다음 해에도 사업에 지원했다.

“첫 번째 사업 참여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한 사랑에 빠진 저는 두 번째 해 퍼실리테이터의 무게를 짊어지면서 지독한 사랑 싸움을 하게 됐어요. 실험 정신과 열정이 과했던 탓인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이후까지 협업이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지는 못했죠.”

연인을 알아가듯 조심스러워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해, 원주의 작은 동네서점으로 향했다. 동네 책방의 이야기를 살갑게 끌어안지 못한 탓에 활동에 아쉬움이 남지만, 파견 활동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한 시기였다고 전했다. 그런 다져짐의 시간 끝에, 올해는 더 열린 마음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사실 두 번째 참여할 때는 지역의 예술인들 중에서 이 사업을 먼저 경험했다는 이유로 퍼실리테이터를 했거든요. 그래서 리더이면서 디렉터여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다양한 꽃이 필 가능성은 배제한 채, 내가 아는 꽃만 피길 기다렸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었죠.”

올해 그녀는 퍼실리테이터로서 보다 유연하게 틈을 내고 여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태도로 사업에 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강릉생명의숲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관찰하고 질문하고 고민하는 이상주의자

그녀는 낯설기만 한 전문가 집단과 예술인들 사이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소한 그런 대화가 나눠질 여지가 만들어져야 예술인들도 그들이 풀어나가는 방향을 함께 바라보고, 걸어보게도 될 것 같았다고 그녀는 고백했다.

“예민한 관찰자가 돼서 협업을 하는 기관과 예술인 사이의 틈을 살폈어요. 예술인 개인의 특성을 장점으로 살리면서도 그 틈을 촘촘히 메꿀 수 있도록 조율자의 역할에 신경을 많이 썼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어떻게든 강릉에 유치해야겠다는 욕심에 퍼실리테이터로서 유연하지 못했던 첫 경험을 발판으로 올해는 조금 더 유연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여행하며 글 쓰는 사람과 사람들을 잇는 힙합 뮤지션. 이번 해 그와 함께한 두 명의 참여예술인이었다. 최제헌 퍼실리테이터는 기업 및 예술인들과 사업의 의미를 공유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했다. 참여하는 목적이야 각기 다를 수는 있다지만 그로 인해 이 사업을 이해하는 지점이 다르다면 협업의 단계마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예술의 사회적 의미를 지속적으로 의논하고 확장해나가는 목적을 공유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기관과도 마찬가지에요. 기관이 예술을 이해하는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의 폭이 많이 좁아지곤 하거든요.”

양측을 모두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녀는 예술인의 개별 작업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였고 기관이 담고 있는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늘 그들에게 질문하며 알아가려 노력했다. 그래서였을까? 숲터뷰, 도시숲퍼, 숲난장 등 재미난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이름만 들어도 기억에 쏙, 예술이 불러온 관심

"숲터뷰는 사무국에 있는 세 사람과 참여 예술인 팀 세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1:1 인터뷰로 진행하면서 6개월간 이어간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사무국 담당자가 예술인을 짝꿍처럼 살갑게 받아줄 수 있었고, 그 결과 원만한 협업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도시숲퍼는 청년들과의 만남을 고려해 만든 프로그램이었다. 보통 숲, 산을 떠올리면 은퇴한 노년층이 가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래서 예술인들은 지친 사람들 누구에게나 쉼터가 되어줄 수 있는 숲을 삶 가까이로 끌어오고 싶었다. 기관에서도 긍적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었고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다가와 숲을 지키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다.

"사무국장님이 내년에는 본인이 도시숲퍼를 담당하고 싶다며 욕망을 드러내셨을 정도로 기관에서는 저희가 만들어낸 협업 프로젝트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프로그램을 별나게 이름지어 유행어처럼 만들고 개별 로고도 디자인해 단체 티셔츠를 만들어 입고 다니고, 6개월간의 활동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기관 소식지의 별책부록처럼 회원들에게 보낸 일 등 정말 즐거운 경험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도시숲퍼라는 단어는 온라인 홍보 과정에서 꽤 많이 회자되었고 직접적인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이 활동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이어졌다. 도시숲퍼 티셔츠를 살 수 있느냐며 묻는 사람도 있었고, 로고가 귀엽다며 도장을 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느새 예술이 지역민들에게 불러온 작은 관심이 소소한 물음 속에 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로 이어지는 시간

예술이 뭐야? 난 하나도 몰라. 그냥 우리 청년활동가 팀장이 말해줘서 알았어. 근데 우리 팀장 내가 아주 칭찬해야 해. 팀장이 말 안 해줬으면 내가 이 좋은 걸 몰랐을 거 아니야. 아, 내가 예술에 빠지면 답이 없는데….

"사무국장님이 그러셨어요. 이 좋은 걸 너무 늦게 알았다고. 정말 큰 관심을 보이시는 게 느껴졌죠. 힙합앨범 쇼케이스에도 등장하시고, 전시장에서 질문을 막 쏟아내셨죠. 거대한 조직 내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시발점은 마련된 것 같아요. 예술이 그런 의견을 많이 내어줌으로써 기관에도, 나아가 지역에도 그런 변화가 이어질 거라 믿어요."

동네 예술인으로 자리 잡는 꿈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으로 풀어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최제헌 퍼실리테이터는 지금도 그 믿음에 변함이 없다. 아직 지대한 영향력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점차 '힘을 빼고, 즐겁게' 다가서는 법을 깨우치고 있다.

"퍼실리테이터는 무언가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리더가 아닌 것 같아요. 관계의 사이, 사이를 예술로 이어주는 사람이랄까요? 예술이 현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최전방에 서야 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가장 이상주의자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상과 현실 사이의 낯섦이 아름다운 발견으로 느껴지든, 불편함과 고민거리가 되든, 예술이 세상 모든 것들 '사이'를 흔들어 깨우고 생동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이상을 동시에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지역과 예술인의 사이를 하나로 이어 탄탄한 관계를 맺어줄 수 있을 테니까요."

예술 가치 확장의 구심점에 선 사람들 '퍼실리테이터'

송파구보건소 권효진 퍼실리테이터, U.P.P 송지은 퍼실리테이터, 구로문화재단 신지연 퍼실리테이터, 다온작은도서관 하원준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시작된 지 어느덧 5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성장통을 앓으며 오늘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한 뼘씩 자라나고 있다. 참여예술인으로, 그러다 퍼실리테이터로 5년의 기간을 함께해온 이들을 만나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과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Q. 퍼실리테이터는 이 사업을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켜볼 수 있는 입장일 텐데요.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하 진심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예술인이 협업을 통해 자신의 예술 세계를 더 넓게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타 장르와 함께 협업해보는 경험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복지 차원으로 지원금을 받는 게 끝이 아니라 예술인이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어요.

권 맞아요. 자기가 하는 예술로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예술인도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 돈으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술로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로 일할 기회를 얻는다는 게 의미 있지 않나요?

Q. 그럼 이 사업 안에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신 다양한 역할을 행하기 때문에 한 단어로 꼬집어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업과 예술인 사이를 오가면서 상호 이해시키는 중간 조율자의 복합적인 느낌도 있죠.

하 저는 '프로세스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의 퍼실리테이터는 기획자도 디렉터도 아니에요.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사람이 아닌 관찰자이자 프로세스를 관리해주는 사람이에요. 퍼실리테이터는 과정의 순서와 적절한 위치를 파악해서 순환이 잘 되게 해줘야 해요. 우리가 디렉팅을 하게 되면 자칫 예술인이 자기가 잘하는 건 못하고 퍼실리테이터가 요구하는 걸 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예술인이 이 사업에 참여한 의미를 잃게 되는 거죠.

권 퍼실리테이터를 처음 하던 해에는 제가 기획을 다 하기도 했어요. 그땐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하다 보니 예술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동기를 부여해줘야 하더라고요.

송 공감해요. 한 마디로 예술인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게끔, 그런 장을 마련해주는 사람이 퍼실리테이터라고 생각해요.

Q. 그렇다면 조금 깊게 파고 들어가 볼게요. 좋은 퍼실리테이터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권 저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잘 알아야 예술인을 만났을 때 시간 낭비를 안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내가 조력자이자 협력자로 도움이 되는구나 해야죠. 필요에 따라선 대행일도 하고 기획도 해주고 믿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무엇보다 열린 마음으로 품어줄 수도 있어야 하고요. 그러려면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하는 데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하 저는 즐길 줄 아는 사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퍼실리테이터라고 생각해요. 일단 예술이라는 건 흥겨움이 있어야 잘 되는 일이에요. 죽어라고 힘들면, 협업하러 오는 발걸음이 무거우면 한 시간이 열 시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발생하는 미묘한 변화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현명하게 판단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퍼실리테이터가 실수를 했다고 치면 그걸 바로 인정해야 하죠. 괜히 찜찜하게 골을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신 예술인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가 좋은 퍼실리테이터라고 생각해요. 예술인들이 사업을 시작해서 마무리하기까지의 6개월이란 시간동안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처음 만나서 어색해 하다가 친해져가고, 사업이 좀 익숙해지면 살짝 루즈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막바지에 접어들면 다시 박차를 가하고 해야 하는 단계들이 있어요. 그 흐름을 잘 파악하고 예술인이 이 사업의 어느 단계에서도 손을 놓지 않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업 시작 초반에 각 예술인의 작업을 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이유도 그래서예요. 이 예술인이 여기서 이런 활동을 하면 나중에 개인 작업에도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걸 미리 살펴보고 파견활동을 할 때 그 부분을 짚어주는 거죠.

송 또 하나 꼽아보자면 유연성을 들 수 있을 듯해요. 엄청난 재능도 필요도 없고 말을 유려하게 잘할 필요도 없어요. 착하고 선한 사람 아니어도 돼요. 하지만 유연성은 중요해요. 협업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어떤 돌발 상황에도, 어떤 유형의 사람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저희가 잘해서 지금까지 계속 퍼실리테이터를 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좋은 예술인들을 만나고 좋은 기관을 만나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운도 따랐기 때문일 거예요.

신 맞아요. 운도 운이지만, 계속 경험하면서 나아지는 것도 있어요. 경험이 많다고 '항상 잘 될 거야' 이런 건 아니고 그 경험이 바탕이 돼서 자신감 있게 임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죠.

Q. 경험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다년간의 경험을 쌓은 퍼실리테이터로서 기업과 예술인을 잘 리드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하 저는 기업 담당자에게 강단 있게 할 말은 하는 편이에요. 물론 기분 나쁘지는 않게요. 보통의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예술인이 하청업체처럼 고용된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요. 그런 이해가 없으면 기업이 시키는 것만 하게 되고 자연히 예술인들은 흥미를 잃게 돼요.

권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평소 웃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기업 담당자의 입장도 이해한다는 걸 보여주면서 친근하게 다가가면 담당자도 마음을 열게 되죠. 이 사업을 위해서 부서가 새로 생기는 일은 없으니까 이 일도 대개는 그 담당자에게 추가로 부여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대화를 하더라도 그런 점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겠죠.

신 기업이라는 대상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도 권 퍼실리테이터님 말씀에 십분 공감해요. 예술인도 기업을 이해해야 하고, 기업도 예술인을 이해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만들어요. 그리고 퍼실리테이터가 예술인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도 무척 중요해요. 이 사업을 왜 하는지를 이해시키고 자연스러운 협업 접점들을 파악하려면 이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아는 일이 우선돼야 하거든요.

Q.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퍼실리테이터로서 겪는 고충도 다양할 것 같아요. 앞선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일부터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송 이해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업도 예술인도 퍼실리테이터도 각자 조금씩 다른 언어를 사용할 뿐이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어가 다르다 보니 이해가 어려울 뿐이에요. 그 부분은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고충인 것 같아요.

권 재단에서 기업과 예술인, 퍼실리테이터를 선정할 때도 고심하시겠지만, 저희도 기업에 맞는 예술인을 매칭할 때 고민이 많아요. 단순히 서류에 적힌 몇 줄의 문장만으로 그 사람이 이 기업에 맞을지, 협업에 적합할지를 알아내기란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전 만남의 광장에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예술인을 아는 분들이 있으면 여쭤보기도 해요. 그래도 막상 협업을 시작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시는 분들이 있곤 하죠.

하 예산 마련도 어려워요. 협업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기업 지원을 받는 것도, 예술인들이 자비를 투자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간혹 작품 규모가 커지면 어쩔 수 없이 추가 비용이 들어요. 그렇다고 활동지원비로 나오는 돈을 인건비는 고려치 않고 전부 재료 사는 일에 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신 매년 많은 기관과 매칭된 퍼실리테이터 분들이 느끼는 공통된 고충일 듯해요. 파견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에 이미 기관에서는 예산을 다 짜서 결재가 난 상태라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맞춰 나온 예산이 따로 없어요. 그렇다고 예비비를 막 갖다 쓸 수도 없고요. 다행히 올해 구로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기관 담당자분이 사업에 대해 이해도가 깊으신 편이고 해서 재단을 설득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책정받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죠.

Q. 퍼실리테이터가 그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매년 시행되는 직무교육도 그중 하나일 텐데요.

하 직무교육이 우리가 접하는 현장에 특화된 내용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분야의 퍼실리테이터라는 일이 기업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신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달라서 더 흥미로웠달까요? 퍼실리테이팅이라는 용어 자체가 기업 쪽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예술인이 생각하는 기획자와는 또 다르게 그들 나름대로 만들어내는 스킬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참여한 이 사업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을 얻기도 했어요.

하 지속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 해주면 어떨까 싶은 거죠. 퍼실리테이터도 사업을 하다보면 직무교육을 통해 배웠던 '역할'을 잊게 되기도 해요. 그런 걸 상기시켜줄 수 있게 연 2회는 하면 좋지 않을까요?

한편으로는 전체를 다 모으기에는 규모가 커지니까, 조별 퍼실리테이터 모임의 규모를 좀 더 키워서 퍼실리테이터가 능동적으로 진행하는 직무교육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 중간 매개자로서 기획적 능력도 있으면서 현장감도 있고 유연성을 가진 퍼실리테이터를 뽑은 이유도 예술인복지재단에서 800명의 예술인 인원을 챙길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퍼실리테이터들끼리 모이면 대화를 나누면서 이쪽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저쪽 사업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감지가 되거든요. 저희들끼리도 서로 긍정적 의미에서 견제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그래서 하원준 퍼실리테이터님 말씀처럼 최소 연 2회라도 서로를 견제도 하고 문제가 감지될 때마다 즉각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Q. 경력이 오래된 퍼실리테이터들이 생기면서, 내부적인 경험차이도 커질 것 같아요.

하 맞아요. 올해부터 심화된 문제가 뭐냐하면 노하우가 쌓인 퍼실리테이터와 그렇지 않은 퍼실리테이터 사이에 사업 운영 능력에 대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년이면 더 벌어지고, 후년이면 더 벌어지겠죠. 경험이 많은 퍼실리테이터는 노하우가 있으니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업이 진짜 잘 되려면 퍼실리테이터 간의 격차를 최대한 줄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 전문위원들도 계시지만, 경험을 많이 한 퍼실리테이터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전문가를 초청한 교육으로 메꿀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사안별로 실질적인 사례를 나누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권 소위 진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답이 없는, 경험에 오롯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례들도 정말 많아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런 경우를 모르면 제대로 대처를 못 해서 퍼실리테이터가 진상 취급을 당할 수도 있다니까요.

송 별별 문제가 다 발생할 수 있어요. 좋은 사례든 안 좋은 사례든 이상하다 생각할 것 없이 공유가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칫 퍼실리테이터가 자기 잘못으로 사업을 그르쳤다고 생각하거나 혼자 상처 받고 이 사업에서 등을 돌리게 될 수도 있거든요.

Q.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되면 좋겠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까요?

신 사업 시작 시기가 조정되면 좋겠어요. 예산과 맞물리는 문제인데요. 시기를 조정하는 일이 워낙에 근본적인 문제다 보니까 쉽게 개선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저희 사업이 시작되는 시기에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한 해 예산 구성이 이미 끝난 상태예요. 기업에서도 이 사업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둘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좋은 협업 성과물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 기업 교육도 진행되면 좋겠어요.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기업이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거든요. 기업에서 단순히 하청업체처럼 예술인을 고용했다고 인식하게 되면 사업이 제대로 흘러갈 수 없어요.

그리고 창의적인 예술인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시스템 자체도 혁신적이고 진보적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적으로 거리가 먼 곳으로 파견을 가야하는 퍼실리테이터나 예술인에게는 그만큼 비용이 좀 더 지불되거나, 시수로 인정해주는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동시간도 무시 못 하거든요. 지금처럼 수치화에 급급한 보수적인 시스템으로는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나아가 이 사업을 주체하는 측에서도 계륵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었으면 해요.

송 기간적인 부분도 개선되면 좋겠어요. 기업에서도 처음 만난 예술인들과 협업으로 뭔가를 이끌어내기에 6개월은 짧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람들과 한 번 더 해보고 싶은데 자기 기업이 뽑힐지도 불확실하고 매칭이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단발성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을 기업과 예술인 서로가 많이 아쉬워하세요.

권 예술을 정량화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이 사업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 내려면 조금씩이라도 변화는 필요해요. 당장의 기근을 해결하고 마는 사업이 되면 발전을 기대할 수 없어요.

Q. 그럼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예술인에게도 어떤 변화를 가져다준다고 보시나요?

권 그럼요. 물론 예술인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느냐가 전제 조건이지만. 올해 저희 쪽 참여예술인은 미혼인 한 분을 빼고는 다 어린 아기가 있는 엄마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더는 예술을 못 하겠구나 했는데 이 사업으로 내가 예술하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됐어요.", "돈 쓰는 사람에서 돈 버는 사람이 돼서 가족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것도 뿌듯하고요." 경력 단절 여성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술하는 사람들은 자기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사회에서 일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안 해봤던 장르를 경험하면서 확장 가능한 영역을 모색하고 자연히 여성 예술인으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업의 참 의미를 느끼게 됐죠.

하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경우가 있죠. 이 사업을 계기로 타 예술 장르와 소통하고,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술을 하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자기 예술을 단단히 올릴 수 있는 토대가 조금 더 쌓이게 되겠죠.

Q. 예술인들도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송 올해 저희는 무척 즐겁게 일했어요. 참여예술인분들이 하나같이 일이 아니라 놀이라고 생각하듯 신나고 재미있게 작업을 해주셨거든요. 즐겁게 예술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예술인에게는 좋은 동력이 되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간 초과해서 작업하는 걸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월 30시간에 얽매여서 하루 모임에 세 시간이 넘어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빡빡하게 생각하면 예술이 일이 돼 버려요. 제도적인 부분에서 보완돼야 한다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예술인들도 여유롭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 경직됨보다는 느슨함이 이 사업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요인일 것 같아요. 보고서도 보면 세 시간, 세 시간 정말 칼 같이 나눠서 쓰시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하하(웃음). 제도적인 보완점을 여기서 언급하긴 그렇지만, 30.1시간을 하든, 29.9시간을 하든 예술인들이 쏟아붓는 노력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사업 시스템도 느슨함이 좀 더해지면 좋겠네요.

송 이 사업을 돈으로만 생각하고 지원하면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기업을 보면서 돈을 버는 매커니즘을 배울 수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저들이 협업을 해서 이윤을 창출하는지, 그런 프로세스를 습득하는 것이 이 사업의 진짜 장점이에요.

Q. 실제 이 사업으로 예술이 일반인의 삶에 가져오는 변화를 체감한 적 있으실까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었다면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권 프로그램 중에 엄마들 몇 분을 뽑아서 즉흥에서 10월 말에 엄마로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연극을 한 편 하자고 했는데 9월 초부터 매주 한두 번씩 만나서 연습을 하고 계세요. 그냥 늘어놓으면 하소연이 되는 이야기들이 연극이라는 예술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데 의미를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푸념처럼 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신 일반인 분들 중에는 자기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는 프로젝트성 활동으로 경청하고 대화를 나누는 건데 그분들은 누군가 얘기를 들어주는 게 절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예술인이 파견됐다고 해서 반드시 전통적인 예술을 구현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겠구나,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시간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 저 같은 경우엔 똑똑한 언니와 장애가 있는 남동생 사이에서 힘들어 하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자기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인지 말도 행동도 차갑고 거칠었죠. 그 아이 사전에 나눔이란 절대 없었어요. 그런 아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부드러워지고 밝아졌어요. 특히 아이들은 예술을 경험함으로써 짧은 시간에도 엄청나게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아이들에게 더 많이 제공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Q. 끝으로 퍼실리테이터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해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사업에 관한, 혹은 퍼실리테이터를 지망하는 분들에게의 당부도 좋고요.

신 앞으로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많이 나오니까요. 우리나라 지원사업들을 보면 처음 기획서를 내고 그게 얼마나 완성됐느냐를 봐요. 그래서 뭐 처음 기획안과 50% 이상 다르면 불이익이 주어진다거나 하죠. 근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지금처럼 예술인이 예술로 변화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송 어떤 기업을 만나느냐, 어떤 예술인을 만나느냐는 정말 복불복이에요.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변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경험치가 중요하고요. 퍼실리테이터마다 경험치의 정도 차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하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가 있다고 없애버리지 말고 개선해나가면서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예술인들이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게 중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좋을 것 같고요.

송 가끔 다른 퍼실리테이터와 제가 협업을 하고 싶기도 해요. 서로의 기업을 연결해서 더 좋은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죠. 근데 6개월 안에 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쉬울 수밖에요.

권 퍼실리테이터든 예술인이든 즐겁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모든 일은 내가 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태도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이걸 내가 왜 하는지'를 명확히 알면 일도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5년간 사업과 함께해 온 퍼실리테이터들답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한 깊은 애착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지면에 다 담지 못한 귀한 이야기들도 많았다. 물론 오늘의 이야기들이 이 자리에서 처음 논해지는 일도 아닐 테고 향후 단시간 내에 완벽하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처럼 수많은 예술인들이 이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점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점차 탄탄하게 자리를 잡으며 미처 드러내지 못한 잠재력을 발휘할 날이 다가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 작업을 돌아보게 하는 신선한 자극

3년 동안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정리하면서 보니 매년 분위기와 주제, 내가 느끼는 지점들이 달랐다. 처음에는 단순히 결과물을 만들어 내면 된다는 생각에서 참여예술인들 간 협업 방식을 고민하고 기관과의 관점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했다. 두 번째 해에는 고민보다는 오히려 이 사업을 통해 휴식을 얻었다. 그리고 올해에는 작품을 만들어 가는 방법론과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갖게 됐다. 나의 다양한 경험들을 조심스럽게 나눠보고자 한다.

글_ (주)질경이우리옷 **박성율** 참여예술인

2016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대학로 소나무길 번영회'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과 시도

3년 전, 처음으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나는 어떻게 진행될까에 대한 걱정 반 설렘 반의 마음으로 가득했다. 특히 타 예술장르의 사람들과 하나의 프로젝트를 6개월간 진행하면서 '과연 잘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송지은 퍼실리테이터가 사업의 방향성을 잘 잡아준 덕에 예술인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각자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대학로 소나무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우리는 대학로 소나무거리를 비언어 퍼포먼스의 거리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침묵의 거리'라는 콘셉트를 정했다. 미디어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엽서 프로젝트, 욕조 프로젝트, 만남 프로젝트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실시했다. 그리고 10월에는 각자 진행했던 퍼포먼스를 하나로 엮어 소나무길을 꾸며 나갔다.

그러나 상인회 측과 소나무길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컸다. 작품을 바라보는 차이, 특히 미디어 퍼포먼스의 난해함에 대한 해석 차이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상인회와 점점 서먹해지기까지 했다. 다행히 상인회 회장님과 식사를 하고 술도 한 잔 기울이며 오해를 풀기는 했다. 다만 관점의 차이는 끝내 좁히기 어려웠고 소나무길 프로젝트는 현실적인 소통의 문제만 남긴 채 사업의 종료와 함께 끝났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는 즐거움

6개월의 활동 중 다양한 참여예술인들과 소통하며 아무것도 없는 거리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그리고 거리가 가진 수많은 변수들이 내 작업에 좋은 영감을 주기도 했다. 거리 공연을 준비하던 때에는 주제가 '만남'에서 '현실과 이상'으로 변화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움직임 리서치 방법을 알아갔다. 그러나 처음 정해놓은 '침묵의 거리' 라는 콘셉트를 진행 과정에서 놓친 점, 장기적인 기획안을 만들어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러나 거리 공연을 통해 그동안 내가 그냥 지나다니던 거리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 결과 공간과 좀 더 섬세하게 교감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무엇보다 아무것도 없는 데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흥미롭다고 느꼈다. 소나무길이 내겐 그랬다. 어떤 색감도 없어서 오히려 많은 것을 시도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겨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업이 끝나버려서 아쉽지만 좋은 시도와 만남의 경험을 갖게 된 것만으로도 좋았다. 한편으로는 기업과 소통의 간극을 좁혀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하게 됐다.

2017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재주도좋아

내 느낌을 오롯이 표현할 수 있었던 기회

2017년 5월, 서울에서 참여예술인들과 김승환 퍼실리테이터를 만나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번에 참여하는 예술인은 지난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같이 했던 경험이 있는 작가들이어서 소통이 수월했다.

일단 제주도에 있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다음 달부터 내려가기로 하고 먼저 모여서 사업을 준비해나갔다. 처음에는 제주라는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스케줄 관리나 작업방식에 고민이 많았다. 특히 기관에서는 참여예술인들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요구사항이 전혀 없었다. 그저 비치코밍(해변을 빗질하듯 바다 표류물이나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행위)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을 작업으로 표현하면 된다고 할 뿐이었다. 표현해야 할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오히려 우리는 갈피를 잡기 어려웠고 답답했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점점 달라졌다. 우리는 수중 촬영을 위해 오픈 워터 자격증을 따고 제주도를 걸어다니며 쓰레기를 주웠다. 경험을 계속 나누고 쓰레기를 활용해 전시도 열고 마지막에는 댄스 비디오도 제작해 제주도 내 다른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팀과 만나 공유하면서 제주도의 자연과 사람들을 온전히 느끼는 경험까지 덤으로 얻었다. 결과물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현재 내가 느끼는 것을 온전히 예술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였기에 오히려 기관에 감사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번 사업에서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보여주는 것보다 현재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가 작업에 더 중요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사람마다 삶을 살아가는 속도는 다르다는 것, 그래서 다른 대로 각자의 삶을 살아나가면 될 뿐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지역이라는 특징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러면 더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무엇보다 여유를 배웠다. 어깨에 힘을 빼고 바라보고 기다리며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줄 줄 아는 여유. 그런 여유가 없이는 어떤 것도 제대로 이뤄낼 수 없을 것 같다.

2017년 'Dream song'
재주도 좋아 댄스비디오

2018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질경이우리옷'

무거운 역사 속에 얻은 새로운 작업 아이디어

이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주제가 있었다. 주제가 여성독립운동이다 보니 심도 있는 자료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 일반적인 검색만으로는 조사에 한계가 있었으니까. 자료를 조사할 때 퍼실리테이터와 기업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다채로운 사실들을 알아갈 수 있었다. 그 후 우리는 여러 전시를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지, 그 방식에 대한 연구 및 아이디어들을 취합해나갔다.

그런데 여성독립운동에 대해 알아갈수록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됐다. 아직 나는 인물을 다룬 작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걸 어떻게 움직임으로 만들어 갈지가 큰 숙제였다. 시간은 점점 흐르고 독립운동이라는 주제는 점점 무겁게 느껴져만 갔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대화가 내게 해답을 주었다. 퍼실리테이터와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참여예술인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진 것. 이 주제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게 되면서 심적 부담감도 차츰 줄어들고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안동 임청각에서의 시연회 날짜가 잡혔다. 회의 위주의 만남을 해왔던 우리는 연습실에서 만나서 참여예술인들의 작품을 공유하고 작품을 보완한 뒤 안동으로 출발했다. 10월 28일, 시연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난 우리는 시연회 및 촬영을 준비하고 임청각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런데 임청각의 기운에 눌려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 우리는 천천히 호흡을 하며 다시 적응해나갔다. 한 명씩 준비해온 작품을 선보이고 촬영을 마무리 하는데 순간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좀 더 일찍 시연할 장소인 임청각에 와보고 연습도 해보았더라면 이 주제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퍼실리테이터와 나는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선 것이라며 차후에도 이 주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협업을 해보기로 했다. 아직 어떻게 표현하고 어떠한 것을 더 담아나가야 할지 명쾌한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은 아니었지만 올해, 임청각에서의 느낌은 제법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앞으로의 작업이 괜스레 기대된다.

3년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내게 남긴 것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으로 나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했다. 타 장르의 예술인들, 기업 및 기관 사람들과 만나면서 예술인의 세계와 현실 사이의 틈을 발견하고 그 간극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 세상의 다양한 주제와 각양각색의 모습을 오감으로 느끼면서 내 개인 작업까지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됐다. 경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느낄 수 없는 수많은 감각과 주제를 떠올릴 수 있었고 그것이 작업의 모티프가 돼주었다. 이러한 체득을 밑거름 삼아 나는 현재 자연과 죽음, 그리고 조화(사람)라는 주제로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내 예술이 가진 또다른 가능성

(주)남영비비안 김세미 참여예술인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김세미 예술인은 처음 한국에서 터를 잡기까지 쉽지 않았다. 당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 연극인으로서의 갈망을 이어갈 수 있었던 그녀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예술이 표현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Q.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벌써 두 번째 참여이신대요. 어떤 이유로 또 참여하게 되셨나요?

1차원적인 이유로는 예술인으로서 제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이라는 점 때문이었죠. 그렇게 지난해 처음 네오위즈라는 기업에서 경험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직원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진행했는데 호응도 좋았고 즐거웠거든요. 올해는 예술인으로서 제 정체성이 조금 더 드러날 수 있는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남영비비안에 지원하게 됐죠.

Q. 남영비비안의 어떤 점 때문에 지난해와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나요?

우선 예술인이 자기 색깔을 녹인 홍보 활동을 해본다는 게 흥미로웠어요. 여성의 당당함, 내면의 당당함을 표현한다는 주제도 마음에 들었고요. 제가 젠더 이슈에 관심이 많아서 친구들과 스터디도 하고 그 내용을 녹여서 지난 2월에는 공연도 올렸거든요. 남영비비안이라고 하는 기업의 내부는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궁금증도 있었어요.

Q. 기업의 니즈에도 맞춰야 하고 예술인으로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 괴리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괴리, 있죠. 비비안이 워낙 역사가 깊은 회사잖아요. 위계질서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확확 바뀌기 어렵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실무 담당자가 여자라고 해도 그 위 결정권자는 중년 남성분들이시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기업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하는 집단이니까요. 기업에서도 어떻게든 저희 작업물을 사용하려고 해주시고, 저희도 기업에 어떻게든 맞춘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서로 배려를 너무 하다 보니까 초반에 시간이 많이 지체된 거예요. 결국 오랜 대화 끝에 기업 측에서 예술인분들이 생각한대로 작업을 해달라고 하셨고 최대한 최종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지만, 맞지 않다면 사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가 됐죠.

김세미(연극)의
'여성의 당당함, It's my fit'

Q. 그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내신 결과물에 대해 조금 소개해주세요.

'여성의 당당함, It's my fit'이라는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독백 형태를 고민하다가 안네의 일기 중에서 자유를 향한 날갯짓과 같이 맥락이 상통하는 내용을 발췌해 녹음했어요. 여기에 무용하시는 심주영 예술인이 그 내용을 춤으로 표현해주셨고 촬영은 양재광 퍼실리테이터님이 도와주셨고요. 오희정 예술인이 음악도 깔아주셨죠. 춤과 음악, 제 독백이 어우러져서 멋진 영상으로 완성됐어요.

좀 드라이하게 가고 싶었는데 음악이 서정적이어서 거기에 어울리게 톤을 바꾸려고 녹음을 다시 하기도 했어요. 독백의 건조한 매력이 조금 줄긴 했지만 협업이기 때문에 이런 색다른 결과물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1인칭 관점으로 건조한 느낌을 살려서 독백을 따로 진행한 것도 있어요. 퍼실리테이터님께서 풍선 촬영을 멋지게 해주신 게 있어서 거기에 제 목소리를 더해 영상을 만들었죠. 음악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스페이싱 사이에 여백을 좀 더 느낄 수 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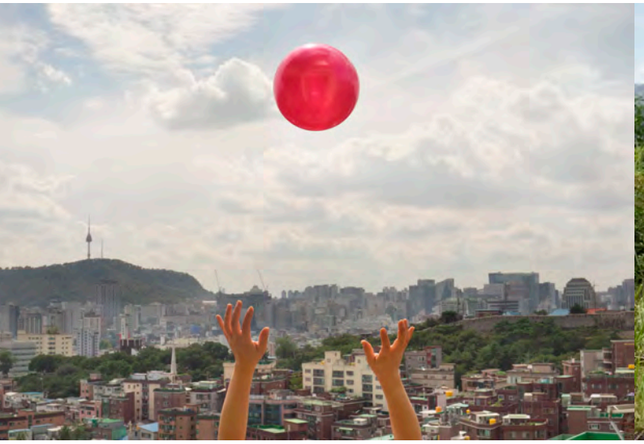
Q. 실제 협업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을 꼽아보신다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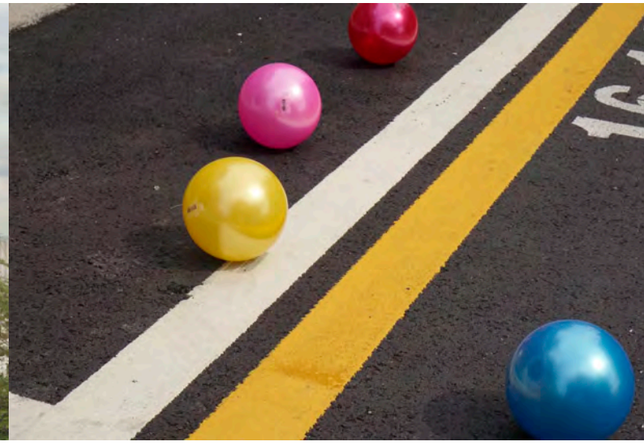
많은 예술인 분들이 그렇겠지만 새로운 시도를 다양하게 해봤다는 점이 가장 좋았어요. 협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타 장르와 다채로운 주제로 작업을 하는 일은 흔치 않으니까요.

어려웠던 점은 예술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각자 전문 분야에서 내공이 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뭘 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방법은 어때요?' 하는 식으로 표현하겠어요. 저도 제 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 함부로 말할 때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더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Q.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한 후로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에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느낌이 항상 들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 사업을 하면서 예술이라고 더 자유로울 것 같기도 하지만, 예술인 역시도 그렇게 바라보는 우물 안에 갇혀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업이 폐쇄적이라고들 하지만 예술인들도 답답할 만큼 갇혀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내던져져도 적응할 수 있도록 현실에 더 많이 부딪히고 경험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여예술인 협업 작품
'여성의 당당함, It's my fit'

Q. 다른 장르의 예술과 협업하면서 배운 점이 있다면요?

서로 배울 점은 너무 많죠. 가장 크게 배운 점이라면 장르 고유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 마지막에 시간이 촉박해서 안무하시는 심주영 예술인에게 가이드로 먼저 독백을 따서 드리면 시간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거든요. 근데 말하는 순간의 숨소리 하나까지도 무용 동작에는 영감이 되기 때문에 그 작은 차이 하나가 춤에서도 나타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의 순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새로웠어요. 그런 특이성이 있지만 자기 작업에서 최대한의 완성도를 뽑아내려는 건 어느 장르든 똑같은 것 같아요.

Q. 예술인들이 이 사업을 통해 가치 있는 수확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저는 '자아' 문제가 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 네오위즈 때는 '자아'를 내세울 여지가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예술적인 부분이 훨씬 많이 가미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 고민이 커지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 자체도 어쨌든 돈을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자기만의 세계를 고집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기업에 맞추기만 해도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색을 잃지 말고 자존감을 갖되 혼자만의 작업을 할 때보다는 열린 마음을 갖고 말랑말랑해져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꿈을 실현하는 나의 예술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노은석 참여예술인

꿈은 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라 하지만, 모든 이가 꿈을 이루며 살기에 현실이란 그리 녹록치 만은 않다.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포의료사협)의 노은석 참여예술인은 올해, 자신의 예술로 누군가의 꿈을 이뤄주는 벅찬 경험을 했다. 이러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경험 덕분에 매년 만족스러운 삶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노은석 예술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매년 얻은 소중한 경험들

밴드 음악을 했었다는 노은석 예술인은 올해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한 지 4년째다. 세 번은 참여예술인으로, 한 번은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했다.

하나하나가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노은석 예술인. 그는 2015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매칭돼서 직원들 대상 싱어송라이터 교실을 하고 소품집으로 작은 음반을 만들었다. 2016년에는 망원시장 내에서 망원동 주변 음악가들을 소개하는 디제잉을 했고 2017년에는 중구보건소에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면서 색다른 경험을 했다고.

“참여예술인일 때는 각자 주어진 작업에 열중하면 됐는데 퍼실리테이터로서는 또 달라서 정말 다양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참여예술인일 때가 심적으로 더 편하게 사업에 임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하하(웃음).”

올해, 어떻게 마포의료사협에 참여하게 됐는지 묻자 그는 두 가지 이유를 말했다. 그중 하나는 2016년 망원시장과 함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했을 때 만났던 박소영 예술인이 이곳의 퍼실리테이터였다는 점이다.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 만나 이룬 협업의 기억이 좋았던 까닭이다.

“당시 협업을 하면서 느낌이 무척 좋았거든요. 막바지에는 사업과 별개인 협업도 했어요. 제 음악에 박 퍼실리테이터 애니메이션을 붙여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죠. 그때의 좋은 기억이 남아서 긍정적으로 고려했던 건 있어요.”

그러나 보다 큰 이유는 만남의 광장에서 기관 측 담당자의 말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50~60대 중장년층 남성 독거노인 분들을 모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막상 활동을 시작하니 남녀가 많이 섞이긴 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예술이 조금이나마 치유가 될 수 있다면 내게도 큰 의미로 남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인생히트와 아버지

마포의료사협과 ‘이음식당 솔로예찬’이라는 프로젝트 아래 노래교실, 시 낭송, 라인댄스 등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매주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퍼실리테이터와 예술인들은 매주 만나 회의를 하며 바쁘게 지냈다. 월 30시간의 활동시간이 무의미할 정도였다.

“사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개인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제대로 참여하지 못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생업이 걸린 문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바쁜 와중에도 이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과 성을 다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올해는 하나같이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셨어요. 작든 크든 성과를 얻는 관건은 역시 ‘정성’이구나 생각했어요.”

매주 진행한 활동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이라면 무엇보다 이음식당 솔로예찬의 대표곡 작업. 참여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앙드레 리’ 님의 젊은 시절 꿈이 가수였다는 걸 알게 된 노은석 예술인이 그녀의 꿈을 이뤄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된 별도의 프로젝트다.

“노래가 하고 싶어서 어떤 작곡가 분의 집에 들어가 식모살이까지 하셨대요. 그런데 결국 구박만 당하고 노래 한 곡 얻지 못한 채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음악이라는 예술이 그분에게 꿈이란 걸 알게 되니까 꿈을 한 번 이뤄드리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서 ‘인생히트’라는 곡을 쓰고 이음식당 참여자분들이 가사를 쓰고 하셨죠.”

하지만 이음식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들은 대부분 우울증 등의 심리적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앙드레 리 님의 경우도 밝은 노래를 완창하기에는 흥이 잘 살지 않았던 것. 그래서 노은석 예술인은 고민 끝에 그녀가 만들어둔 ‘아버지’라는 자작곡을 활용하기로 했다.

“인터뷰 오기 전에 그 녹음하고 왔어요. 구슬픈 앙드레 리 님 목소리에 아코디언 반주를 더해서 애절한 느낌이 살도록 믹싱할 생각이에요. 아직 많이 우울하신 상태지만, 그래도 작게나마 하루를 살아내는 힘이 되도록 잘 완성하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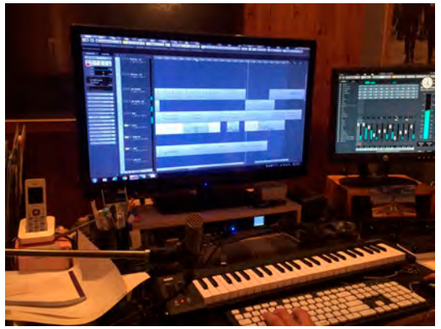
예술로 끌어내는 일상의 자그마한 변화들

심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에게 단시간 내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 도구가 예술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렇다고 아예 변화가 없는 것도 아니다. 작지만 서서히 물들어가듯 예술은 참여자들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이음식당 솔로예찬이 이분들에게는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불가능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변화에 큰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참여예술인들과 기관 담당자, 그리고 참여자 분들이 모여서 마지막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간의 소감을 나누는데 백합님이 너무 아쉽다며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중 하루, 이날만 바라보고 기다렸는데 예술인 선생님들 가신다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요. 뭉클했죠."

또 어떤 분은 걸려오는 전화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했는데 어느 순간 남을 보듬어주는 자신을 발견했다면서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6개월의 만남으로 우울증이 씻은 듯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예술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이들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고, 내일을 꿈꿀 용기를 얻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시간과 정성을 쏟으면 사람이니 당연히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심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온 세월의 벽을 평생 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해요. 참여자 중에 똘똘이 님은 늘 약봉지가 잔뜩 널린 바닥과 한쪽에 유서가 놓인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표현을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기간을 좀 더 길게 두고 이 프로젝트가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기

노은석 예술인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려면 예술인이 한 걸음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나만 예술인이 아니라, 나도, 그들도 예술인이라는 생각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

"예술인은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좀 더 주도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개인 프로젝트가 아니고 협업이기 때문에 서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한 발짝 물러나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여지를 준다면 협업이 더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업이 많아 참여예술인으로서 고충도 많고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직 산재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업은 무척 좋은 사업이라고 단언했다. 금전적 지원 때문도 아니고 신선한 협업의 경험 때문도 아니었다. 이유를 묻자 그에게서는 독특한 대답이 돌아왔다.

"이 사업을 하며 만난 사람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받았던 좋은 에너지들이 저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나의 쓸모있음도 느낄 수 있고요. 내가 아직 살아 숨 쉬고 있다고, 내년에도 나는 살아 있을 거란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생존을 확인받는 기분, 엄청나죠."

그는 올해 사업이 마무리됐지만, 이대로 끝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굳이 안녕을 이야기하지 않고 싶다고. 예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 지난 6개월간 이들 사이를 끈끈히 엮은 까닭은 아닐까.

BRANCH 04.
숲, 이루다

울창하게 자라난 나무는 가지를 너르게 드리워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주기도 하고
덩그러니 밑동만 남겨진 그루터기가 되어서도 잠시 앉아서 쉬어갈 여유를 건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며 우리 곁에 뿌리내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나무처럼
예술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 실제로는 삶의 곳곳에 깃들어 든든한 동행이 되어줍니다.
여기, 예술이란 옷을 입고 각양각색 저마다의 군락을 이루어 때론 상쾌한 휴식처가,
때론 따스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2018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양분을 먹고 자라나 삶 속에 숲을 이루고 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Theme I Disability

120 Essay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나 생긴 일들
_희망일터 류미례 퍼실리테이터

122 Sketch 예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다
_주식회사 스페셜아트, 한스피크,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노들장애인야학

Theme II Upcycle

128 Essay 예술의 옷을 입은 나눔과 순환의 가치
_아름다운가게 류미현 퍼실리테이터

130 Sketch 예술, 새활용의 가치를 높이다
_주식회사 터치포굿, (주)하이사이클, 져스트프로젝트

Theme III Local Book Store

136 Essay 예술 짓는 책방, 동네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예술
_대륙서점 정희성 퍼실리테이터

138 Sketch 동네 책방에 피어나는 예술의 향기
_사단법인 서울산책, 한양문고 주엽점, 올오어낫싱, 망고서림, 마리서사, 행복한 책방

143 Zoom In 망고서림, 우사단 능선으로부터 책을 넘어 망고즙액 흘리기
_김남수 전문위원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나 생긴 일들

글_희망일터 **류미례** 퍼실리테이터

희망일터는 정신질환자들의 직업재활시설로 강화섬 쌀을 도정하는 정미소다. 희망일터의 직원들은 우울증, 조현병, 강박 등의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특히 조현병 환자들이 많은데 조현병은 10대 후반에서 20대의 나이에 시작해 만성적 경과를 갖는 정신적으로 혼란된 상태를 유발하는 뇌질환이다. 조현병이나 우울증은 잔혹한 살인사건 때마다 떠들썩하게 언급된다. 최근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의 경우도 우울증 약을 복용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우리가 파견됐던 기관인 희망일터에는 이와 같이 잔혹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화제를 모으는 질환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인 17명이 일하고 있었다.

방승조(만화)의 '희망일터' 영상

기관이 희망했던 협업 주제는 '지역의 문화명소로 자리잡기'와 '예술을 통한 풍요로운 조직문화 조성'이었다. 또한 직원들이 즐기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라며 특별히 작년 참여예술인들과 진행했던 즉흥연기 워크숍을 올해에도 진행하기를 원했다.

방승조(만화), 선호빈(영화), 이창민(영화), 조예환(영화), 한국남(연극), 이렇게 5명의 예술인들은 기관이 원하는 협업주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다. 2개월 동안 희망일터 직원들과의 간담회, 마을사람들과의 만남, 지역탐방 등을 하며 고민한 끝에 즉흥연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10월에는 마을잔치를 열어 그동안의 예술인 협업활동의 결과물들을 총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마을잔치에서는 즉흥연기 워크숍의 기록을 담은 그림에세이 전시, 타로방과 라디오방 운영, 희망일터 홍보영상 상영, 캐리커처 그리기 등을 했고 마을잔치의 하이라이트로 예술인들과 조현병을 앓는 직원들, 마을잔치에 온 손님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즉흥연기워크숍을 진행했다. 마을잔치가 끝난 후에는 희망일터 직원들이 제작 중인 '인생영화'에 예술인들은 배우로도 참여했다.

'예술을 통한 풍요로운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즉흥연기워크숍과 라디오교육이 진행되었다. 한국남 배우가 팀의 책임을 맡아 진행한 즉흥연기 워크숍으로 직원들은 많이 웃을 수 있었다. 라디오 교육을 통해서는 일상의 시간들을, 그리고 지나간 추억을 불러낼 수 있었다. 각자 좋아하는 음악들을 매주 소개하고 사연을 읽어주는 라디오방송에서 직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들로 우리는 지금은 표정 없는 얼굴로 우울하게 앉아있는 그들이 발병 이전에는 우리와 다르지 않게 평범했던, 아니 빛났던 시간을 살았음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다.

실제로 정신장애인 관련 문화예술 콘텐츠들은 정말 없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TV드라마와 뉴스들을 통해서 잔혹행위의 실행자로서 폭력의 담지자로서는 넘치도록 재현되지만 그들 본연의 모습을 그려낸 문화예술 콘텐츠는 정말 없다. 정신장애인들은 낙인효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상황을 비밀에 부친다. 그리고 비장애인들과의 접촉을 꺼려한다. 희망일터의 직원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희망일터 사람들 속에 있으면 상처를 덜 받는다"는 것이었다. 그만큼 비장애인들의 시선과 오해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있었다.

희망일터에 파견된 예술인들은 운이 좋게도 그들의 본 모습을 만날 수 있었다. 퍼실리테이터로서 나는 예술인들과 정신장애인들과의 만남이 서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를 바랐다. 예술인들은 섬세하고 예민한 감각으로 정신장애인들과의 만남을 기억하고 성찰했으며 정신장애인들은 전문가로서의 예술인들을 아무런 경계심 없이 받아들였다. 10월 마을잔치에서 정신장애인들을 즉흥연기 워크숍에 출연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술인들은 신중하게 고민했다. 지난해 한국즉흥극장에서 공연을 훌륭하게 치러내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까닭에 처음부터 '외부인들 앞에 서는 공연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하지만 마을잔치가 다가왔고 예술인들과 정신장애인들은 그동안 서로에게 확인했던 신뢰와 팀워크를 믿으며 공개무대에 도전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실제로 그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성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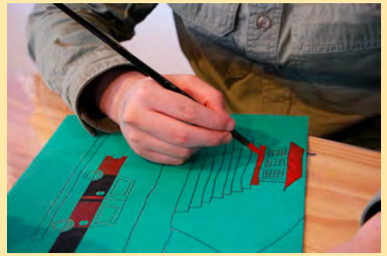
서로 다른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다름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그리 다르지 않음을 깨달으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한국남 배우는 첫 만남을 준비하면서 "모자를 쓰고 가도 될까요?"라고 물었었다. 한국남 배우에게 정신장애인은 처음 접하는 유형의 사람들이었기에 모자를 쓰는 행동 자체가 혹시라도 실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이다. 그런 그가 10월에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우리 같이 즐겨보아요"라고 제안하는 적극성도 갖게 됐다.

다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혀나가면서 생기는 변화들은 사업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고 있다. 참여예술인 모두가 후속활동으로 정신장애인 관련 예술활동을 고민하는 중이다. 우리가 함께 했던 5개월, 이제 우리 예술인들은 베일에 싸여있던 정신장애인들과의 이야기를 풀어낼 준비를 하고 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발판삼아 우리는 다르다는 이유로 공동체 안에 스며들지 못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곳에 예술로 풀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불씨가 차츰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펴 오르기를 기대한다.

방승조 예술인(만화) 제공 _ 동화책 '어느날 갑자기'

예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다

장애와 비장애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은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둘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한다. 그러나 그 경계를 허무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예술이다. 예술 안에서 만큼은 그 경계가 희미해지고 예술을 실행하고 향유하는 사람들로만 나뉠 뿐이다. 그런 까닭에 올해도 노들장애인야학, 주식회사 스페셜아트,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 열손가락서로돌봄사회적협동조합,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희망일터, 카페별꼴 등 다양한 장애 관련 기관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문을 두드렸다. 그중에서 예술로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두꺼운 벽을 허물어 나가는 몇몇 기관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발달장애인이 아닌 예술인으로 바라보다, 주식회사 스페셜아트

헬렌 켈러는 말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게 된다." 장애가 있는 이들은 때로 뛰어난 예술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장애가 무의식을 자극해 예술성을 발휘하게 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그들은 장애라는 사회적 편견에 가둬져 예술인로서의 능력을 오롯이 선보이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회사 스페셜아트는 이러한 발달장애인들의 예술적 가능성을 발굴하고, 주체적 창작자로 육성해 전문작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다.

2016년부터 3년째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함께하고 있는 스페셜아트 김민정 대표는 "발달장애 예술인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고 예술 활동을 선보일 기회도 제한적"이라면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과 교류하면서 발달장애 예술인들이 예술적으로 교감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까지 3년째 참여하면서 예술에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어나가는 작은 경험들을 하고 있다.

올해 스페셜아트와 함께한 노경애 퍼실리테이터, 권용숙(영화), 김문경(문학), 송명규(무용), 이강준(미술) 참여예술인은 다양한 교육과 커뮤니티 프로젝트, 협업 경험 등이 있어 발달장애 예술인들의 작업 영역 확장뿐만 아니라 스페셜아트 예술인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권용숙, 송명규 예술인은 스페셜아트의 이태규, 채이서 작가에게서 받은 느낌을 담아낸 댄스 필름 '소절'이 대표적이다. 송명규 예술인이 몸의 움직임으로 그 느낌을 표현하고 권용숙 예술인이 영상으로 촬영했다. "아름다움 움직임에 멋진 영상 기술이 더해져 한 편의 예술영화처럼 완성되었다"면서 김민정 대표는 감동을 금치 못했다. 권용숙 예술인은 댄스 필름 외에도 스페셜아트 작가들의 '작가성'에 초점을 맞춰 홍보 영상도 제작했다.

스페셜아트 작가들의 예술성을 알리기 위한 참여예술인들의 활동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김문경 예술인은 스페셜아트 작가들의 작업과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어휘를 활용해 그림책을 만들었다. 이강준 예술인은 스페셜아트 권세진 작가의 차를 3D화하는 작업을, 송명규 예술인은 퍼포먼스를 준비해 11월 28일에 시작한 스페셜아트 '어울림' 전시에서 선보였다.

발달장애 작가들의 특징을 표현하고 예술로 담아내는 협업 과정에서 참여예술인들은 "일반적인 시간과 장애 작가들의 특징적인 시간 사이의 대비를 경험함으로써 스스로의 작업 영역 확장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스페셜아트의 이태규 작가는 "몸을 움직이는 게 재미있었어요. 좋은 생각도 많이 났어요"라며 참여예술인들과의 경험이 매우 즐겁고 새로운 경험이었음을 또박또박 이야기했다. 김민정 대표 역시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발달장애 예술인들도 참여예술인들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했다. 꾸준한 예술적 교류를 통해 참여예술인과 발달장애 예술인들은 세상 속으로 함께 한 걸음씩 내딛고 있다. 그러다 보면 사회 속에서 장애 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의 경계도,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도 희미해지지 않을까.

성인기 장애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는 예술, 한스피크

한스피크는 성인기 장애 청년들이 보완대체의사소통(AAC)도구를 제작 및 소개하는 작업소다. 성인기에 접어든 장애청년들 중 많은 수가 학교 졸업 이후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삶을 살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이들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인기 장애청년들의 작업소가 세워진 것이다. 장애청년의 가능성을 높이 생각하며,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제한하지 않는 한스피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상생활 훈련이 부족한 장애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언어적 시각지원 자료를 만들고자 사업에 지원했다. 물론 그 외에 다양한 예술적 활동으로 성인기 장애 청년들이 사회 속에서 관계를 다져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한스피크의 전보형 퍼실리테이터는 기업과 관련된 AAC(보완소통도구)분야의 정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권아람(영화), 노혜란(연극), 유두진(문학), 전세훈(연극), 정용희(연극) 예술인과의 매칭 후 먼저 예술인들과 함께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진행했다. 기업 인근을 탐방하고 기업과 관계된 기관(관공서.상담소 등) 및 관련 사업을 사전 조사했다. 일부는 성미산 마을축제에 참여해 마을의 장애청년과 이들과 함께하는 활동가들의 모습을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각자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술인들은 표현게임, 사진찍기 프로그램, 연극놀이 등 다채로운 협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수많은 아이디어 속에서 활발한 활동이 결과물로 나타났다. 먼저 AAC를 널리 알리는 홍보 영상이 그것. 마포구청 일대에 자리한 중국집, 분식집, 주민센터, 카페 등 AAC 협력업체 10여 곳 중 몇몇 장소를 함께 영상에 담았다. AAC를 활용하는 장애인 박주용 씨의 모습을 필두로 중간에 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 카페 스트라세 사장의 인터뷰가 들어갔고 마지막으로 한선경 센터장의 향후 포부를 담은 인터뷰 내용을 첨가했다. 그렇게 완성된 2분 10초 정도의 영상은 높은 완성도를 자랑했고 AAC 홍보와 더불어 AAC 협력 업체들의 자긍심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그 외에도 AAC 티셔츠를 만들고 언어 또는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댄스파티를 진행해 긍정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지역의 발달장애 청년과 지지자들 모임인 사부작과 함께 더빙 협업도 진행했다. 더빙은 사부작 발달장애인들의 선호 영상을 고려해 뉴스, 영화 예고편, 라이언킹, 스펀지밥 등을 조합해 그 위에 그들의 목소리를 덧입혔다.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작업에 발달장애인들은 즐겁게 더빙에 임했고 좋은 결과물이 완성됐다.

여러 방면으로 진행된 예술활동으로 성인기 장애 청년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서서히 자신감을 채워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앞으로도 이런 과정이 차곡차곡 쌓여나간다면 머지않아 사회와도 어려움 없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을 접목한 투어 프로그램으로 사회에 다가가기,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 및 가족구성원의 역기능적 문제 해결을 돕고 가족의 기능과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인 및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세워진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가족과 함께 장애인이 행복한 수원'이라는 미션과 '고객에게 신뢰받는 센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센터'라는 비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7개의 주요사업을 통해 복지가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2017년 당사자들의 시각으로 모은 정보를 장애인을 위한 지도로 만들어 그들이 살아가는데 이용이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이어 2018년에도 기존의 코스 검증 및 신규 코스의 개발, 그리고 각 분야의 재능을 살려 코스 중에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했다.

이창수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파견된 강효정(연극), 김영환(연극), 김재영(영화), 김혜영(연극), 박대수(미술), 정성태(무용) 예술인은 다양한 활동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센터와 논의를 거쳤다. 센터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여행 코스 개발이었기에 우선 그 부분에 집중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했다. 그 결과, 화성 행궁을 중심으로 산재된 다양한 문화시설을 활용해, 정신 장애인에 특화한 여행문화 예술 프로그램이 완성됐다.

코스로 제안한 아이디어 중 총 4시간에 걸쳐 이어지는 '애정을 높이는 혜경궁 홍씨 여행코스'가 가장 먼저 완성돼 시연에 들어갔다. 화성행궁주차장 - 인형극단 방문과 인형극 관람 - 수원 전통문화원 - 장안문 - 화홍문 - 방화수류정 - 보리회관을 잇는 코스였다. 중간 중간 참여예술인들은 예술을 가미한 활동 프로그램을 적절히 녹여냈다.

곧 시작될 여행에 대한 설렘을 선사하는 사전 만남 프로그램으로 김혜영, 강효정 예술인은 인형극 만들기를 진행했다. 김성환 예술인은 장안문에서 연극 놀이의 요소를 활용해 공항 출입국 심사처럼 성문을 출입하기 위한 신원 조회 형식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박대수 예술인은 경치가 아름다운 용연 곳곳에 숨겨둔 흥미로운 보물을 찾는 보물찾기 프로그램을, 정성태 예술인은 방화수류정에서 한 마리 나비처럼 노닐어보는 게임을 하고 정자의 이름과 유래에 대해 설명을 듣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끝으로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마무리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을 보고 투어에 참가한 장애인 학생들도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자 한 것.

예술을 접목해 개발한 이번 투어 프로그램은 수원시 장애인 학급의 다양한 여가 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인근 도시의 장애인 학급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장애 학우들이 활동적인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적 접촉을 늘려 그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 비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예술로 장애인의 인권을 알리다,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차별 및 인권 상담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를 지원한다.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는 효과적으로 장애 인식 개선 운동에 앞장서고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문을 두드렸다.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대표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이나 새로운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도들과 활동을 함께하고 싶었다"면서 참여 동기를 전했다.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에 매칭된 김수정 퍼실리테이터와 김영미(연극), 이아람(미술), 장재경(미술) 예술인은 파견 활동 기간이 길지 않아 모든 니즈를 완벽히 예술로 구현해낼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풀어낼 수 있도록 작업 방향을 설정했다. 이아람 예술인은 지난해 진행한 감정카드를 더 발전시키는 작업을 했다. 15개를 만들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가능하면 50장 정도로 분량을 늘리고, 감정을 좀 더 다양하게 표현했다. 풍부한 표정을 위해 연극을 하는 김영미 예술인이 모델로 협업해주었다.

김영미 예술인은 김수정 퍼실리테이터와 협업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스토리 펀딩 '장애인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그림카드'와 인권영화제 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장재경 예술인은 장애인의 일상, 인식 개선, 인권의 한 부분을 보여 줄 수 있는 내용으로 플립북을 제작했다.

센터장은 "작가들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센터에서 바랐던 '장애 인권 인식 개선'은 이미 충족한 것 같다"면서 만족을 표했다. 또한 "스토리펀딩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이런 기관의 협조적이고 존중을 표하는 태도는 예술인들로 하여금 활동에 더욱 열정을 더하게 했다.

날씨 문제로 인권영화제에서 하려던 행사는 진행하지 못했고 플립북은 인쇄물로 만들고 싶었지만 프린트 비용이나 인쇄비 청구에 어려움이 있어 드로잉 파일 형태로만 센터에 제공했다. 처음 계획한 대로 마치지는 못 했지만 장애인 인권을 조금이나마 세상에 알리는 데 예술로서 힘을 보탰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협업이었다.

인권영화제 홍보동영상

장재경(미술)의
'수어-안녕하세요'

그들의 삶을 기록하는 예술의 다양한 방식,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인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권리마저 쉽사리 누리지 못하며 척박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에게 제한되어 온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확대해나가기 위해 1993년 노들장애인야간학교가 개교했다. 이들은 중증 장애인 학생들의 수업은 물론 삶 전반을 함께하며 '자립'을 돕는다. 그리고 올해, 예술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변화된 그들의 일상을 기록하고자 했다.

김준성 퍼실리테이터가 매칭이 되면서부터 협업은 이미 시작됐다. 그는 노들야학에 오는 학생들이 아프리카 음악에 맞춰 다양한 움직임을 표현하는 모습을 담았고, 4월에는 추모제 활동도 기록으로 남겼다. 이후 기업의 니즈에 맞는 영상 및 시각 작업을 하는 류형석(영화), 박은영(미술), 조재홍(미술) 세 명의 예술인과 매칭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창조적인 형태의 기록 협업이 이어졌다.

첫 번째는 기록에 관한 프로젝트였다. 김준성 퍼실리테이터와 류형석 예술인이 협업해 사진과 영상을 중심으로 노들 장애인 야학의 수업과 행사를 아카이브 할 수 있도록 기록했다.

두 번째로 노들 음악대 수업에 연계해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조재홍, 박은영 예술인이 협업해 노들 음악대와 함께 노들 장애인 야학을 나타내는 음악을 만든 후, 이를 청각으로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뮤직 비디오를 제작해 시각화했다.

류형석(영화)의
증명사진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모든 참여예술인이 협업해 증명사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노들 장애인 야학의 학생들의 증명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활용해 학생증 등을 만드는 형태로 결과물을 확장했다.

노들장애인야학 학생들의 소중한 하루하루를 기록하고자 했던 기업의 니즈는 기대 이상으로 충족됐다. 예술적인 고민이 더해진 덕에 단순히 행사를 사진으로 촬영해 남기는 것 이상으로 더욱 풍성한 기록이 남을 수 있었다.

이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으로 예술인들은 스스로의 작업적 재능이 많은 장애인에게 삶의 기쁨이 되어주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다. 그리고 보통의 우리들에게는 흔한 일상인 일들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에게는 삶의 다채로움을 경험하는 작은 선물이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예술의 옷을 입은 나눔과 순환의 가치

글_ **류미현** 퍼실리테이터

거리를 걷다 보면 종종 아름다운가게를 만나게 된다. 트레이드마크인 초록색 심벌이 보이면 살 게 없는데도 가끔 가게 안에 들어가 구경하곤 했다.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특히 동숭동에 있던 아름다운가게 헌책방은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하듯 꼭 들르는 곳이었다. 그래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매칭기업 목록에서 '아름다운가게'를 발견했을 때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었다. 그리고 다행히 그 마음이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졌고, 6개월간 아름다운가게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게 됐다.

아름다운가게는 올해 처음으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그런 만큼 예술인들과의 만남에 기관 담당자들은 굉장히 설레했고, 협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처음에 그들은 예술인들과 함께 신사옥 옥상에 벽화 작업을 진행하고 싶어 했다. 아름다운가게 구성원과 예술인이 함께 기관의 가치관을 담은 벽화를 그리고, 그 공간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벽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예술인들이 매칭 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기에 아름다운가게에서도 그 사실을 이해하고 좀 더 넓은 범위의 협업 과제를 생각하기로 했다. 기업이 단순히 자신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사업으로 여기지 않고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사업이 지닌 가치를 고려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협업 방향을 틀면서 아름다운가게는 예술인들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존중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을 '서로에 대한 이해'로 잡았다. 기관에서는 예술인들과 그들의 작업을 경험해보고 이를 아름다운가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그리고 예술인들은 5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 아름다운가게의 가치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우리들의 프로젝트는 아름다운가게를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됐다. 아름다운가게에서는 단순히 매장 운영뿐 아니라 나눔교육, 업사이클링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아름다운가게의 사업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기증된 물건이 모여 재분류되고 매장으로 이동되는 물류센터 역할을 하는 '되살림터(그물코센터)'를 견학해보기도 했고, 인디 밴드들이 공연을 하고 그 수익금을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동 및 퇴소 청소년에게 기부하는 '희망발전소'를 돌아보기도 했으며, 아름다운가게에서 공동주최하는 위아자 바자회에 참여해보기도 하였다. 여러 활동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는 지금껏 잘 모르고 있었던 아름다운가게의 다양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 중 우리가 프로젝트의 메인 콘셉트로 잡은 것은 바로 에코 파티 메아리(2006년 아름다운가게에서 론칭한 국내 최초 리사이클 디자인 제품 브랜드)의 마스코트, '릴라씨'였다. 릴라씨는 환경파괴로 멸종 위기에 놓인 고릴라를 모티브로 탄생한 인형인데, 작아서 입지 못하는 티셔츠나 자투리 원단을 깨끗이 세탁하고 여기에 디자인을 더해 재탄생된 캐릭터였다. 예술인들은 직접 릴라씨를 만들어보기도 하면서, 각자의 방법으로 릴라씨를 통한 아름다운가게의 이야기를 펼쳐나갔다. 문지욱 예술인(만화)은 릴라씨가 주인공인 나눔교육 워크북을 작업하였고, 김혜윰 예술인(연극)은 릴라씨를 통한 연극 놀이를 구상하였다. 김수영 예술인(미술)은 캔버스 원단과 아름다운가게에 기증된 수채화 물감으로 '무지개 릴라씨'라는 조형물을 만들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들에게 아름다운가게의 릴라씨는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었다. 알고 있었으나 실천하지 못했던, 혹은 그냥 스쳐 지나갔던 기증이나 기부, 나눔 그리고 리사이클링 등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첫걸음'이었다. 아름다운가게 역시 예술인들의 작업을 통해 릴라씨의 새로운 모습을 마주볼 수 있었고, 예술을 통해 릴라씨의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예술을 통해 아름다운가게의 가치관과 활동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해보고 싶다 했다.

올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지만, 아름다운가게와 예술인들의 진정한 협업은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려운 처음의 물꼬를 틔웠으니, 기관도 예술인도 일정 기간 협업 경험을 했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경험을 더 폭넓게 발전시키며 성장해나갈 테니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가한 모든 기관과 예술인들이 다 그러하지 않을까? 비단 아름다운가게뿐만이 아닐 것이다. 자신과 다른 입장에 있는 공동체를 이해하고 함께 사는 사회에 따뜻하고 아름다운 예술의 옷을 입히는 일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이름 아래 지난 5년간 삶 곳곳에서 계속되어 왔지 않은가. 이미 변화는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예술, 새활용의 가치를 높이다

리사이클이나 업사이클 기업들은 제한적인 자원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도모해 우리 사회의 생태적 환경의 변화를 추구한다. 단순히 다시 한 번 쓰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해 가치를 높인 '새활용'인 것이다. 그러나 그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다. 다음에 소개할 세 기업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들과 함께 예술적 시각을 접목한 프로젝트로 우리 삶에 사용된 자원의 새로운 활용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널리 퍼트리고자 했다.

문해주(미술)의
'깡통로봇에게 에너지를 2018'

이동주(영화)의
'We Cycle Bin 2018'

이승주(사진)의
'마음 속에 저장'

예술을 만나 '창의적'으로 변신한 업사이클, 주식회사 터치포굿

버려지는 자원과 버리는 마음을 터치하는 사회적기업 터치포굿. 짧게 쓰이고 버려지는 자원이 낳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쉽게 버리는 습관 안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무관심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으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지만 그와 더불어 진정성까지 녹여낸 친환경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

올해 터치포굿과 참여예술인들이 함께 할 주요 협업 프로젝트로 논의된 것은 9월 5일,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 1주년을 맞아 선보일 '새활용 놀이터' 프로젝트. 터치포굿에서 2층 교육장 리모델링을 맡은 터라 여기에 함께할 창의적인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터치포굿 담당자는 "기업의 의견을 이해해주시고 예술인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다양하게 설명해주어 감사했다. 앞으로의 협업에 기대가 크다"면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매칭된 예술인들, 문해주(설치미술), 이동주(영화), 이승주(사진) 씨도 업사이클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까닭에 향후 진행될 협업에 기대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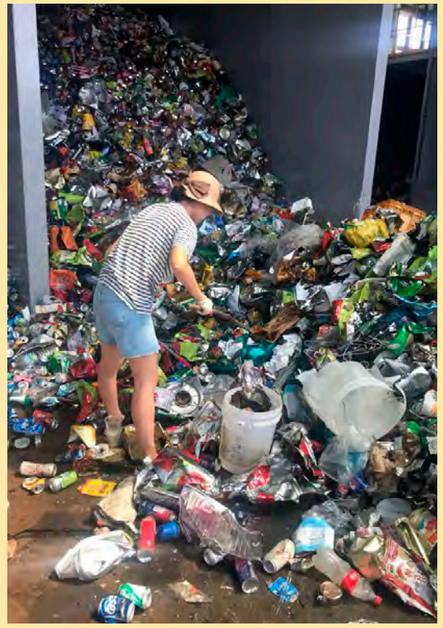
서울새활용플라자 방문과 리서치 작업, 혁신센터 방문 등으로 터치포굿의 업사이클 사업 방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세부적인 작품 구성과 제작을 빠르게 시작했다. 업사이클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다양성, 일반 제품과는 다른 업사이클 제품만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문해주 예술인은 여러 가지 재활용 재료를 활용해 '깡통로봇에게 에너지를 2018'을 만들었다. 캔버스에 드로잉을 하듯 아이들은 놀이에 참여하며 다양한 재활용 소재의 촉감과 색을 직접 체험하게 한 것. 이동주 예술인은 리사이클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재활용 휴지통을 제작했다. 시청각을 활용해 만든 교육용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부모와 함께 아이들이 재활용 분류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이승주 예술인은 가족이 함께 재활용품으로 벽면을 꾸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재활용이 가능한 사물들에 자석을 붙이고 철로 만든 벽에 그것들을 붙이면서 저마다의 공간을 꾸미게 한 것. 그리고 그 앞에서 자유롭게 촬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예술인들의 작품은 터치포굿은 물론 디자인재단과 새활용플라자에서 가장 좋아하는 설치물이 돼 별도로 작품 계약까지 마쳤다. 또한 새활용 놀이터에 설치한 작품은 만지고 체험하면서 업사이클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고장이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래서 예술인들은 향후에도 작품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매뉴얼까지 만들어 전달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일환이었지만 업사이클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인들은 나부터 쓰레기를 줄이고 생활 속에서 재활용을 실천해야겠다는 진지한 고민들을 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이 아니었다면 겪어보지 못할 경험이었다는 것.

업사이클 제품만으로 대중에게 업사이클의 의미를 인식시키기에는 보이지 않는 한계가 늘 존재했는데 이번 예술인들과의 보다 창의적인 협업 작품들로 그 틀을 조금은 깰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대중들이 업사이클을 그저 사용한 물건을 다시 한 번 쓴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인식할 수 있는 첫 단추가 꿰어진 것이다.



왼쪽부터 서민정, 왕희정, 임영우, 강동형

예술적 재발견으로 다시 태어난 일상의 물건들, (주)하이사이클

일상 속 물건의 예술적 재발견을 통해 사물의 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자원순환의 가치와 윤리적 소비의식을 넓히는 영향력 있는 환경 문화 디자인 프로젝트 그룹이 되고자 하는 하이사이클. 현대인들에게 밥보다 더 친근한 커피, 그러한 커피산업에서 소비되고 버려지는 것들의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만들어진 다듬:이(Dadum:e)와 커피 팟(Coffee pot), 사람과 자연, 동물이 함께 살아가며 겪는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같이'의 가치를 높이는 상생을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진 마음:이(maum:e)가 업사이클을 통해 많은 환경적, 사회적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하이사이클이 만든 업사이클 브랜드다.

이 기업은 지향점에서부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맞닿아 있다. 예술적 재발견을 통해 가치를 높이고, 그것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산해나가려 하는 것. 올해 하이사이클은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생활 속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업사이클에 대한 인식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했고 그 작업에는 다양한 예술인의 개성이 녹아날 수 있기를 바랐다.

기업에 대한 이해는 물론 업사이클에 대한 리서치 과정을 거쳐 참여예술인들은 저마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녹아난 다채로운 작업을 선보였다.

먼저 새활용플라자 카페 '자리'에서 매달 진행했던 하이사이클 제품의 상설전 디스플레이도 예술적 감각을 덧입혀 제품 생산과정과 그 가치가 시각화 돼 소비자가 업사이클 제품의 진정한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했다.

또한 서민정(미술) 예술인을 중심으로 임영우(연극), 강동형(미술) 참여예술인은 함께 커피산업 폐기물을 업사이클링한 제품과 그 활동을 담은 영상 '빨대로 공중정원'을 제작해 10월에 개최됐던 에너지대전에서 상영되며 많은 참가자들에게 업사이클링에 대한 인식을 한 번 더 각인시켜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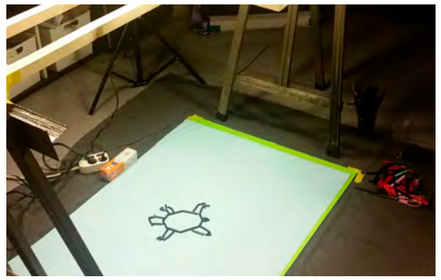
임영우(연극)의
하이사이클 소개 영상

강동형 예술인을 중심으로 영상물 시작이나 끝부분에 들어가 기업 인지도를 높여줄 수 있는 하이사이클 시그널도 제작했다. 협업 과정에서 시그널의 필요성을 느낀 예술인들이 기업 로고와 함께 시그널까지 제작해 영상물의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던 것. 하이사이클의 대표적 제품 소재인 황마를 활용한다든가, 시그널 음향으로 원두 떨어지는 소리를 넣는다든가, 하이사이클 제품을 원테이크로 촬영하면 어떨지 논의하는 등 예술인들은 짧은 시그널 하나를 제작하는 데도 열정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두세 가지 샘플을 제작해보며 최적의 시그널을 탄생시켰다.

아직은 업사이클이라는 개념 자체를 대중이 절실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이사이클과 예술인들의 만남으로 탄생한 신선한 작업물은 가랑비에 옷이 살며시 젖어 들어가듯 대중의 마음속에 업사이클이라는 개념을 스며들게 할 것이다.

서민정(미술)의
'빨대로 공중정원'

예술, 새로 봄 다시 봄



조인한(미술)의
김지영(연극) 활동 촬영 영상

조인한(미술)의
이빛나(미술) 활동 촬영 영상

활용 가능한 소재로서의 '쓰레기'를 논하다, 져스트프로젝트

소재로써의 쓰레기를 연구하고, 제품으로 개발하는 일에 대한 전시 및 프로모션 기획을 하는 져스트프로젝트. 쉽게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소재로 제품을 만들고, 공간을 꾸미는 등의 일도 그중 하나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재는 헌 티셔츠, 비닐쓰레기, 일회용 빨대, 신문지, 현수막 등이지만, 퀄리티가 높고,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양산할 수 있는 리사이클 제품을 개발 및 진행 중이며, 기업, 단체,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적인 소재 개발과 더불어 리사이클 관련 콘텐츠도 개발하고 있다.

기존의 리사이클 회사들이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방식에 큰 차이가 없어 좀 더 특색 있는 모습으로 소비자에게 다가서고 싶었다는 이영연 대표는 참여예술인들과의 협업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협업을 진행하되 예술인 개개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작업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랐다.

그 결과 김지영(미술), 이빛나(미술), 조인한(미술) 참여예술인들은 기업의 비전과 리사이클 홍보에 도움이 될 만한 작업을 전시 형태로 선보이면 어떨지 제안했다. 플라스틱이라는 물성을 소재로 작업하는 김지영 예술인은 쓰레기와 빛을 결합한 아이디어를, 이빛나 예술인은 쓰레기를 화보로 그려보는 아이디어를, 조인한 예술인은 쓰레기를 소재로 기업 홍보 티저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예술인들은 제안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7월부터 전시를 시작했다. 첫 주자는 김지영 예술인. 그녀는 쓰레기와 빛을 활용해 기업의 테마와 잘 어우러진 작품을 선보였다. 꽤 긴 기간, 로드 갤러리에 설치됐기에 오가는 많은 사람이 관람하고 작품의 의미를 통해 리사이클을 떠올려 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빛나 예술인은 바비인형을 콘셉트로 해 회사의 시그니처 제품 재료인 빨대, 헌옷, 과자봉지를 각각의 사진 컷으로 촬영하고 리터치를 가해 져스트프로젝트 쇼룸에서 전시했다. 해당 기업이 쓰레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를 수집해 다시 상품으로 재생산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 그리고 바비인형을 통해 수집과 강박증, 인간 존재를 해석하려는 이빛나 예술인의 생각이 콘셉트적으로 맞닿아 있어 더욱 의미 있던 전시였다.

조인한 예술인은 티저 영상 작업과 더불어 쓰레기를 주제로 아날로그 필름을 이용해 브랜드 티저 영상물을 제작했다. 그러나 쓰레기하면 흔히 떠올리는 환경과의 연계성이나 그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는 영상을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물질로서 쓰레기가 어떻게 화학작용을 하는지, 소재의 가치에 보다 집중해 기업이 대중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담았다.

협업을 마치며 져스트프로젝트의 이영연 대표는 "기존에 늘 하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쓰레기라는 소재에 대해 알릴 수 있었던 기회였다"면서 "다양한 채널로 결과물을 선보여준 예술인들 덕분에 매우 재미있고 뜻깊은 협업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협업으로 예술인들의 작품을 접한 대중들은 쓰레기를 쓸모없는 것, 버려진 것이 아닌 재미있고 유쾌하며 일상에서 누구든 활용 가능한 매력적인 소재라고 조금이나마 인식하게 됐으리라 생각된다.

예술 짓는 책방, 동네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예술

글_ 대륙서점 **정희성** 퍼실리테이터

저녁 7시, 어스름이 깔리고 사람들로 북적이던 시장도 한산해지는 시각. 상도동 성대시장 골목에 위치한 대륙서점에는 불이 환하게 켜지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든다.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대륙서점의 '예술 짓는 책방'이 열리는 까닭이다. 예술인들은 동네 빵집에서 사온 빵을 펼쳐놓고 책방에 온 사람들과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눈다. 예술이 뭐 별건가? 예술은 이렇게 서로 만나서 함께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예술 짓는 책방'은 김보람 다큐멘터리 감독의 〈지금 찍으러 갑니다!〉, 연극배우 이은아 예술인의 〈달콤 쌉싸름한 리딩〉, 공연 기획자인 지성은 예술인의 〈하루키 듣는 밤〉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매주 대륙서점의 고객들 혹은 동네주민들과 함께 만났다.

〈지금 찍으러 갑니다!〉는 좋아하는 시나 에세이, 혹은 잔잔한 일상의 얘기들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보는 프로그램이다. 〈달콤 쌉싸름한 리딩〉은 고전 희곡에서부터 TV드라마 까지 삶의 맛을 담아낸 여러 가지 대본들을 참여자들과 함께 읽어보는 프로그램이며 〈하루키 듣는 밤〉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들을 선정해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와 음악에 대한 해설을 들려주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받는 날에는 길게는 반나절, 짧게는 몇 시간만에도 마감이 된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당일에는 동네의 자그마한 서점이 예술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로 가득 찬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참여했든, 문화에 대한 알 수 없는 갈증으로 참가하게 됐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의 태도는 매우 진지하고 열성적이다.

'예술 짓는 책방' 프로그램이 매번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그리고 얻은 결론은 하나, 바로 누구나 손쉽게 참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리라. 굳이 힘들게 강남이나 홍대처럼 멀리 떨어진 지역을 찾아갈 필요 없이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이런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동네 주민들에게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간 게 아닌가 싶다. 사실 많은 사람이 예술의 존재를 멀게만 느끼는 이유도 접할 기회가 많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일 테니까.

그동안 대륙서점은 이미 수많은 예술적 행사들을 진행해왔다. 고정으로 참여하는 고객층도 많은 편이다. 하지만 책과 관련된 행사들이 대부분이었고 늘 오는 사람들만 거의 지속적으로 참여했다고 대표님은 말한다. 그래서 이번 '예술 짓는 책방'으로 확실히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것 같다고 하셨다.

그동안 하고 싶었으나 네트워크가 없어서 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된 점이 그렇고, 그동안의 행사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참여자들 혹은 지역주민들과 만나게 된 점이 그렇다고 하셨다. 희곡읽기 모임이라든지, 스마트폰으로 영화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은 분명한 니즈가 있었음에도 인력풀이 없어서 해보지 못 했는데 '예술 짓는 책방'을 통해 시도해 볼 수 있게 됐다면서 좋아하셨다. 대륙서점이 올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서 단순히 동네의 작은 서점이 아니라 주민들이 좀 더 다양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발돋움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더 뿌듯한 점은, 우리가 기획하고 진행한 프로그램 중 〈하루키 듣는 밤〉이 좋은 반응을 얻어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종로구에 있는 정독도서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해주셨던 것.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티켓이 오픈되자마자 40석, 3회 분량이 전부 매진됐다고 한다. 예술이 가진 파급력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요즘 동네서점은 단순히 책을 사고파는 역할을 넘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달라진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책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팔고, 특색 있는 소모임을 만들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대륙서점도 오래전부터 동네 사랑방이자 복합 문화 공간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런 따뜻한 문화 나눔터에 올해 우리 예술인들이 파견되어 지역문화에 더욱 생기를 불어넣고, 대륙서점이 문화를 즐기는 플랫폼으로 커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업이 종료된 지금까지도 마음이 벅차다.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이 앞으로도 제 몫을 충분히 해 이런 변화들을 더 많은 곳에서 만들어낼 수 있기를, 그래서 이런 벅참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조용히 바라본다.

지성은(음악)의 '하루키 듣는 밤'

김보람(영화)의 '지금 찍으러 갑니다'

이은아(연극)의 '달콤 쌉싸름한 리딩'

동네 책방에 피어나는 예술의 향기

동네의 작은 서점들은 더 이상 책을 파는 곳으로서만 기능하지 않는다. 다채로운 방식으로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더불어 동네의 문화를 향유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 그래서 다양한 장르 예술인과의 만남이 동네 서점에는 그들의 존재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 올해 대륙서점을 비롯해 책방73걸음, 올오어낫싱, 사단법인 서울산책 등 다양한 지역의 서점이 예술인과의 협업을 희망했다.동네 서점으로 간 예술인들은 과연 이런 변화의 단계에서 어떤 협업 시너지를 일궈내며 예술의 가치를 확장해나가고 있을까?

책을 매개로 한 복합문화공간이 되다, 사단법인 서울산책

사단법인 서울산책은 본래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만들고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며, 다양하고 풍성한 도시의 풍경과 행복한 삶을 만드는 활동을 펼치는 곳이다.

2018년 봄, 책을 매개로 생각을 나누고 제안하는 복합문화공간 '북스테이션 서울' 오픈을 준비하며 도시와 예술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고자 했다. 서울산책 측은 "다양한 도시의 모습을 보는 방법, 변화하는 도시를 기록하고, 질문을 던지는 새로운 상상을 예술인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고 사업에 참여한 이유를 설명했다.

책방 북스테이션이 수익을 내야하는 서점이 아닌 '공동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임현진 퍼실리테이터와 장수영(영화), 조은하(미술), 한윤미(연극) 예술인은 서점과 도시, 책 문화에 관한 자료를 리서치하며 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 고민했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나눴다. 책방 오픈을 알리는 북스테이션 서울 '팝업 책방', 워크숍 형식의 프로그램 '먼데이 라운지' 등이 그 결과물이다.

팝업 책방으로는 북스테이션 서울의 시작을 알리고, 기본적인 기획 방향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또한 먼데이 라운지라는 이름의 워크숍은 북스테이션 서울이 공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나아가는 첫 걸음이었다. 사회가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과 기준, 도시의 생김새와 도시살이의 방식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들,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였다. 생각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브라렛 등 직접 손을 써 만들어보는 활동적인 요소까지 더해 재미와 의미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장수영 예술인은 서울이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인터뷰해 '서울로'라는 다큐멘터리에 담았다. 서울에 사는 이들의 모든 목소리를 담을 수는 없지만, 기억 속에 존재하는 서울과 지금을 사는 우리들 사이의 간극을 잠시나마 들여다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사단법인 서울산책은 이번 협업으로 새로 오픈한 도시 전문 서점 북스테이션 서울이 지금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도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공동의 플랫폼으로 나아가는 데 든든한 첫 걸음을 뗄 수 있었다.

장수영(영화)의
'서울로' 영상

당신도 작가가 될 수 있어요, 한양문고 주엽점

고양시 대표 지역서점 한양문고는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거점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서점이 단순히 책을 사고파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동네 사랑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실천하고 있는 것. 한양문고 측은 서점이 여러 가지 교류가 일어나는 동네 사랑방이기를 바라면서도 서점으로서 '책'이라는 중심은 잃지 않기를 바랐다.

박채란 퍼실리테이터와 김휘리(미술), 백은영(미술), 하정훈(문학) 예술인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을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고객들도 작가가 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세 명의 예술인은 세 개의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모든 프로그램을 〈모두의 연필〉이라는 이름의 대형 프로젝트로 묶었다.

기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휘리 예술인은 글을 함께 쓰고 함께 완성하는 경험에 초점을 둔 '릴레이 글쓰기'를, 백은영 예술인은 버려지는 물건인 영수증을 하나의 캔버스로 삼고 그것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변화하는 벽을 만들어내는 '영수증 드로잉'을, 하정훈 예술인은 일상적이지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이 하나의 책으로 완성되는 방식인 '이야기 방명록'을 진행했다.

그리고 김휘리 예술인은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과연 누가 참여해줄까?', '글을 남기는 데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다"면서 "하지만 막상 시작하니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주고 참여해주어 뿌듯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실제로 서점에 방문한 40대 고객 중 한 사람은 영수증 벽에 대해 어떤 느낌인지를 묻자 "영수증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 자체를 본 적이 없어 신기했다"면서 "그림 수준을 떠나서 평범한 고객들의 다양한 그림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흥미로운 경험"인 것 같다고 대답했다. 예술인들의 프로그램이 일반인에게도 매력적으로 느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정훈 예술인의 '이야기 방명록' 역시 의미 있는 결과를 끌어냈다.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고객들은 방명록을 보고 자신의 속내를 진솔하게 표현했다.

그 성과와 의미를 인정받아 〈모두의 연필〉 팀은 경기문화재단 북부사업단에서 하는 지역예술활성화 사업에도 선정돼 2018년 11월부터 2월까지 한양문고에서 계속 활동하게 됐다. 기존에 해왔던 프로젝트를 보완하여 계속해서 책과 지연주민의 연결점을 예술적으로 발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예술인들은 어렵지 않은 방식, 일상적인 도구의 활용만으로 고객에게 작가가 되는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예술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고객들 역시 일상에서 충분히 예술을 향유할 수 있음을 깨닫고 예술과의 거리를 한층 좁힐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모두가 예술을 누리는 공간, 올오어낫싱

금천구 내 유일한 정통 서점 올오어낫싱. 개성 있는 주류 출판물 및 독립출판물 위주로 비치돼 있다. 금천구민의 독서 증진 및 문화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만들어진 서점으로 지역작가(지역거주 창작가, 예술인)들의 작품 활동도 폭넓게 지원하고자 한다.

올오어낫싱에서는 금천구에 위치한 '모두의 학교'에서 진행될 독립출판 서적을 주인공으로 하는 전시회에서 참여예술인들과 그 전시회의 테마가 드러날 수 있는 예술 작업을 함께하기를 원했다.

신지영 퍼실리테이터와 김지원(미술), 박미라(미술), 유광근(미술) 참여예술인은 책을 이야기하는 공간과 지역민을 품은 도시를 표현하는 전시를 준비했다.

젠트리피테이션과 그에 따른 도시 재생에 관한 이야기를 각각의 결로 담아내기로 했다. 유광근 예술인은 그래픽 노블로 도시 재생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처음에는 흑백으로 진행했다가 나중에 컬러를 추가하면서 다른 두 예술인과는 또다른 이야기를 하는 듯한 신선함을 주었다. 박미라 예술인은 싱크홀을 주제로 연작을 준비했는데 한 공간에서 여러 시간대의 이야기가 겹쳐지는 구성으로 드로잉을 흥미롭게 풀어내 우화적인 느낌을 주었다. 김지원 예술인은 젠트리피케이션에 주목해 기존의 도시와 관련된 설치 작업을 재구성했다. 탁본 형태로 구성돼 색다른 느낌을 주는 전시가 완성됐다.

예술인들은 모두의 학교 전시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했다. 전시만 덩그러니 하는 것보다 공연과 토크도 함께 하면 분위기가 더 좋을 듯해 직접 건의를 하기도 했다. 모두의 학교 측에서도 좋다고 해 당일 전시는 물론 지역의 문화와 연계한 도시,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등의 담론을 나눌 수 있는 자리와 몽구스 밴드의 공연까지 마련됐다.

2018년 올오어낫싱과 참여예술인의 협업은 단순히 서점이라는 공간과 예술인이 만나 창의적인 무언가를 도모했다는 것 이상으로 예술인이 예술을 매개로 지역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이었다는 것, 여기에 더 큰 의의가 있다. 동네의 작은 서점에서 시작된 예술인들의 움직임이 지역 내에서 더 크게 확장하며 모두가 예술을 꿈꾸고 누릴 수 있는 터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미술로 그려낸 동네 책방 이야기, 마리서사

마리서사는 사람과 사람의 협업으로 책문화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동네 책방이다. 지역문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인문학을 꿈꾸며 2017년 설립됐다. 이미 지역의 특색을 살린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전개하며 특색 있는 지역의 소소한 동네 책방 문화를 정착해나가고 있다. 마리서사 측은 "예술인과의 협업으로 조직문화 개선, 직원 역량 강화, 예술적 개입이 더해진 홍보 등을 기대"하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발을 들였다.

마리서사에 매칭된 서진옥 퍼실리테이터와 미술 작업을 하는 김판묵 예술인은 마리서사의 니즈를 심도 있게 고민해나갔다. 두 사람은 다양한 사전 조사와 마리서사 대표, 그리고 고객과의 논의를 통해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은 이미 상당 부분 소비된 터라 새로울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마리서사의 정체성인 '책'을 통해 좀 더 특별한 예술상품을 기획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특별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게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김판묵 예술인은 개인 작업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마리서사와 마리서사 선정 우수 도서 목록을 아우르는 이미지 콘텐츠를 만들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 이었지만 문학과 시각예술의 만남을 통해 재미있는 그림 동화책을 보듯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으로 또 다른 문화 콘텐츠가 생산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런 작업들은 마리서사 오픈 1주년 기념행사에서 공간을 연출하는 작품으로 선보이기도 했으며 마리서사가 프로그램 초반부터 이야기해왔던 책과 소비자 그리고 마리서사라는 공간 사이 소통의 연결고리가 됐다. 또한 책이라는 매체를 응용한 특별한 예술상품을 기획해 지역주민들과 관광객에게 특별한 문화예술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작업한 이미지 콘텐츠를 더한 굿즈도 제작했다. 마리서사만의 스토리를 느낄 수 있는 이미지를 위해 고민하던 중 박인환 시인과 김수영 시인의 이야기를 알게 된 김판묵 예술인은 이들을 중심으로 한 이미지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했다.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초상권 등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지만 미술의 언어로 문학의 집약체인 마리서사만의 특징을 표현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마리서사에서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적 협업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예술의 변화·발전을 유도하고 지역민 혹은 지역민과 관광객 간 자연스러운 소통의 경험이 발생하도록 돕는 유의미한 과정과 성과를 만들어냄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책방 가는 길, 행복한책방

독자들이 좋은 책을 새롭게 발견하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복한책방. 아이부터 노인까지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는 공간이 되기를 꿈꾼다. 이런 바람을 지닌 행복한 책방 대표는 "사람들에게 책방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영상물, 스토리텔링이 담긴 책방 굿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예술인과 함께 만들고자 했다"면서 "이를 통해 행복한 책방이 책을 중심으로 교류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랐다"고 사업에 참여한 이유를 설명했다.

신혜정 퍼실리테이터와 구휘(미술), 김효관(영화), 전귀언(음악) 예술인은 이미 책방에서 진행되고 있던 다양한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고객층도 파악하고, 다른 책방도 답사하면서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해나갈 수 있을지 살폈다.

예술인들은 우선 방학을 맞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 워크숍을 진행했다. '함께 걸을까, 행복한책방 가는 길', '책방 가즈아, 우리 동네 지도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2회에 걸쳐 진행한 워크숍은 지역 내 세 곳의 다른 장소에서부터 행복한 책방까지 오는 길에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했고, 두 번째로 먼저 첫 워크숍에서 동네를 탐방한 경험을 살려 티셔츠에 지도를 그려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내가 사는 동네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동네 사랑방 같은 책방으로 가는 길까지 몸으로 기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워크숍이었다.

또한 예술인들은 지역 주민들이 책방으로 오는 길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책방 주변의 지도를 그리고 책방까지 찾아오는 길을 영상으로 제작하기로 했다.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김효관 예술인, 미술 작업을 하는 구휘 예술인, 음악 작업을 하는 전귀언 예술인으로 구성된 행복한 책방 협업팀답게 각자의 능력을 십분 살릴 수 있는 활동이었다. 전귀언 예술인은 독서 모임의 학생들이 만든 행복한 책방이라는 악보를 활용해 책방의 테마 음원을 제작했다. 책방 홍보 영상의 흐름을 잡아줄 시나리오 작업은 김효관 예술인이 담당했고 영상에 삽입될 지도와 흥미로운 팝업물은 구휘 예술인이 담당했다. 기업에서도 책방과 관련된 곰인형을 영상의 주인공으로 하면 어떻겠는지, 시나리오의 대략적인 개요는 어떠했으면 하는지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건네며 협업에 참여했다.

이번 협업의 흥미로운 지점은 지역 주민의 참여로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데 있다. 두 명의 어린이가 홍보 영상에 주인공으로 등장했고, 다른 어린이들이 행복한 책방의 테마 송인 '책방송(Song)' 음원 녹음에도 참여했다. 단순히 기업과 예술인이 만나 협업을 진행하고 목표 타깃에게 전달하고 나누는 형태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지역의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협업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만들었다. 행복한 책방의 김경리 점장 역시 협업의 과정과 성과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만남이었다고 전했다.

"제가 이 사업을 알고 신청한 게 아니라서 초반에는 이해도 부족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행복한책방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협업의 이벤트 하나, 하나를 함께 만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2018년 행복한책방에서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기업과 예술인의 만남으로 예술의 향기를 우리의 삶 곳곳에 피워내고자 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기본 취지가 자연스럽게 구현된 성공적 협업 사례가 아닐까?

망고서림, 우사단 능선으로부터 책을 넘어 망고즙액 흘리기

글_**김남수** 전문위원(무용 평론가 & 미술계 연구기획자)

#1.

어둠이 깔리는 무렵, 우사단로 위를 걷는 것은 작은 즐거움 중에 하나다. 사람들도 아는지 대낮 동안 가게문을 기웃거리던 사람들이 드물었던 것도 잠시, 이내 낯설음과 수줍음을 넘어서 문을 열고 드나든다. 무엇보다 땅거미가 지는 시간은 도깨비 시장에서 이슬람 사원까지 하나의 공간처럼 통합되기 때문이다. 소위 "뜬다" "뜬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뜨지 않은 이 동네는 이상하게도 인공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장자리에서 여전하다. 그 점이 특히 마음에 드는 것 같다. 내가 2015년부터 이곳에 몇년 동안 살아서인지 몰라도 애착 형성이 되어 있다.

몇 해 지나는 사이, 우사단로에 서점이 망하고 새로운 서점이 생겨났다. 전자는 〈디스레트로라이프〉이고, 후자는 〈망고서림〉이다. 둘 다 특이한 형태의 서점이었고, 이다. 말하자면, 해방촌 일대에 작고 독립적인 성향의 서점들이 트렌디한 성격으로 생겨나도 웬지 이해할 수 없는 자기존립 방식을 신기하게도 유지하는 것과 달리 이 서점들은 씬스틸러 성격배우처럼 명확하다.

〈디스레트로라이프〉를 드나들 때는 주인과 담소도 나누고 빈티지에 관한 품평도 들었다. 무엇보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판본과 희귀본 이야기를 귀동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서점은 사실 시계와 선글라스, 대형 카세트, 반지, 기타 빈티지 상품들 사이에 책들이 꽂혀 있어서 서점이라기보다는 만물상에 가까웠다. 주인 역시 잡지 〈악스트〉에 서평을 쓰기는 하지만, 평소에는 시계 수리 하는 것에서 낙을 찾는 듯했다. 낭만주의적 지향은 책과 글쓰기에 있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은 빈티지의 교환거래로 등떠밀고 있었다고 할까. 그래선지 몰라도 결국은 우사단로를 떠나 누하동으로 떠나고 말았다.

"뜬다" "뜬다" 하면서 뜨지 않는 것만큼 사람 미칠 노릇이 있을까. 한국사람들만큼 소위 이 '뜬다'는 동사를 좋아하는 이들도 드물 것이다. 이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짜고치는 고스톱 버전이 도시재생에서도 그 진정성을 좀먹고 있는 것 역시 다 그게 '뜬다'라는 부양책의 낙수효과 같은 달콤함에 어느덧 쩔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사단로 일대는 여전히 뜨지 않은 채, 세입자들만 교체하면서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그 능선길 위의 좌우에는 새로운 물결과 트렌드를 도입하려는 야심가들이 나름의 마스터플랜을 갖고서 등장하기 마련이다. 어느날 버릇처럼 저녁 산책 도중에 저녁놀의 빛 속에서 유난히도 강한 톤의 오렌지색 간판을 만났고, 그것은 멀리서도 눈에 확 띠었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눈에 들어온 것은 진녹색의 글자로 쓰인 '망.고.서.림.'이었다. 컬러점을 잘 보는 김미란 작가는 나에게 나의 결핍을 메우는 컬러가 '옐로우'와 '오렌지'이기 때문에 늘 그 색을 가까이 하라는 충고를 준 바 있었다. 그런데 이 〈망고서림〉은 그 두가지 색을 뛰어넘어 아예 망고빛이 아닌가. 호기심이 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이 서점은 해방촌의 약간 예술가연 하는 서점 트렌드와는 그 색깔이 달랐다. 뭐랄까, 주인장의 취향과 입맛 그리고 미래시제적인 전망이 함께 골고루 섞인 바이킹 부페 같은 서점이랄까.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시집들, 소설들, 철학책들, 인문서들, 아트북들이 가히 탑레벨이었다. 그런 컬렉션의 서점을 우사단로 산책길에서 만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었다.

도대체 주인장이 누굴까. 저기 프론트에 앉아 있는 저분이 주인장인가. 하지만 내가 먼저 말걸지는 않으리라. 무슨이든, 어떤 계기든 생기겠지.

이런 식으로 나는 말없이 그 서점을 드나들면서 어느덧 〈디스레트로라이프〉와의 옛정은 잊은 채, 책들을 탐닉하기 시작했다. 남한에서 보기드문 단독적인 서점과 사랑에 빠진 것이다.

#2.

2018년 10월 30일 〈망고서림〉에서 아티스트 이창훈 퍼실리테이터, 송주원 예술인(무용), 이경미 예술인(문학), 서점 주인 이진형과 좌담을 나누었다.

송주원 : 오늘은 날씨가 따뜻하네요.

이경미 : 그래도 바람은 차요.

김남수 : 이 서점이 늘 궁금했어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중에서도 이 서점과 예술가들이 함께 진행한 과정을 듣고 싶어요.

이창훈 : 잘 오셨어요. 그런 궁금증이라면, 사실 10월말에 계획된 전시가 실행됐더라면 말끔히 풀렸겠죠. 파견지원사업의 성과보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 예술가들이 망고서림에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이 무엇인가를 미술과 미술 너머의 범위에서 보여주는 전시였는데, 뒤로 늦춰졌어요.

김남수 : 왜 연기됐어요?

이창훈 : 중간에 세미나, 강연 등의 학술행사가 진행되어서 박자가 좀 안 맞았다고 할까요. 작가들의 자기만족도를 충족시키기에는 전시 준비 기간이 다소 짧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12월 12일로 이월된 〈망고서림〉 전시. 이 전시는 이창훈 퍼실리테이터의 부드러운 리딩으로 안내되는 〈망고서림〉의 맨 처음 컨택트로부터 시작되었다. 우선 확인되어야 할 것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나온 〈망고서림〉의 니즈였다. 이 서점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게 예술가들의 흥미와 구미를 자극했다는 것이다.

이진형 : 그렇습니다. 니즈 같은 경우, 우사단로라는 공간 자체가 특이하기도 했고, 이 길이라는 것이 혼자서 보기는 아깝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망고서림〉이 예술가들과 만남을 갖는 것에서 〈망고서림〉이 책을 파는 일보다도 이 서점 공간에서 예술가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을 두었어요.

김남수 : 우사단로가 아직도 뜨고 있는 공간인가요?

이진형 : 이 길의 공간이 다소 과시적이죠. 저는 뜬다 안뜬다를 떠나서 〈망고서림〉이 나중에 죽어간다면, 그 죽어가는 모습을 예술가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도모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외부의 시선과 여기 내부의 시선 사이의 격차가 있는데, 그 격차 안에서.

이창훈 : 여기 내부에 특이한 인간들이 많죠. 우리 사장님이 제시하신 니즈의 배경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진형 : 네, 이태원역에서 이곳 서점까지 죽 이어지는 길에 특이한 인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그래서 서점과 서점 바깥의 우사단로의 체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된 거죠.

이진형 서점주인의 얘기는 〈망고서림〉 자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사단로로 확장되어 파급되어 나가는 것이었다. 서점 내부의 컨셉이나 매출 관련한 어시스트가 아니라 이 서점을 플랫폼 삼아서 이태원의 애비로드로 우사단로를 새롭게 세팅하겠다는 거다. 어, 어떻게 얘기가 그쪽으로 흐르고, 이런 니즈를 아티스트들은 어떻게 접수했던 것이지? 그리고 지난 몇 개월 동안 〈망고서림〉이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평원을 바라보는 조망의 비저너리를 갖고서 우사단로라는 전체 큰 그림을 어떻게 상대해온 것이지? 궁금증이 더욱 증폭되기 시작했다.

이창훈 : 이 니즈 자체가 작가들에게 동하는 거죠. 저도 작가잖아요. (김남수: 유명한 작가시잖아요.) (송주원, 이경미: 어머, 그래요?) 아니, 무슨? 그래요. ㅋㅋ저도 작가니까 제가 작가로서 다른 작가들과 함께 하기에 좋고, 저 개인적으로는 당시 관심 있었던 "사라지는 동네"라는 주제 하에 포착되는 공간과 장소성, 그리고 시간의 역사에 걸리는 거였죠. 현실과 비현실이 혼재되어 다가오는 어떤 지역적인, 독특한, 제3의 느낌들 -사실 이 느낌들의 현실이 원래의 현실감에 가까운 현실일 거예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망고서림〉의 이 니즈를 마주했을 때 딱 만난 거죠.

김남수 : 이런 작가들이 이런 식으로 뭉친 것은 사전에 얘기가 된 거예요?

이창훈 : 그렇지 않아요. 작가들 오기 전에 니즈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작가들 왔을 때 함께 정리하면서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처음 와서 다들 알게 된 거구요. 그리고 처음에는 여기 우사단로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해방촌 어디 언저리라고만 막연히.

이경미 : 여기라서 훨씬 좋아요.

송주원 : 해방촌과는 다른 공기죠. 해방촌은 많이 복잡한데, 여기는 일단 풍경이 엄청나잖아요.

김남수 : 팀 자체는 어떻게 꾸리시게 됐어요?

이창훈 : 제가 퍼실리테이터 경험을 몇 번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사람들과 뭔가 해볼려고 했어요. 재작년에 아는 사람들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과 낯선 체험을 해보자고 했던 것인데, "같이 합을 맞추는 과정"이 조금 길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끝나더라구요.

김남수 : 잘 안 맞을 때, 기획 마인드로 개입하셨어요? 그냥 맞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이창훈 : 저는 제가 막 이끌고 가기보다는 뭔가 합을 맞출 때까지 같이 가자는 쪽이었어요.

이창훈 작가는 2014, 15년 무렵 서해안 레지던시의 아지트였던 경기창작센터에서 만났다. 부드러운 훈남형인데다가 역시 부드러운 리더십, 온화한 미소, 울림 있는 말투로 많은 호감을 샀는데, 그가 다년간의 퍼실리테이터 경험자인지는 몰랐다.

퍼실리테이터란 무엇인가. 이는 예술가와 기업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매개하는 효모 같은 존재이다. 여기서 사회적 관계라는 것은 돈이 개입해 있는 2차 관계인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예술가들에게도 새삼스럽게 낯선 특성을 띤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가들이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사회적 예술의 성격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대다수 기업이 영리추구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예술가들의 사회적 관계 맺기가 영리추구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인 동

시에 예술의 근본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기도 한다.

사람마다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대체로 현대예술은 그랑 부르주아가 이전의 봉건사회를 타파하고 새로운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등장하던 모던 시대에 예술가의 존재와 함께 예술의 자기의식이 생겨나면서 태동했다고 봐야 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활화산처럼 자유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예술의 토양에 해당하는 밑변을 조성했다면, 그 밑변을 플랫폼 삼아서 우원한 비상을 시작한 모더니즘은 문득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즉 "예술은 자본주의로부터 탄생했지만, 사실 자기의식을 가진 예술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예술은 태초의 시간부터 현재와 미래까지도 아우르는 스케일이 있다." 이러한 명제 자체가 이미 예술이 자본주의에 대해 자존심을 내세우고, 어느 정도는 반자본주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도록 한다.

말하자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기업과 예술가 사이는 미학자 랑시에르가 말하는 '불화'의 전선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기업이 가진 예술관과 예술가들의 의식 사이에는 온도차가 심하게 날 수 있고, 그 온도차는 축열되어 결국 불화가 폭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창훈 작가는 이러한 축열 관리, 불화의 전선에서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해온 퍼실리테이터라고 할 수 있다. '불화'라는 것은 사회 전반의 편견으로 일종의 감각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것은 다시 사회 전체로 되먹임시키면서 '미학의 치안'(랑시에르)이 유지되는 것을 혼란에 빠뜨리고 의문에 붙이는 사회적 예술의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이다. 사실 '불화'의 생산은 잘 정비된 치안 체제를 새로운 단계로 진전시키는 촉매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는 그러한 현대예술의 장기는 어느 정도에서 사회적 타협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송주원 : 제가 면접에서 도시의 사라져가는 공간에 대한 기록을 춤으로 진행하는 〈풍.정.각〉 시리즈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대표님이 춤을 좋아하신대요.(웃음) 구체적으로는 기형도의 시라든가 조에 부스케 시집 〈달놀이〉라든가 등등의 시를 도입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신이 났었죠. 사실 제가 어릴 때는 차 타고 여기 도깨비 시장을 많이 지나다녀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오게 된다고 결정이 나서 인연을 깊이 맺게 된 거죠.

이창훈 : 〈망고서림〉이 인기가 많아서 실제로 지원자수가 전체 기업중에 두번째 정도로 많았대요. 소위 말하는 '인력시장'(웃음)이 죽 길게 줄을 늘어서 있더라구요. 되게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때 좋겠다 하고 의기투합된 분들이랑 같이 일하게 된 거죠.

김남수 : 이경미 큐레이터도 면접 보셨어요?

이경미 : 제가 이번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지망했을 때는 다른 것보다 접근성이 좋으면 오케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대표님도, 이창훈 퍼실도 참여하고 있으리라고는 기대 안했죠. 그런데 면접에서 들어보니까 지향해야 하는 목표라는 것이 대단히 열려 있었고, 우사단에 대한 기록 이야기를 듣게 되었기 때문에 재미있겠다 싶어서 제 마음 속의 1지망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거기에 이창훈 작가가 딱 있는 거에요.

〈망고서림〉 같은 경우, 예술가의 자존심이 아니라 열려진 의기투합이 일어난 매우 긍정적인 사례 같다. 4월부터 시작되어 6개월간 진행된 이 사업은 좌담의 작가들 포함해서 정정호 작가, 강지윤 작가 등등 모든 이들이 〈망고서림〉의 니즈에 적극 동참하면서 개방과 확장을 거듭해온 케이스인 것. 이렇게 되니까, 앞서 예술의 위상 자체가 반자본주의적이면서 자본주의적이라는 듀얼리티를 띤다는 이야기가 다소 퇴색되는 느낌도 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의 거점 공간으로부터 지역사회로 파급되는 보다 전향적인 흐름을 이끌어낸 것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정당하게 평가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경미 : 처음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 했던 것도 매우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이진형 : 아니, 그건 제가 뭘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서 생긴 일 같아요. 제가 너무 순진해 가지고(웃음) 결과적으로는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던 것이죠.

송주원 : 이 사업 초반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하면 흐르는 물에 발 담그고 수박 먹고 책 보기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거 안한 것이 너무 후회돼요. 그래서 내년 여름에 그냥 그거 합시다.(웃음)

"아 우리도 하늘이 되고 싶다
짓누르는 먹구름 하늘이 아닌
서로를 받쳐 주는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푸른 하늘이 되는
그런 세상이고 싶다."
_박노해, 시 '하늘' 마지막 연

〈망고서림〉의 서가 하단에서 내가 몇 달 전에 구입한 것은 뜻밖일지 모르지만 박노해 시인의 1984년 초판본 〈노동의 새벽〉이었다. 이 기념비적 시집을 〈망고서림〉에서 샀고, 기억에도 없는 거의 서시에 가까운 첫번째 시를 펼쳐서 읽고서 눈물을 흘렸다. 거기에는 "우리 세 식구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장님은 나의 하늘"이며 "프레스에 찍힌 손을 부여안고 병원으로 갔을 때 손을 붙일 수도 병신을 만들 수도 있는 의사 선생님은 나의 하늘"이며, 경찰관님, 판검사님, 관리들, 높은 사람, 힘있는 사람, 돈많은 사람은 "모두 하늘처럼 뵌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다가 "나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하늘이 되나" 라고 묻고 "이제 막 아장걸음마 시작하는 미치게 예쁜 우리 아가에게만은 흔들리는 작은 하늘이것지" 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이 시인의 부드러운 어조가 다름아닌 〈망고서림〉의 그것으로 예리하게 각인되었다. 물론 "서로가 서로에게 푸른 하늘"이 되는 유토피아가 오면 좋겠지만, 그리고 아직도 그런 유토피아의 꿈을 꾸는 것이 굉장히 시대착오적 지진아의 발상이긴 하지만 말이다. 세 숫대야 물 속에 발 담그고 수박 먹고 책 보는 꿈은 계속 되기를.

#3.

이창훈 퍼실리테이터 왈, 이 지역의 체험을 오감으로 느꼈으면 좋겠다 라는 것. 우사단로 일대에서. 불과 몇 개월에 지나지 않지만, 그리고 지금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이곳에 대해서 계속 보고 느끼고 잘 알 수 있도록 참여 예술가들이 원했다. 거기에 니즈 자체가 행복하게 결합된 경우랄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술가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같이 나눴다는 것. 이 거리를 오감으로 체득한 부분들을 예술가들의 방식으로 남들과 공유를 좀 하자. 그 기점 하에서 〈망고서림〉으로부터 파급되어 이 서점도 알리고, 거리도 알리도록 하자. (굉장히 야심적이었다, 엄청났다. 이구동성.)

한 달 동안 이 거리를 걷고, 이 거리의 상점주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해방촌까지 걸어서 넘어가고, 그곳의 어느 공간에서 세미나도 들어보고. 그런데 재미난 것이 그 세미나가 이태원의 구체적인 공간, 특히 우사단로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 세미나였다는 것. (그런 연구자가 있었다고?)

건축이 소위 "건축가 없는 건축"이라는 인류학적 증식의 형태인데, 그러면서 거리와 동네 구획이 생기는 과정이 뒤따랐다는 것. 건축가 없이 필요에 의한 랜덤한 변형과 증축 과정 속에서 이태원의 독특성을 공간 연구의 핵심 테마로 삼았다고.

"해방촌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 우사단로에 대한 연구는 많이 안되어 있는 거에요. 그 연구자를 수소문했는데, 그분이 우사단단 창립 멤버로 〈동동 투어〉라는 프로그램도 돌렸었다고 해요. 이영동 씨라고 하는데 단국대 지리학과 재학생이라 젊으신 분이지만, 연구가 아주 착실해요. 그때부터 연구 아카이브를 꾸려서 가칭 우사단연구소 창립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이창훈, 송주원)

이 〈망고서림〉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작가의 리서치 과정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여서 보다 확장성과 폭발력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서점주인이 〈망고서림〉 자체의 내부적 필요를 금욕하고 우사단로 공간이라는 보다 넓은 지역적 전망 속에서 예술가들을 방목했을 때, 그 자기조직화적 예술실천이 어떤 넥타이처럼 구불구불한 행로를 여는지가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에 일정 부분 그 이상으로 연루되어 있다고 할까.

표피적인 수준에서 주문에 응하는 정도의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아예 니즈 자체가 예술가들에 의해 구성되고 그 구성된 의제가 다시 거리와 공간 속으로 회오리쳐서 니즈 자체를 다시 진화시킬 만큼 깊이를 확보했다고 할까. 물론 거기에는 실제 지역연구의 심도와 넓이를 가진 연구자와 접선한 것이 컸다고 하지만.

도시재생은 아마도 이태원 우사단로 같은 공간에 대해 알러지 반응을 보일지 모른다. 도시 건축법과 궤를 달리 하는 이 공간은 필요와 욕망에 의해 슬그머니 변형되고 생성되는데, 도시는 이 공간의 변화를 눈감아주기 때문이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는 우사단로, 그 지그재그적이고 불규칙한 변화를 추적하면서 마치 유전자지도 같은 읽기를 해오는 연구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연구자와 함께 이창훈 퍼실 포함 송주원을 비롯한 작가들이 집요하고도 긍정적인 확대재생산 형태의 협업을 해온 것이다.

세운상가 일대를 전임 토건대통령 수준보다 한수 위의 내공갑자를 뽐내며 완전히 도시의 역사 두께를 파헤쳐 버리고 '재생'이 아니라 '개발'을 해내는 서울시의 새로운 기원 앞에서 이태원 우사단 공간 그리고 〈망고서림〉은 오감의 체감으로 저항하고 있을까.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그도 그럴 것이다. 도시 한켠의 지역이 스스로 인간의 내력과 삶이라는 날실을 받아들여 시간의 씨실로 직조해낸 결은 우사단로의 경우에도 완전 독특하다는 것이다.

"건강한 도시란 어떤 것일까. 지금은 공부하는 중." (이영동)

고 신성일 배우가 운영했던 80년대 영화관이었던 이태원랜드의 사연, 이슬람사원이 들어서게 된 내력, 유독 이곳에 구제화장품을 유통시키는 도깨비 시장이 있으며 미장원이 많았던 것이 모두 양공주들이 살았던 역사와 결부되어 있는 내력 등등이 지금 눈에 보이는 시각적 풍경 속에서는 발견하기 힘들다. 그래서 작가들은 그 시간 속으로 다이빙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것. 법이라는 망과의 싸움을 해온 우사단로의 조건을 상대하기 위하여.

"여기가 치외법권 같은 느낌도 살짝 있어요. 처음에 여기를 왔을 때는 되게 많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생각이었죠. 성적인 코드 역시 다양하게 스펙트럼 분화가 있고, 인종이나 문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혼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존해 있는 것 같아요. 혼재되어 있다는 것은 섞이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대표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이창훈)

사람이 죽었다. 과거 우사단로의 내력 때문인지 성매매하는 여성이 흘러들어서 죽었는데, 일주일 넘게 아무도 모른 채 방치된 것이다. 특유의 썩는 냄새가 진동하자, 비로소 경찰차가 당도하고 시신이 인계되었다. 죽음을 통해서 거꾸로 그 존재가 확인되는 공존의 시스템이라고 할까. 이진형 대표는 이 뒤집어진 방식으로 인지되는 공존 형식에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던 것 같다. 그 죽은 이는 눈빛이 풀려서 거리를 지날 때 눈이 마주치면 기분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죽음은 이 우사단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냄새로, 이야기로 다시 질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작가들은 어떻게 지역연구와 함께 현행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곳 여기의 형해화된 삶의 조건까지 아우를 수 있었을까.

"서로들 모르는 거에요. 분리된 채, 개별적으로." (이창훈)

"작년에 제가 청파동에서 작업했는데, 거기는 모종의 질서가 있어요. 여기는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너머에는 그냥 그것대로 각자 있는 거에요." (송주원)

개별적으로 각자 있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우사단로의 공간. 작가들은 그 길들, 좁은 길들, 미로처럼 난마처럼 얽힌 길들을 직접 가보기로 결정하고 실행하기에 이르렀다. 길의 체험이란 마치 모로코 마라케시의 시장 골목이나 교토의 좁은 시가지 골목을 쏘다니면서 길을 문득 잃어버리는 것이다. 아주 정교하고도 흔들림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소형의 핸드헬드 카메라를 들고 우사단로 능선에서 분수령의 좌우로 내려가는 소로들을 왼종일 쏘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은 감동적이다. 사실 이태원 저 안쪽 공간에 나 있는 길들은 그야말로 망그로브 정글처럼 얽히고 설켜서 분간하기가 힘들지만,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소로의 정보를 유용하게 써먹는 법이다. 그리고 삶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절대적 타자가 촉발시킨 이 길의 체험은 〈망고서림〉이 우사단로 공간을 헤진 관념의 영역에서 상대하지 않고, 땀과 발품과 시간을 들여 작가들의 삶의 질감으로 온전히 견인해온 첩경 같았다. 수많은 영상들, 소로들의 길끊어짐과 길잃음으로 점철되는 영상들의 배치가 12월에 예정된 전시를 한결 강도높게 할 것이다.

이원호(미술)의
'On Usadan'

#4.
춤꾼과 큐레이터, 미술작가, 글쟁이 그리고 책을 사랑하는 대표가 만났다. 거기에 이창훈 퍼실리테이터가 개입하여 커미컬 속에 커미컬이 향싼 종이처럼 풍겨나는 과정으로 안내했다. 〈망고서림〉은 내년 우사단로 중심으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망하지 않는다면.

#5.
망고 역시 바나나나 두리안처럼 열대과일이다. 과당이 높아서 당뇨병 환자에게는 치명적이다.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이 1996년 중풍 이후에는 망고를 끊었다고 하는데, 최신형 컴퓨터와 신혼밤을 보낸 어느 날에는 이런 표현을 쓴 바 있다. "위험한 망고맛이다."
위험한 망고맛이 입안에서 감돌 때의 일순 정지! 문화적 당뇨병 환자들인 우리에게는 그 정지된 순간이 없어져 버렸다. 공공예술은 그 정지된 순간의 뇌관을 제거해버렸다. 왜? 누군가가 민원을 넣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왜 당뇨병 환자에게 망고를 주나요? 왜죠? 그러나 셰프 백종원처럼 설탕을 넣으면 좋아라 한다. 설탕과 과당 사이에서 공공예술은 본의아니게 춤추는 것이다. 또한 그 누군가가 공중의 일원이 아니라 군중의 일원이어서 그렇다. 사회학자 타르드는 이렇게 말했다. "비가 오면 군중은 흩어지지만, 공중은 빗속에서 뭉친다.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사단로에서 만나는 〈망고서림〉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위험한 망고맛을 이태원 여기저기의 입안에 던져넣는 일을 행해온 것인가. 그런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서점이 유명해질 리가 없지 않은가. 과대망상을 현실화하는 것은 미쳤다고 하고, 그 망상증으로 도시를 각성의 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공공예술이라고 한다. 과연 그들은 비가 와도 흩어지지 않는 자신들의 공중을 이 이태원 한 켠에서 발명해냈는가. 아마도 그런 것 같다.

BRANCH 05.
봄, 준비하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초록빛 무성했던 나뭇잎은 울긋불긋 물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명력을 다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나 낙엽이 진 자리, 앙상한 가지만이 남은 나무는 그냥 겨울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새로이 싹을 틔워 잎을 피워낼 겨울눈을 보호하며 다가올 봄을 준비하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지난 5년간 걸어온 길을 훑어보고,
2019년 새싹을 틔워낼 겨울눈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154	FAQ	궁금해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156	History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5년간의 사업 통계
168	Insight	파란 후 희망 _ 최창희 전문위원

궁금해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신청하려고 하는 예술인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를 추려보았다. 홈페이지에 적힌 설명 이외에 사업 신청과 매칭, 사업 과정에서의 활동에 관해 궁금했던 점을 정리해두었으니, 모두 주목!

Q1.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갱신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 신청 가능한가요?

A1. 예술활동증명 갱신 신청하여 심의 중이신 예술인들은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시작 전 신청하여 완료를 받으시길 바라며, 진행 중일 경우 재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활동 중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면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내에 갱신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Q2. 매칭을 진행하다 기간 내 최종 매칭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최종 선정은 '매칭 완료된 예술인'입니다. 매칭 기간 내 매칭 완료가 되지 않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재단에 문의하셔서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Q3. 워크숍(오리엔테이션), 만남의 광장 등 재단행사에 참석하는것은 의무사항인가요?

A3. 네, 사업과 관련된 재단 행사 참여는 약정서에도 명시되어있는 의무사항입니다. 이는 사업참여시 원활한 사업수행과 유의미한 가치창출을 위해 준비된 사업의 중요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활동으로 인정되며, 행사 전·후 재단에서 일괄적으로 각 행사 참석에 따른 인정시간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Q4. 리서치나 개인 작업실에서의 활동도 인정되나요?

A4.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협업프로젝트 관련범위에서만 인정하며, 단순 개별적 작업, 연습, 관람 등의 시간은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 의무활동 일수(10일/30시간) 중 1/3에 해당하는 3일, 10시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그 외 활동(7일, 20시간)은 참여기업·기관 내 정한 장소와 협업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Q5. 활동 기간 중 해외체류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해외에 체류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단 측에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달에 의무활동일수(10일/30시간)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시간의 해외체류 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업(기관)및 활동하는 구성원 모두에게 충분히 공유하시고,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10일/30시간 활동이 어려워 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활동비 지급이 안 되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6. 중간에 사업 참여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사업 참여 중단을 초래한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재단에 즉각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 참여가 중단 되며 사유에 따라 참여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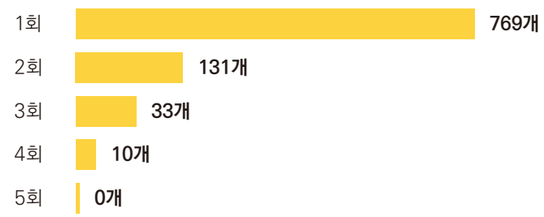
5년간의 사업 통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5년간 기업은 총 943개, 예술인은 2,278명 참여하였다.
이 수치는 다년간 중복하여 참여한 기업과 예술인을 하나로 카운트한 수치이다.

참여 기업·기관

소계
943개

다년간 참여한 기업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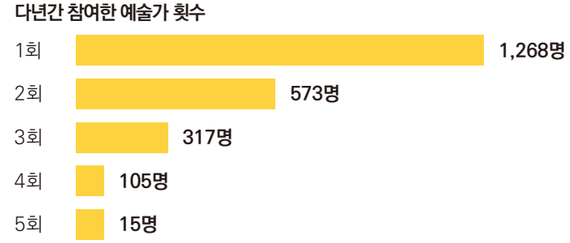


소계 : 943회

참여 예술가

소계
2,27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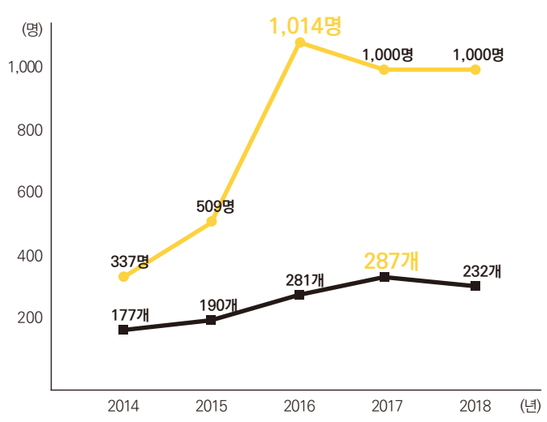
다년간 참여한 예술가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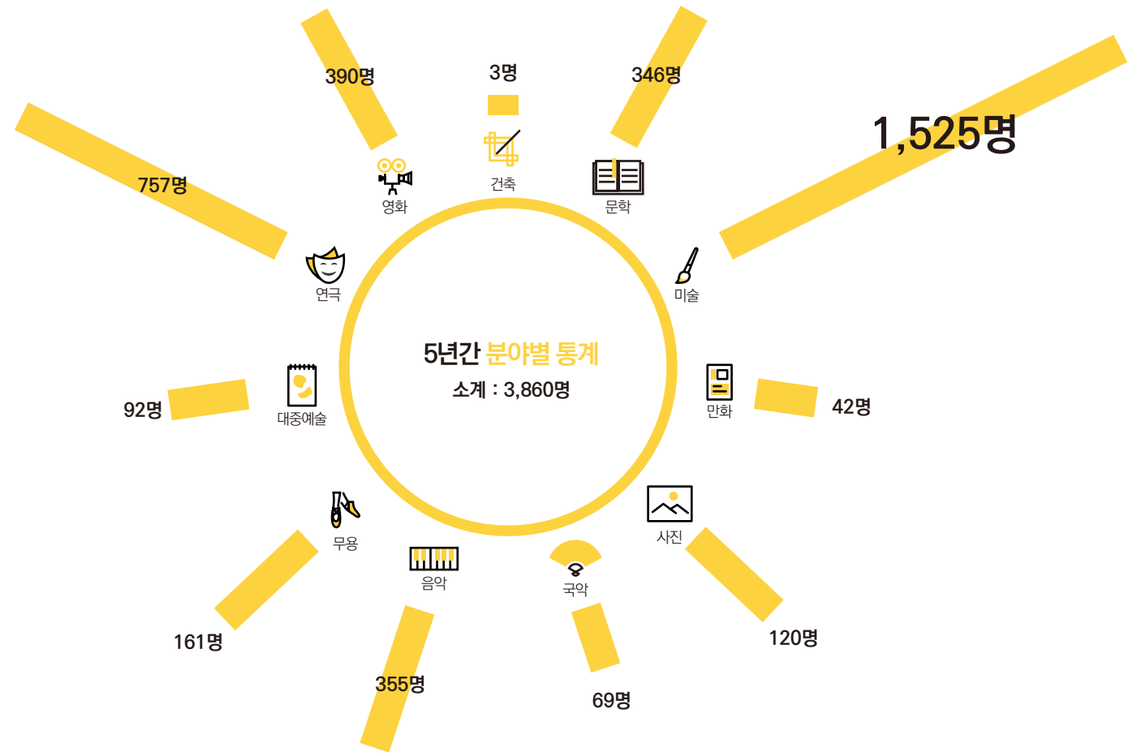
소계 : 2,278회

년도별 참여한 기업:예술인의 수치는 2014년 177:337, 2015년 190:509, 2016년 281:1,014, 2017년 287:1,000, 2018년 232:1,000 이다.
이 수치는 다년간 중복횟수를 고려하지 않고 년도별 각각 카운트한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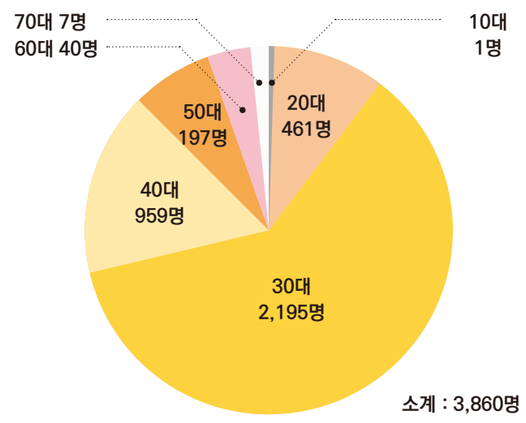
기업 : 예술인 참여 수



5년간 참여 예술인의 분야별 통계를 보면 미술이 1,52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극(757명), 영화(390명), 음악(355명), 문학(346명), 무용(161명), 사진(120명), 대중예술(92명), 국악(69명), 만화(42명), 건축(3명)의 순으로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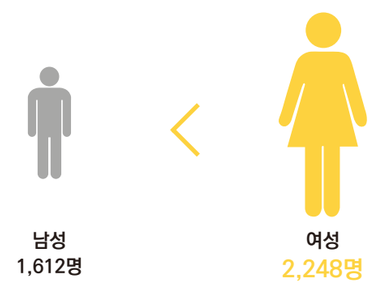


5년간 연령별 참여 예술인



소계 : 3,860명

5년간 성별 참여 예술인



소계 : 3,86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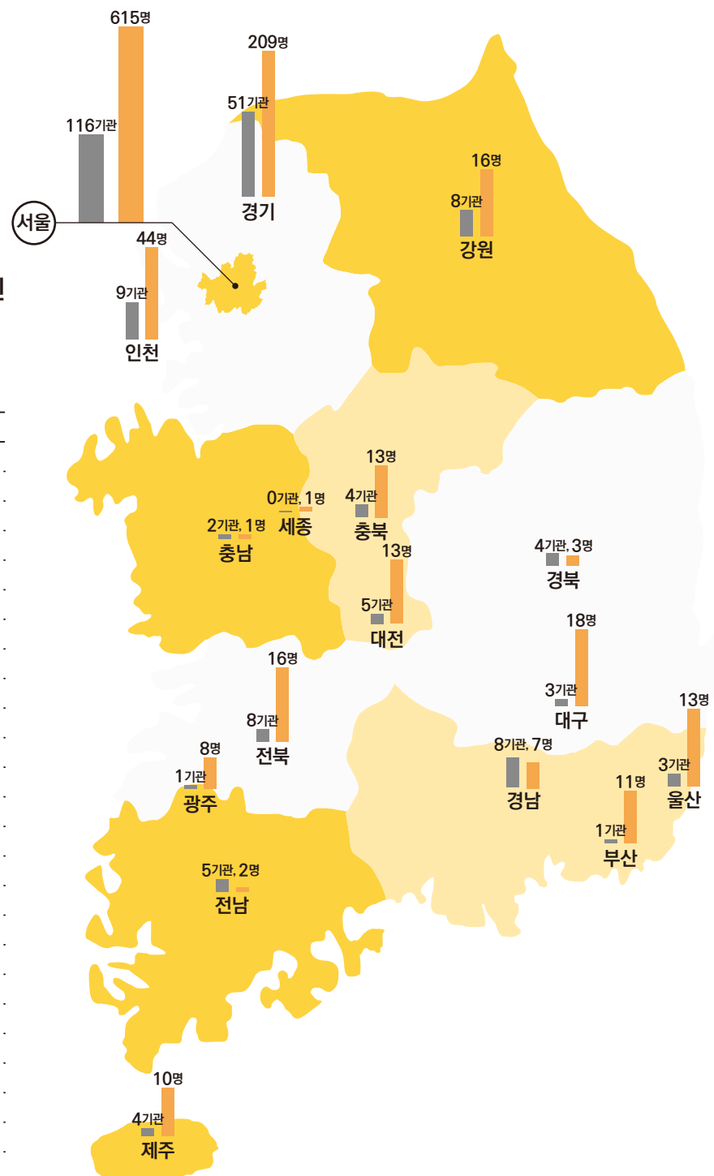
2018년도 통계

2018년도 참여 기업·기관은 232개로 이중 서울은 116개, 경기는 51개 기업·기관이 참여 하였으며, 참여 예술인은 1,000명 중 서울이 615명, 경기가 209명 참여하였다.

2018년 전국 참여 기업·기관 & 예술인

기업·기관 소계 **232**

예술인 소계 **1,000**



2018년 서울 참여 기업·기관 & 예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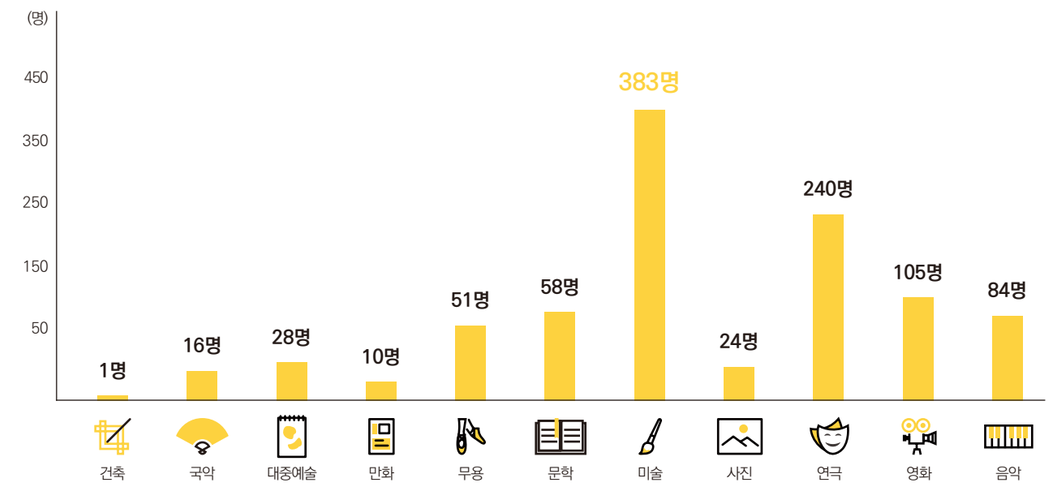
기업·기관 소계 **116**

예술인 소계 **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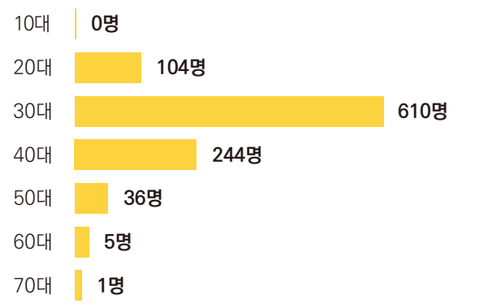
지역	기업·기관	예술인(명)
강남구	5	13
강동구	2	13
강북구	1	24
강서구	1	19
관악구	2	25
광진구	1	16
구로구	4	13
금천구	3	6
노원구	1	19
도봉구	1	20
동대문구	1	10
동작구	6	17
마포구	25	75
서대문구	4	48
서초구	4	15
성동구	4	5
성북구	9	75
송파구	4	23
양천구	1	20
영등포구	9	19
용산구	8	23
은평구	2	59
종로구	11	34
중구	5	11
중랑구	2	13

2018년 분야별 참여 예술인

소계 :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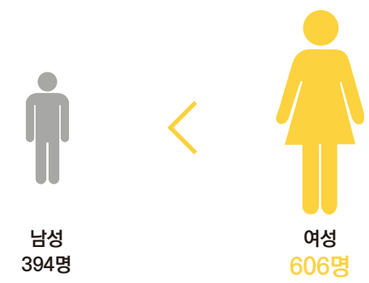


2018년 연령별 참여 예술인



소계 : 1,000명

2018년 성별 참여 예술인



소계 :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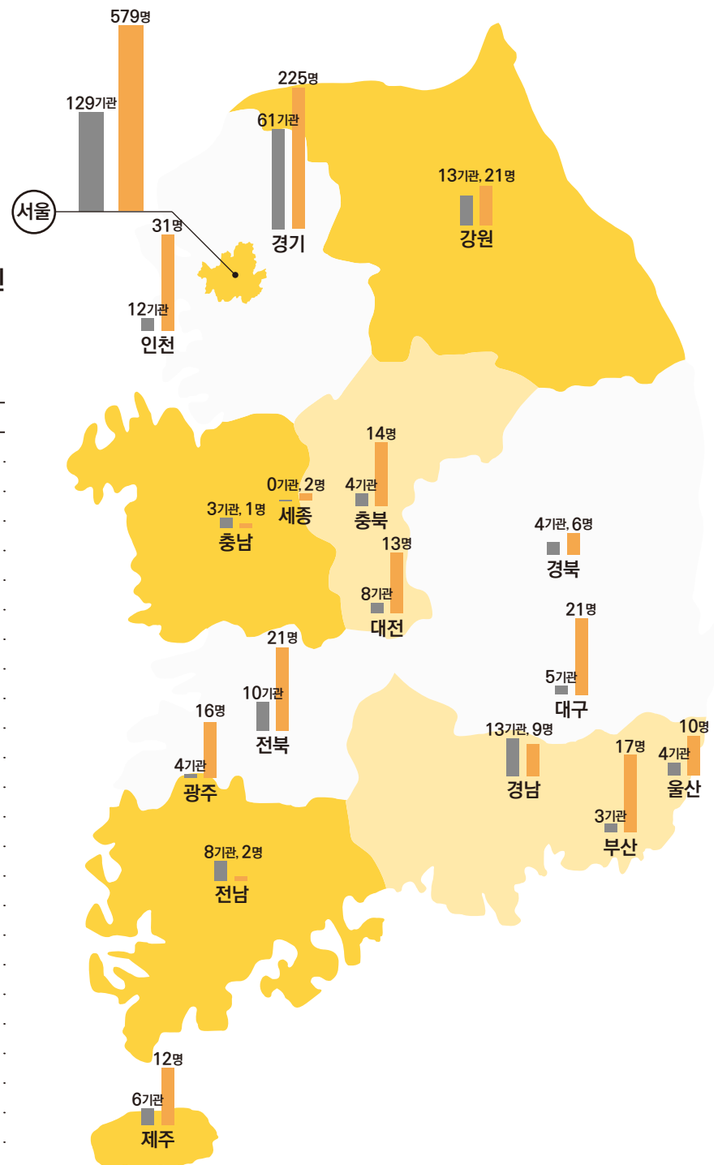
2017년도 통계

2017년도 참여 기업·기관은 287개로 이중 서울은 129개, 경기는 61개 기업·기관이 참여 하였으며, 참여 예술인은 1,000명 중 서울이 579명, 경기가 225명 참여하였다.

2017년 전국 참여 기업·기관 & 예술인

기업·기관 소계 **287**

예술인 소계 **1,000**



2017년 서울 참여 기업·기관 & 예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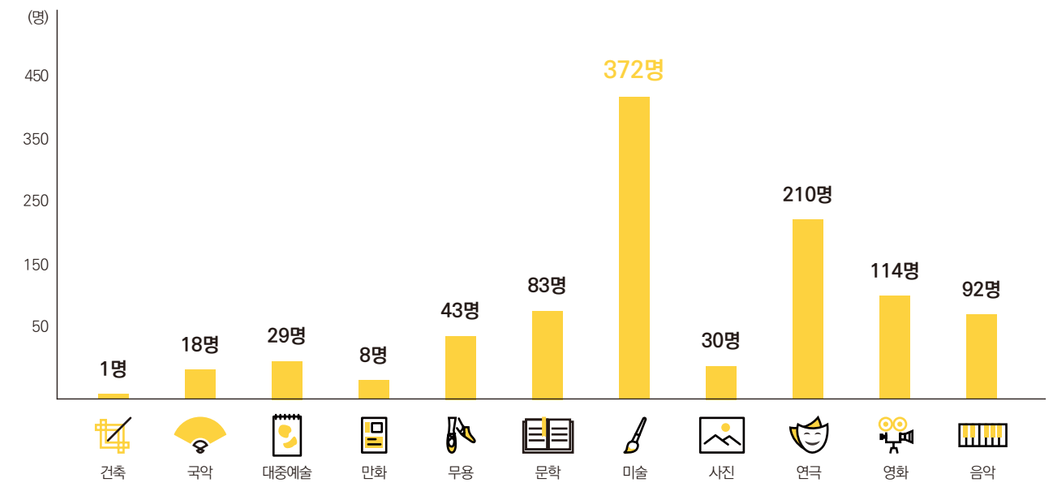
기업·기관 소계 **129**

예술인 소계 **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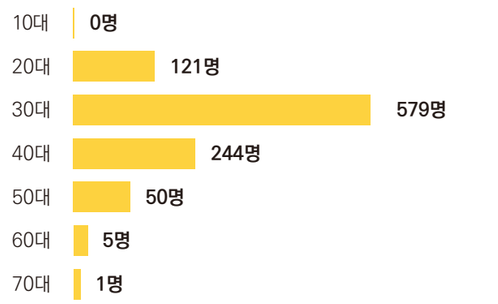
지역	기업·기관	예술인(명)
강남구	15	15
강동구	1	10
강북구	2	20
강서구	1	17
관악구	3	38
광진구	2	14
구로구	2	14
금천구	1	8
노원구	2	17
도봉구	1	17
동대문구	3	9
동작구	4	17
마포구	26	59
서대문구	6	44
서초구	7	21
성동구	3	10
성북구	6	72
송파구	3	22
양천구	1	13
영등포구	14	22
용산구	4	21
은평구	4	45
종로구	13	32
중구	5	7
중랑구	0	15

2017년 분야별 참여 예술인

소계 :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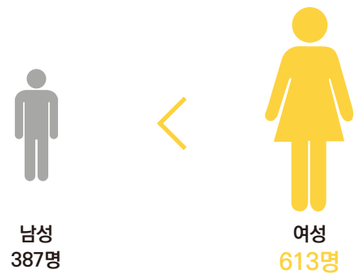


2017년 연령별 참여 예술인



소계 : 1,000명

2017년 성별 참여 예술인



소계 : 1,000명

2016년도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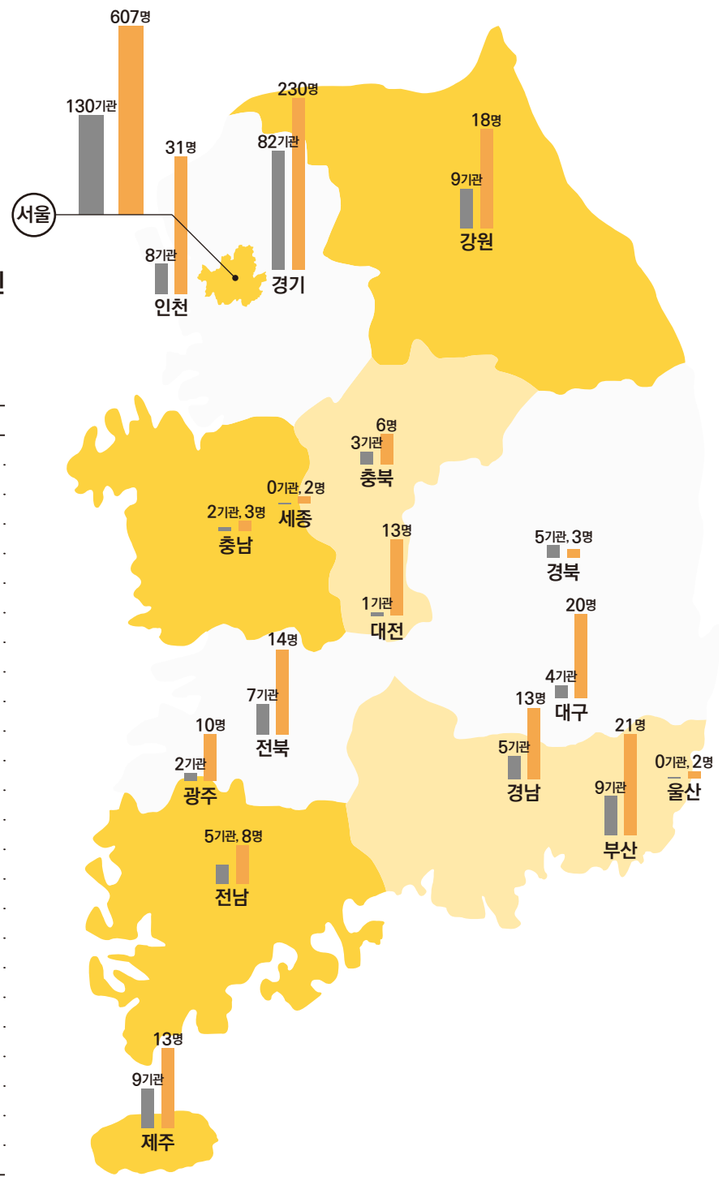
2016년도 참여 기업·기관은 281개로 이중 서울은 130개, 경기는 82개 기업·기관이 참여 하였으며, 참여 예술인은 1,014명 중 서울이 607명, 경기가 230명 참여하였다.

2016년 전국 참여 기업·기관 & 예술인

기업·기관 소계 **281**

예술인 소계 **1,014**

기업·기관 / 예술인



2016년 서울 참여 기업·기관 & 예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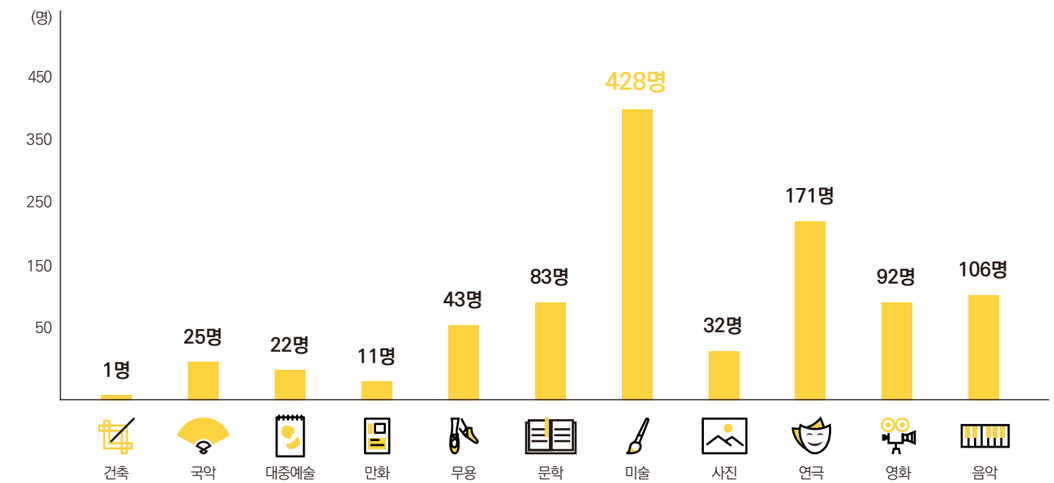
기업·기관 소계 **130**

예술인 소계 **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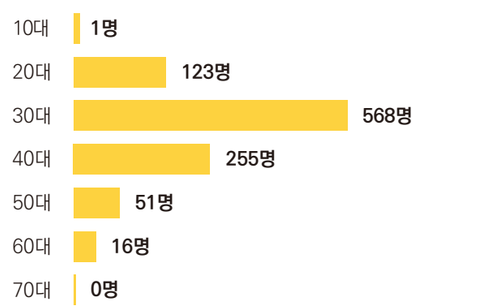
지역	기업·기관	예술인(명)
강남구	19	21
강동구	0	19
강북구	0	13
강서구	3	21
관악구	0	23
광진구	1	11
구로구	2	18
금천구	4	8
노원구	1	21
도봉구	0	11
동대문구	3	10
동작구	1	17
마포구	22	78
서대문구	5	46
서초구	5	18
성동구	4	5
성북구	5	53
송파구	2	29
양천구	0	24
영등포구	12	23
용산구	3	31
은평구	7	48
종로구	20	29
중구	11	9
중랑구	0	21

2016년 분야별 참여 예술인

소계 : 1,01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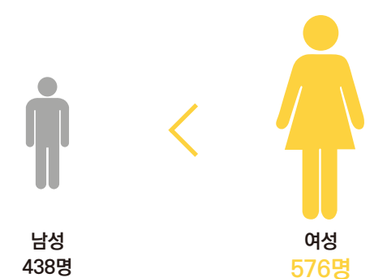


2016년 연령별 참여 예술인



소계 : 1,014명

2016년 성별 참여 예술인



소계 : 1,014명

2015년도 통계

2015년도 참여 기업·기관은 191개로 이 중 서울은 89개, 경기는 51개 기업·기관이 참여 하였으며, 참여 예술인은 509명 중 서울이 290명, 경기가 128명 참여하였다.

2015년 서울 참여 기업·기관 & 예술인

기업·기관 소계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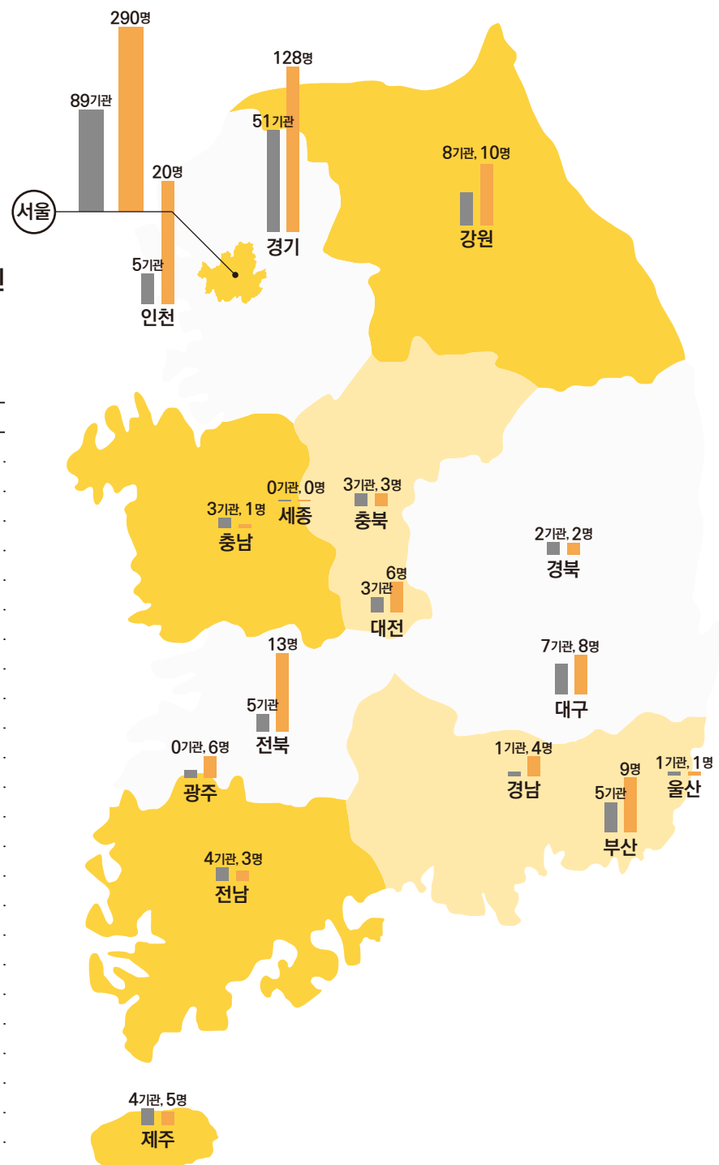
예술인 소계 **290**

지역	기업·기관	예술인(명)
강남구	8	5
강동구	0	7
강북구	0	14
강서구	1	13
관악구	3	12
광진구	1	6
구로구	2	8
금천구	6	7
노원구	1	8
도봉구	1	7
동대문구	1	7
동작구	1	5
마포구	24	41
서대문구	3	22
서초구	1	11
성동구	2	9
성북구	3	23
송파구	4	9
양천구	1	6
영등포구	6	8
용산구	5	12
은평구	4	18
종로구	5	19
중구	5	5
중랑구	1	8

2015년 전국 참여 기업·기관 & 예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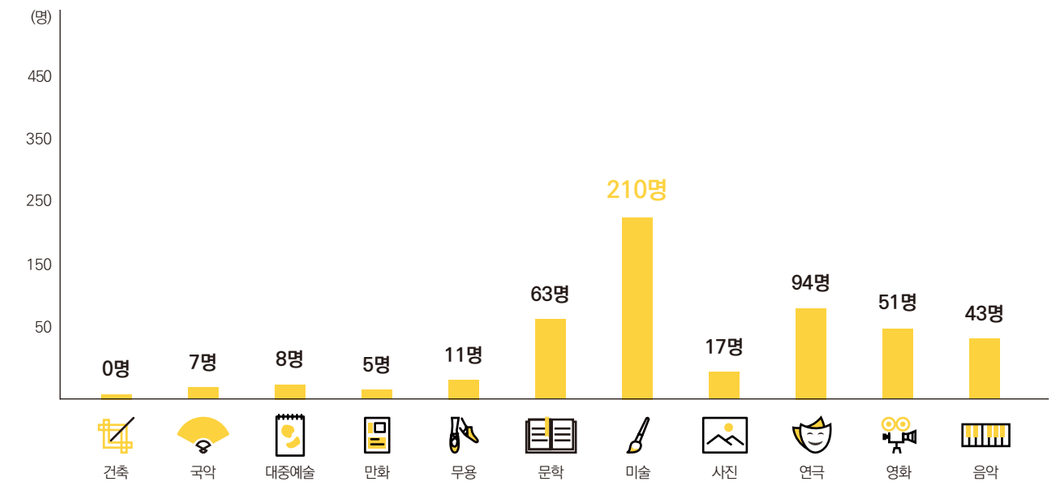
기업·기관 소계 **191**

예술인 소계 **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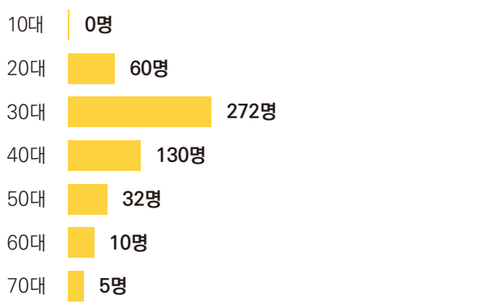


2015년 분야별 참여 예술인

소계 : 50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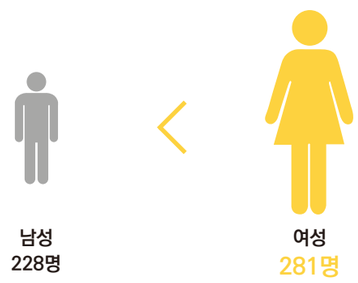


2015년 연령별 참여 예술인



소계 : 509명

2015년 성별 참여 예술인



소계 : 50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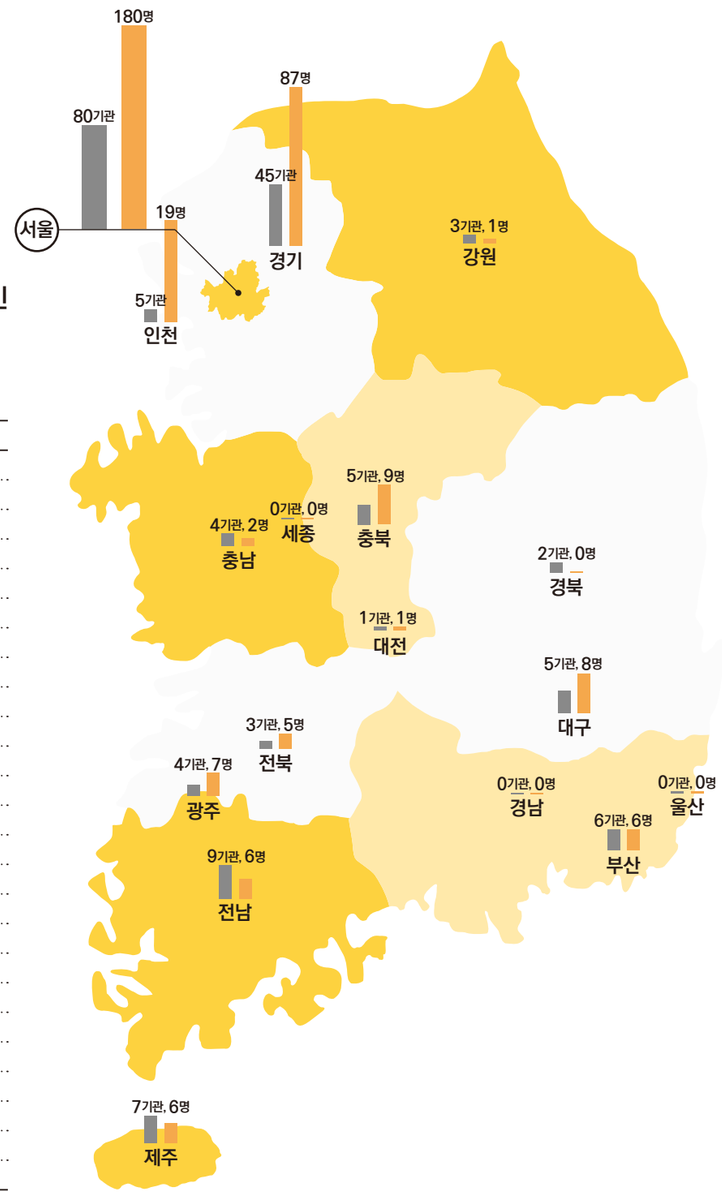
2014년도 통계

2014년도 참여 기업·기관은 179개로 이 중 서울은 80개, 경기는 45개 기업·기관이 참여 하였으며, 참여 예술인은 337명 중 서울이 180명, 경기가 87명 참여하였다.

2014년 전국 참여 기업·기관 & 예술인

기업·기관 소계 179

예술인 소계 337



2014년 서울 참여 기업·기관 & 예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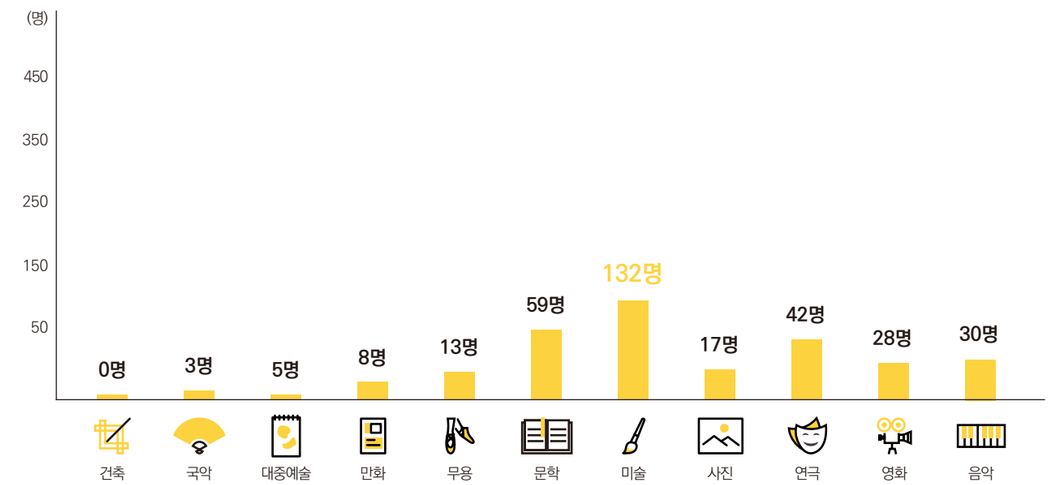
기업·기관 소계 80

예술인 소계 180

지역	기업·기관	예술가(명)
강남구	6	10
강동구	1	6
강북구	2	4
강서구	0	5
관악구	5	6
광진구	0	5
구로구	3	4
금천구	2	1
노원구	0	5
도봉구	2	4
동대문구	0	5
동작구	0	8
마포구	18	29
서대문구	1	12
서초구	4	5
성동구	1	3
성북구	7	15
송파구	3	9
양천구	2	7
영등포구	5	4
용산구	2	11
은평구	2	6
종로구	8	9
중구	5	1
중랑구	1	6

2014년 분야별 참여 예술인

소계 : 33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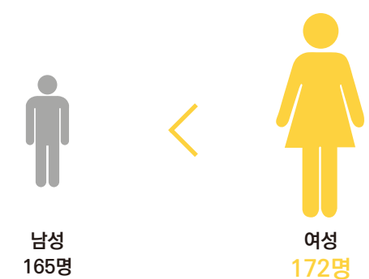


2014년 연령별 참여 예술인

10대	0명
20대	53명
30대	166명
40대	86명
50대	28명
60대	4명
70대	0명

소계 : 337명

2014년 성별 참여 예술인



소계 : 337명

파란 후 희망

2018년 늦여름, 5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일대 파란을 겪었다. 그리고 크게 숨고르기를 했다. 7월 활동비 지급유보에 대하여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들 다수가 당황했으며, 일부 예술인들은 분노하였다. 예술인들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대결 아닌 대결 구도로 기대와 신뢰가 무너져 내린 듯 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까? 예술계 일대가 크게 흔들렸고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글_ **최창희** 전문위원 (감성정책연구소 소장 / 영은미술관 큐레이터)

지금까지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 보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2014년에 시작해 올해로 5회의 성과를 이루었다. 2014년, 177개의 기업·기관과 마을에 337명의 예술인이 참여했던 작은 규모에서, 2015년에는 509명의 예술인이, 그리고 2016년부터는 약 1천여 명의 예술인이 동 사업에서 활동했다. 2018년 역시 1천 명의 예술인가 퍼실리테이터와 참여예술인으로 총 232개의 기업, 기관, 마을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펼쳤다.

예술인들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또는 1인 기업으로, 또는 사회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로, 마을이나 농촌으로 '파견'됐다. 구체적으로는 직접적인 기업·기관과 협업함으로써 사회와 현실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타 장르의 예술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간접적이거나 또는 매우 직접적으로 예술 활동이 확장되는 기회 등을 스스로 획득함은 물론 새로운 예술적 영감 등을 실험하고 실천하는 확장된 예술의 장이 모색됐다. 실제 예술인들은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고 피력한다. 대기업 게임회사에서 예술과 게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의료 벤처기업에서 새로 개발한 기구의 홍보를 예술적으로 구상하며, 서점이나 카페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재단 등에서 노인, 발달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만나기도 했으며, 여성단체를 통해 위안부 문제로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도심 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숙고하기도 했으며, 농촌의 현실도 마주하기도 하였다. 이뿐인가? 예술인들은 프로젝트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와 장르의 예술인들의 만남을 더욱 설레한다. 실제 타 분야의 예술인들을 만나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얻는다고 하며, 과정에서 이를 도출하거나 또는 과정 중이든 완료 후든 별도의 공동 예술 프로젝트 등을 마련한 경우도 드물지 않다. 아예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거나, 함께 문화공간을 운영하기도 한 사례도 있다.

무엇보다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예술인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경제적으로 안정감과 예술 활동의 역동성을 확보하는 가치를 생산했다. 실제 참여한 예술인 1천여 명이 수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활동비를 통해 안정감과 사회적 소속감 등이 생겼다고 소회한다. 또한 이를 통해 보다 자유롭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데 이를 통한 가치는 투입된 예산의 몇 배, 몇십 배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뿐인가? 참여한 기관과 단체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예술에 대한 이해가 폭넓어 진 것은 둘째고, 다양한 사업의 방향성을 얻게 됐으며 참여한 분들은 일차적 예술적 경험을 넘어 지속적 예술 활동을 계획하기도 한다. 또한 몇 년 전 참여한 이주노동자는 이 사업을 계기로 시나리오 작가로 계속 활동하며 자신의 나라 등에서 새로운 활동을 펼치는 의미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연장된 성과들을 찾아 소개하는 것 역시 중요해 보인다. 이와 같이 사업이 단초가 돼 예술과 기업과 협업, 예술의 사회적 개입을 통한 직·간접적인 가치까지 산입한다면 그 성과는 상당할 것으로 본다.

이처럼 예술인들 스스로가 좋은 의미를 언급하며 선호하였던 사업이었는데 어쩌다가 올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까? 초심을 잃은 예술인들의 태도만이 문제일까?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활동시간의 문제일까? 아니면 활동보고서 작성방법? 더 근본적으로 사업에 원인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원인의 분석에 따른 해결방법도 여러 가지일 것이다. 이 지면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려 한다. 바로 이 사업의 의미와 가치의 측면이다. 이 지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의논해보고자 한다. 먼저 사업의 근본적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이를 먼저 탐색해 보자.

예술과 기업의 만남?

이 사업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어쩌다가 보니 '예술과 기업의 만남'이 되었다. 예술인이 기관과 마을에서 활동을 펼치는 것보다 기업과의 협업으로 제품기획이나 홍보 마케팅 등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나,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또는 직장 내 공간을 예술적으로 조성함으로써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직원 복리후생이나 조직문화개선 등을 시도한 것이 더 주목 받았다. 이렇게 기업과의 만남이 동 사업의 대표 이미지로 형성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예술정책은 늘 '예술의 자생성' 마련과 더불어 문화산업 또는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예술을 통해 구축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예술활동을 통한 '예술적 개입'에 대한 분석이 적지 않다. 지난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최의 국제세미나에 초대된 지오바니 쉬우마가 대표적인데 〈성공적인 창조적 파트너십의 형성〉이라는 발표에서 그는 기업이 가치를 창조하고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예술이 강력한 수단이 된다고 언급한다. 그의 글을 읽으면 기업은 예술과의 협업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는 "예술은 기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롭게 한다. 예술은 사람들이 열정, 상상력, 열의를 갖고 참여하고 난세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기꺼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조직 환경을 만들고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1]"고 글에서 밝혔다. 나아가 예술은 조직의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는 가치 동인을 지원하고, 또한 기업의 명성과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역할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는 아주 정확하게 예술이 그러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은 '아름다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기반한 감각을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있어서 미학적, 미감적 특성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의 말에 계속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기업을 이롭게 하는 일이 과연 예술에도 이로운 것인가? 기업을 이롭게 하는 것인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인가? 나는 계속 자문자답을 해보았다. 대다수의 기업이 인간적인 조직으로 변화하면 그 기업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노동자의 삶이 보다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고 애써 답을 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목표가 그것에만 정향돼 있지 않다는 것에 이의가 발생하며, 예술적 개입이 기업을 바꾸겠다는 것보다 그것과 함께 이윤을 창출한다는 가치추구에 더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윤창출 등에서는 진정한 예술의 의미와 가치가 발현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태는 오히려 예술 본연의 가치를 왜곡하고 훼손한다.

1) 지오바니 쉬우마, 「성공적인 창조적 파트너십의 형성」, 20쪽

문제를 환기하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과 기업과의 협업만 있지 않다. 기관과 마을에서 행해지는 '예술적 개입' 또는 예술의 사회적 개입의 경우도 많다. 결국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의미는 경제 공동체인 기업을 넘어서 사회 및 문화 공동체의 기관, 마을 등의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예술적 개입'으로 폭 넓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예술'이 오지랖 넓게 여기저기 개입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술의 특이성 때문이다. 예술이 다른 인간의 실천, 특히 인간의 일반적 행위인 '일'인 노동과 다른 것은 예술이 가진 독특성 때문이다.

근대화와 산업화의 19세기에 낭만주의자들은 반대로 노동을 찬양하는 문화에 반기를 들었다. 그리고 근면성실의 노동이 아닌 게으름을 선언하면서 근대 시민사회 및 자본주의 경제의 새로운 덕목으로 떠오른 합리적 이성과 계몽적 사고, 진보와 노동 등을 거부하고 대신 한가로움과 도취, 감성, 상상력 등을 예찬했다. 특히 대표적인 낭만주의 철학자이자 문학가인 슐레겔은 '노동의 찬사'에 대립해 '게으름'을 옹호하면서 게으름을 "신의 경지에 이른 나태의 기술"이라고 언급하는데, 바로 이러한 한가로움과 게으름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예술'이다.[2] 근대화, 산업화, 분업화 등에서 야기되는 인간소외, 인간성 분열을 낭만주의자들은 '전인교육'의 의미에서 인간의 다른 활동(놀이, 교양과 예술 등)을 대치한다. 이러한 낭만주의 미적 교육에 대한 사유를 볼 수 있는 대표적 저서가 바로 프리드리히 실러의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이다. 실러는 미적 교육의 목적이 "감각적이고 정신적인 힘 전체를 가능한 최대로 조화롭게 형성하는 것"(20번째 편지)이며, 조화가 깨진 사람에게 조화를 재건하면서 인간을 "자기 자신 안에서 완성된 전체"(17번째 편지)로 만든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상국가로서 미적 국가는 오직 자유로운 놀이의 대상으로서만 대면하여 서며, "자유를 통해서 자유를 주는 것"이 이 왕국의 기본원칙이다.[3] 바로 인간의 시적 자율성, 유희가 수동적인 상태에서 능동적 주체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실러의 유명한 테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인간은 유희하는 경우에만 완전한 인간"이며, "인간은 아름다움과 함께 오직 유희해야 한다."(15번째 편지) 그렇기 때문에 유희하는 인간으로 존재하게 하는 예술이 우리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무한경쟁에 내몰려 어린 아이 시절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삶의 가치를 경쟁에만 두는 이 사회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존재 가치를 생각하는 것은 삶의 허영이나 사치 정도 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 반기를 들며 게으름, 여가, 유희를 외치며 예술을 주창하는 것이다. 예술은 사회의 질서에 균열을 내고 가치를 재분배하고 새로운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며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2) 조규희, 「18세기 독일문학에 나타난 노동과 게으름」, 『세계문학비교연구 제51집』, 2015, 426-427쪽
3) 실러,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 윤선규 외 역, (『프리드리히 실러의 미적교육론』의 1부), 대화문화아카데미, 2015. 한진이, 「실러와 훔볼트의 미적교육」, 『프리드리히 실러의 미적교육론』, 380~386쪽 참고

예술적 개입은 물론 예술적 실천이 함께해야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목적과 방향도 이러한 의미에서 예술적 개입, 예술적 실천이어야 할 것이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위원들도 실제 이러한 고민들에 생각을 같이했다. 여러 차례 사업의 개선방안 및 발전에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목적의 개선의견도 아래와 같이 오랜 숙고 끝에 아래와 같이 마련했다.

-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확산
- 예술과 사회의 상호협력을 통한 창의적 사회 토대마련
- 예술인 스스로의 예술적 개입으로 적극적 복지구현

위의 목적도 앞서 언급한 예술에 대한 논의와도 일맥상통한다. 이 사업이 본래의 의미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구조와 형식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간혹, 아니 대다수의 공공사업이 성과를 마련하기 위해 오히려 독이 되는 기준과 방식으로 사업을 형식화시키고 관습적인 태도를 지니게 한다. 지난 일련의 사태도 그것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된다고 판단된다.

활동시간과 활동보고서의 작성은 사업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질적 과정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와 향후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서 과정의 기록과 정보의 축적의 기능해야 한다. 실제 작성된 활동보고서를 살펴보면 불필요한 내용들로 많은 지면을 채우고 있다. 분량의 제한이 없는데도 지면을 가득 채운다. 방법이 문제였을지도 몰라도 참여한 예술인들도 활동보고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활동보고서 작성은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한 증빙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도 문제다. 재단도 예술인도 환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활동시간은 어떠한가? 이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건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방법 등이 고려된 기준일 것이다.

이것도 역시 사업을 잘 수행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다. 많은 것이 활동비 지급을 위한 기준으로 전락하고 있다. 본말이 전도된 형국이다. 사업의 본질적 의미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합리적, 형평적 기준을 세워버린 것이다.

예술인들의 활동을 노동사회의 노동시간, 노동방법과는 다르게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고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마련하려는데 방법이 예술적이지 못하고 사회적이고 기존의 질서 체계에 갇혀 있다면 그 과정과 결과도 '예술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형식과 내용은 닮아있다. 형식이 까다로우면 내용도 그 틀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예술의 방법과 예술의 모습으로 이해하고 접근해보자. 물론 공적 예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위에 기획재정부가 버티고 있어 쉽지도 않다. 그럼에도 방법이 있다. 알아서 맞춰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성격은 전혀 다르지만,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은 매우 단순하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데 최소의 요건을 요구한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경우 활동비는 예술인들에게 지급하는 창작지원금도 아니며, 수혜적 의미의 단순 복지금도 아니다. 사업의 발전과 질적 성과를 위해 다양한 추진방식도 고려해보길 바란다. 지속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를 고려해 다음해에도 이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면 좋을 듯하며,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팀 단위의 프로젝트 선정방식도 고려하면 좋을 듯하다. 선정단계에서부터 기업·기관과 예술인 팀이 구성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기반으로 선정한다면 보다 질적 수준이 높고 예측 가능한 예술프로젝트가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가능하다면 별도의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을 세운 기획사업 추진도 사업의 방향 설정과 성과 도출에도 큰 효과를 가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들은 전문위원 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예술인 역시 자정적 태도가 필요해

예술인들도 '예술'에 대해 자문해보기를 부탁한다. 예술이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기존 질서와 가치 체계에 끊임없이 질문하기 때문이다. 예술이, 예술인이 대단해서가 아니다. 그런데 사업의 과정이나 지원서 등에서 보이는 예술인들의 태도는 계몽적이거나 봉사활동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상투적이고 관습적으로 사업을 대하기도 한다. 그러한 태도에서는 예술의 사회적 개입의 효과나 어떤 화학적 폭발과 같은 예술의 탄생은 기대하기 어렵다.

전화위복이라 했다. 오히려 사업을 정비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5년간의 성과를 측정하고 향후의 비전을 재수립해야 한다. 오히려 반가운 일이다. 괴로운 순간을 겪었지만 아픈 만큼 성숙한다 하지 않는가. 사업은 성숙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힘을 모아보자!

무엇보다 신뢰구조를 회복해야 한다. 예술인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누구보다 더 예술인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술인들 역시 예술인들을 위해 설립된 재단을 신뢰해야 하지 않을까?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재단과 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정작 예술인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존재 가치가 사라질 것이다.

간혹 예술이 만병통치약도 아닌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무한경쟁의 시대, 인간성을 회복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대단한 예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회에 질문하는 예술을 기대한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예술에 희망을 건다. 그리고 그런 예술을 펼칠 수 있는 예술인들에게 희망을 걸어본다.

MATCHING PARTICIPANT

매칭일람

공모사업

연번	기업·기관 분류	퍼실리테이터	참여예술인
1	(사)강릉생명의숲국민운동	최제헌	고기은, 최상아
2	(사)녹색교육센터	박지혜	나미나, 박은주, 정신혜
3	(사)무지개뜨는언덕	김진영	박현진, 이상학, 장연화
4	(사)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영종도서관	김푸르나	강은정, 사윤택, 조은성, 주원익
5	(사)한강학술문화교류네트워크	김상규	박병훈, 서승인, 윤가현
6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김정아	김혜이, 윤대홍, 이수진, 이윤기
7	(주)글로연	유주리	김승연, 박수진, 조제인, 홍철희
8	(주)나인웨어	박미애	김지예, 유승조, 홍은경
9	(주)남영비비안	양재광	김세미, 김진주, 심주영, 오희정
10	(주)대교	배유리	김라연, 라성연, 윤푸름, 하이정
11	(주)대명호텔앤리조트 서울지점	김선동	강리정, 김보람, 윤수향, 장희아
12	(주)더숲	박지희	유현아, 이영민, 조하석, 최정문
13	(주)돈티비	강경태	박미리, 박상혁, 이자은, 최고은, 최초아
14	(주)마누파쿰	정은혜	김시연, 김영진, 양영신, 양정모, 윤인선, 최성호
15	(주)붉다	남주경	김양지, 이진아, 정의석, 최현주, 허새롬, 황아름
16	(주)비피	장정은	고은아, 박지연, 오정향
17	(주)쇼앤	김형관	박은하, 천에리카은녕, 황용주
18	(주)씨앤에프	강진실	박해선, 야은, 이소희
19	(주)영스타	감승민	금잔디, 박지은, 이정훈
20	(주)이타	이보람	강신혜, 곽혜영, 박이삭, 오정수, 이재홍
21	(주)질경이우리옷	양길호	강민경, 고정민, 박성율, 이춘남, 황재희
22	(주)코오롱	김보경	권은미, 이진우, 조형준, 홍민기
23	(주)타샤의책방	임지연	이미지, 이병철, 이정하, 조아라
24	(주)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정기훈	김미지, 김유진, 박보영, 이유리
25	(주)티테크이앤씨	주희란	김상숙, 김은영, 이해나
26	(주)하이사이클	왕희정	강동형, 서민정, 임영우
27	(주)호텔롯데롯데월드	이성준	김현성, 박새라, 송지연, 윤영현, 이수진
28	AGOSSIP	이현주	김소희, 이민지, 전지선
29	brandbaum	임진희	권혁규, 김효정, 한창우
30	SF&판타지도서관_도서출판42	김주욱	김정모, 문채영, 이명진, 이정우
31	U.P.P	송지은	강지숙, 유지혜, 이보영, 최성균, 최윤석
32	가치예술협동조합	김보경	신지혜, 진영아
33	감미상점	장선경	권현조, 김민정, 김유리, 김혜나
34	강원도교육청 원주가정형 Wee센터	김태덕	김민철, 전호현
35	강원도교육청 춘천가정형wee센터	김지영	서정연, 이승호
36	강원인재육성재단	심수정	김연지, 박선옥, 윤찬묵, 정현, 조찬희
37	건축연구소 샘	김문경	김한나, 한주희, 허연화
38	고양어린이박물관	권연희	구수현, 권수지, 권연순, 유희선, 이태경
39	공중캠프	이인의	박하늘, 배경헌, 양주연, 이혜진
40	교하도서관(한빛분관)	조숙경	김주환, 박경식, 임승천, 정승원
41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지역본부	최재원	김경선, 이수진, 정희선
42	귀덕간식	최진아	신미리, 이상홍
43	극장 봄	문정수	김종명, 박순영, 서영주, 이범구, 조은영, 최세아
44	김포시시설관리공단 통진도서관	윤석정	김가람, 문성준, 장순녀
45	꽃과 생활	김대현	장명훈, 조미형, 황문정
46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	정미진	김영빈, 이린아, 조성현
47	꿈교출판사	김은의	이우기, 전소현, 정혜원
48	노들장애인야학	김준성	류형석, 박은영, 조재홍
49	다온작은도서관	하원준	김동희, 윤세열, 조종덕, 허선혜
50	달음 협동조합	김준우	고재욱, 김두환, 김진
51	대륙서점	정희성	김보람, 이은아, 지성은
52	대명여울빛거리상인회	신연호	공미선, 이기봉, 임형수
53	대안공간 듬	김홍기	강정아, 박지한, 손승범, 안상훈
54	대야미마을 교육공동체	이환	김성태, 김주희, 오성택
55	대전광역시가정형Wee센터	유현민	권정미, 박대희
56	대전광역시교육청여학생가정형Wee센터	정재민	김재연, 노상희, 유혜림
57	대전광역자활센터	정다은	이승환, 허왕정
58	대창기연(주)	박민수	강현우, 이광용, 임광혁, 임지민, 조혜주
59	동네건축가들(DNAG)	김민지	김리아, 장진수, 정기엽, 정해연
60	동대문옥상낙원디알피(DRP)	김혜원	권주영, 원채리, 윤영욱, 이혜정, 장원정
61	디지큐브	김은진	박성민, 박승순, 이호탁, 임나래, 조윤영
62	리버스	김동일	박국진, 백주오, 이주영

63	마리서사	서진옥	김판묵
64	마포구립서강도서관	유혜인	박희주, 성나리, 이경화, 이슬기
65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박소영	노은석, 박송이, 정대진
66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이인규	김보민, 방아란, 손배영, 장혜진
67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염지희	강래오, 김연재, 나현정, 신지선, 정윤미
68	마포희망나눔	남정애	강화정, 박성철, 이지연, 정은주, 최영환
69	만유인력	류석현	강지희, 김태형, 차지은, 최미경
70	망고서림	이창훈	강지윤, 송주원, 이경미, 이원호, 정정호
71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	이영선	김민정, 이선옥, 이지영
72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송숙희	장혜원, 지근우, 최종룡
73	미광의상실	양보경	권승찬, 박유영, 박은현
74	밀리언아카이브	권순우	강은영, 박준영, 정명우
75	베리제주	이가영	박설아, 조향미
76	부천여성의전화	이정은	김미희, 정연숙, 홍은애
77	브리코프	이보라	김현영, 이웅철, 홍태림
78	사단법인 국경없는마을	양승주	오혜림, 현승진, 황혜정
79	사단법인 녹색연합	구시연	박승원, 손은지, 이래경, 정은조
80	사단법인 서울산책	임현진	장수영, 조은하, 한윤미
81	사단법인 와우책문화예술센터	정현진	박정인, 박정혜, 조수경, 표현우
82	사단법인 익산여성의전화	장마리	서완호, 윤여태, 이권중
83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남경순	김진, 이은지, 제소라
84	사단법인 청소년내길찾기	오현진	백승서, 이병승, 홍유경
85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연정	김지영, 이나연, 정원연
86	사랑의 힘 (꿈이룸학교)	권우정	마민지, 송호철, 이성권, 정윤경
87	샤르망호텔	박지영	박지영, 김미선, 박정경, 엄기준
88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김수정	김수정, 김은희, 최희정, 탁유진
89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김지연	박진아, 배정식, 신승은, 차미혜
90	서초문화재단 서초구립반포도서관	염상애	김숙희, 심은경, 이동엽, 홍상용
91	성남환경운동연합	김잔디	나광호, 박성진, 이계원
92	성미산문화협동조합	현은영	강지완, 김지현, 신은경, 임지현
93	섹시골드	이한나	문학진, 이경훈, 한경희
94	송파구보건소	권효진	이영미, 이정은, 임정희, 현지예
95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창수	강효정, 김영환, 김재영, 김혜영, 박대수, 정성태
96	스튜디오 마인드맨션	정경록	권혁민, 박주희, 송철호, 장재화, 정혜진, 황은후
97	시흥에코센터	최정수	유현주, 정경미, 조진아
98	아름다운재단	노혜리	강진주, 김유리, 정수은, 허선영
99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	이찬욱	아마리미호, 유용지, 이지현, 조신일, 하동민
100	아시아인권문화연대	김태균	강민지, 민광숙, 엄기현, 한혜정
101	아시안허브	정희영	김건희, 김윤정, 하재성
102	아트버스킹	하수민	권용민, 도재형, 원을미, 이영진, 한인수
103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김수정	김영미, 이아람, 장재경
104	암피스트	이정희	백경호, 허은영, 황정원
105	어반아트	김소은	강정민, 김성준, 윤호진, 황민규
106	언리미티드	신하정	전혜림, 진철규, 황정한
107	에이스정공	신혜원	김호성, 장덕래, 홍혜진
108	에이씨씨프로젝트협동조합	손상민	임태홍
109	에코샵홀씨	안광노	김홍근, 성필하, 송지인, 함승연
110	에피파니	신은주	손나예, 윤수희, 이관헌, 황수현
111	여백서원	이성미	김기훈, 오세린, 정효정
112	열손가락서로돌봄사회적협동조합	정대균	김소영, 김효진, 이종화
113	온누리전기	이은주	김이삭, 임성균
114	올오어낫싱	신지영	김지원, 박미라, 유광근
115	옹달샘지역아동센터	홍예원	고홍진, 성현구, 유경인, 이강아, 최민규
116	울림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오성화	이미라, 이윤신, 정광숙, 정한나, 채산하
117	울산가정형위(Wee)센터	임순옥	남광우, 신현재, 이준욱
118	워크스	유재인	류경호, 문해진, 윤여준
119	유한회사 자연과별가평천문대	조우람	권영인, 박승걸, 이송이, 차병호, 최홍준
120	유한회사스타컴퍼니(한옥호텔영산재)	이정진	설호종, 유희재, 이경조, 이두성, 이정훈
121	은성산업(주)	하영미	김덕원, 김수진, 김철환
122	은파산업	최은혜	김화용, 장맑은, 전유진
123	은하등대	오경훈	김명규, 서찬석, 이정헌
124	인사이드99	윤혜진	김준호, 박미옥, 성수연, 유명상
125	일생활균형재단	이세미	서정애, 이세린, 현승인
126	임팩트스테이션 주식회사	박선영	김재희, 김진하, 노사라, 성지현, 안정란, 전혜윤
127	자큰북스	이남희	강현석, 김명기, 배해률
128	재단법인 광명문화재단(광명문화의집)	이영욱	강선미, 김동형, 김선기, 안진우

129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신지연	박선영, 이태용, 장성진, 한겨레
130	재단법인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서호연	강수연, 이보람, 전민혁
131	져스트프로젝트	염소진	김지영, 이빛나, 조인한
132	주식회사 네오위즈	박혜수	강대진, 손지민, 염승철, 최경아
133	주식회사 브로콜리픽쳐스	옥정호	박혜진, 양정호, 원재운, 임철민
134	주식회사 비어포트브로이	황동윤	강민영, 김민경, 김유경, 신미정
135	주식회사 스페셜아트	노경애	권용숙, 김문경, 송명규, 이강준
136	주식회사 에이씨씨뮤직	홍혜선	박시현, 서요한, 인병훈, 한동석
137	주식회사 에이치마케팅커뮤니케이션	신동훈	김경선, 김택규, 박문지, 이승용, 이준학
138	주식회사 엘마드레	오선아	김동환, 김성환, 김유리, 박정기, 유영봉, 조예현
139	주식회사 케이티디에스	서민기	김현이, 박하진, 심아빈, 이진봉
140	주식회사 터치포굿	김시우	문해주, 이동주, 이승주
141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신지선	김혜영, 박민호, 조성배, 한지아
142	주식회사메타로그아트서비스	이미화	김다정, 김현석, 장준호
143	주식회사사진방	심명진	강선영, 김다인, 김다형, 김채린, 황선영
144	지구마을사회적협동조합	변민숙	김윤아, 윤진실, 조혜진, 팽샛별
145	진접문화의집	함혜정	박재영, 장경섭, 한미선
146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최명주	권정구, 박평만, 임미경
147	책방73걸음	문승영	강인대, 권성옥
148	청춘여가연구소	김은정	윤형근, 이지영, 조의주
149	추억극장 미림	이호정	김성운, 박지원, 이은지, 이호진, 천정하
150	출판놀이	김정민	김태호, 박효미, 양동혁, 현남
151	카카오다다	백현주	손주영, 엄유정, 오희원
152	카페 보스토크	백용성	신승주, 안가영, 옥민아, 은종훈
153	카페별꼴	김지영	배인숙, 이현만, 이희인
154	커피 & 바 복길이	김진아	김정민, 박주빈, 임정서, 정고요나
155	코리아팩토리	이미정	김민중, 김보라, 유수미, 이우동, 이재혁
156	키푸드	김정변지	곽동열, 박정희, 변신영, 이려진, 이현지
157	토요영농조합법인	김미남	고대훈, 신일호, 이정옥
158	파워한우	박영균	권근영, 박신애, 이지숙
159	파주나비나라박물관	강석태	안효정, 이은형, 지혜라
160	판교생태학습원	오주영	기푸름, 송광찬, 송은선, 정승혜
161	페어트레이드코리아	유재영	김지연, 신슬기, 이은영
162	페인트하우스우진	이요안나	김미숙, 송기두, 우민정, 정진화
163	평상시	김지수	곽한울, 김현진, 우혜민
164	피망과토마토	권칠인	김용현, 박용재, 오승수, 이승훈, 조성아, 최은지
165	필동2가 아키텍츠	강현아	장영원, 전성권, 정운정, 현준
166	하나투어문화재단	이지연	신희준, 이윤정, 허나영
167	하례1리 마을회	이치웅	김용철, 황동규
168	한국NVC센터	박승희	강희진, 전흥렬, 황도연
169	한국동서발전(주)	홍정희	신혜경, 이나경, 정해광
170	한국수자원공사	박지영	백선혁, 이훈희, 조연희, 허강일
17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남명옥	김유정, 송민숙, 이설애, 지선경
172	한기장복지재단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주현석	박선영, 장수명
173	한스피크(HanSpeak)	전보형	권아람, 노혜란, 유두진, 전세훈, 정용희
174	한양문고 주엽점	박채란	김휘리, 백은영, 하정훈
175	한화라이프에셋	송부영	서소형, 정우순
176	한화생명보험	이준구	이해은, 최효원, 하진선
177	행복한책방	신혜정	구휘, 김효관, 전귀언
178	협동조합이웃	조송주	김윤섭, 노경민, 이은정
179	후룻샵 HOOROOT SHOP	윤하얀	김보배, 도성일, 안경희, 이정주
180	휴먼피아코스텍(주)	김범준	김승택, 박예분, 안보미
181	희망일터	류미례	방승조, 선호빈, 이창민, 조예환, 한국남
182	히즈스토리	최윤희	강현우, 김한솔, 장나영

*사업중도포기 기업기관 2곳 제외

협업사업

*농협중앙회 연계

연번	매칭 기업·기관	참여예술인
1	감성마을	정민교, 정효현, 한창호
2	과채류마을	김지훈, 장윤미, 허주혜
3	궁터마을	권동원, 김선혁, 이준영
4	깐치멀(작촌)마을	박준범, 정유선, 허성
5	꽃내미풀꽃이랑마을	김용길, 이희경, 조원석
6	내포긴들마을	박예슬미, 변가영, 이동영
7	넓은들마을	김민혜, 김원호, 김정아
8	달빛무월마을	김영경, 조은지, 최현근
9	두월노을마을	김두진, 장영애, 하미숙
10	똥딴지마을	김현주, 이성미, 이수빈
11	매화마을	강예은, 박승희, 변병준
12	명하쪽빛마을	김탁현, 박효진, 최은미
13	무척산마을	김윤호, 박상은, 최승일
14	바람새마을	서주은, 우주인, 최진호
15	버들골마을	유성진, 윤승미, 정원석
16	봉강마을	신준민, 장하윤, 최물빛
17	부춘마을	권효정, 최숙경, 허지행
18	비암리마을	박현진, 오혜린, 홍후백
19	빗돌배기마을	강성민, 류현민, 성태향
20	서경들마을	배현우, 안소영, 조성원
21	소석마을	안은경, 이재은, 정진경
22	송천떡마을	김동길, 김성화, 손영은
23	숯골마을	신채롱, 이대희, 정종은
24	외갓집체험마을	김두영, 박예진, 박재현
25	유기농마을	김종희, 김혜영, 윤원효
26	이슬촌마을	김정남, 김정환, 조광식
27	이원리	김기범, 류민아, 정혜연
28	인덕마을	박성수, 이우상, 차여울
29	자채방아마을	고효경, 김우재, 한경희
30	창포마을	송은경, 임주아, 정나원
31	철새마을	강동훈, 문용일, 전하영
32	청사초롱마을	권주하, 신아리, 조윤수
33	충도3리	박해빈, 이고운, 임주미
34	치즈마을	이동형, 이성수, 한지훈
35	포도마을	박화홍, 이정은, 최정산
36	푸르내마을	김윤미, 정세영, 조영주
37	풍산개마을	강동주, 변승주, 이나래
38	하범곡마을	강현민, 김소희, 신형식
39	한배미마을	박현덕, 최정현, 황경현
40	화문석마을	강미연, 박경수, 염석무

*한국산업단지공단 연계

연번	매칭 기업·기관	퍼실리테이터	참여예술인
1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대구)	정만진	김재경, 박은혜, 박자현, 박진미
2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권진희	김동혁, 김지영, 박동조, 안용해
3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이수경	고경표, 이재은, 조성정, 최명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여가친화기업 연계

연번	매칭 기업·기관	퍼실리테이터	참여예술인
1	(주)젠큐릭스	이정아	오재우, 지수아, 허윤경
2	아름다운가게	류미현	김수영, 김혜율, 문지욱, 조현진
3	지니언스(주)	마두영	김혜련, 신채경, 이소의, 이수윤
4	케이티하이텔주식회사	조하연	강주리, 김수경, 라정인, 정혜숙
5	하지공업(주)	강경호	김형종, 배지오, 서유덕, 정필이

2018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사례집
예술, 새로 봄 다시 봄

기획·운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가치확산팀

팀장 : 최시정
운영 : 이기언, 이숙현, 박지선, 박아연, 김명선, 장하루

실행 : 이음스토리

작가 : 서지혜, 양철모, 성무량, 김남수, 최창희(이상 전문위원),
강석태, 류미례, 류미현, 정희성(이상 퍼실리테이터),
박선영, 박성율(이상 참여예술인), 김희정(이음스토리)

디자인 : 이음스토리
인쇄 : 새한문화사

사용 폰트

표지 : 돋움 맑경리체
내지 : KoPub 바탕체, KoPub 돋움체, Yoon가변 카피라이트_TT

발행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행인 : 정희섭 상임이사
발행일 : 2019.01

이 자료집에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있습니다.
도판과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미리 저작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T. 02-3668-0200
http://www.kawf.kr